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조총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의 대인도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인 쇄 2018년 12월 24일
발 행 2018년 12월 28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름(02-2273-7012)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714-7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언

2010년 한·인도 CEPA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듯 했으나, 이후 대인도 수출은 물론, 수입이 함께 정체되면서 최근 양국간 교역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 전기기기,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주력 품목은 아니지만 수출잠재력이 높은 일부 품목까지 해당됩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글로벌 공급사슬(GVC) 약화 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역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인도 수출정체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장과 산업구조 및 수입수요 변화, 개혁개방 등으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은 물론, 대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등에 업고 대인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점차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으로 세부 품목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정체 현상을 파악하고, 내·외부적 품목별 정체요인을 분석해 중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도의 수입시장 구조, 한국 대인도 수출구조, 그리고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지수, 비관세장벽 사례, 일·인도 CEPA 양허안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정체의 외부적 요인을 추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내부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더불어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인도의 통상환경과 애로사항, 현지화 전략, CEPA활용 및 사례 정보 등을 활용해 설문조사 분석을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과정을 거쳐 도출한 품목별 내·외부적 요인을 종합해 매트릭스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 그리고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연구진들은 문헌연구,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국내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점검의 필요성, 그리고 수출의 질적, 양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최근의 대인도 수출정체 현상과 요인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연구가 단편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 요인을 추정한 데 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조충제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송영철, 이정미 전문연구원, 그리고 윤지현 연구원이 원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언을 주신 본원의 최낙균 자문위원, 배찬권 연

구위원, 경의대학교 장용준 교수, 산업통상부 김진수 서기관, 무역협회 조의연 연구원, 그리고 익명의 심의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 논의가 심화되는 현시점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체적인 양국 협력과제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대인도 수출경쟁력 및 교역내용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국문요약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추정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이 요인을 토대로 제2~4장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파악했다. 첫째, 현지생산과 비관세 장벽의 확대이다.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을 도모하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수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이다. 중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 급증은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리의 대

인도 수출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부족도 수출정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자동차 부품품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주요 세부 수출품목(HS 코드 4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인도 수출경쟁력 변화와 변화 요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다수의 품목은 한국제품의 세계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일부 나타났는데,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수준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화, 일·인도 CEPA, 비관세 조치 등 또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지화는 자동차부품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자동차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는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일·인도 CEPA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플라스틱 품목 모두 일·인도 CEPA 양허가 한·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기화학(29) 및 고무(40), 철강(72)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경쟁력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300개 대인도 수출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외부 요인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그리고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역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요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는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CEP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외부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정책 방향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CEPA 개선 협의 지속 △현지화,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한 교역선순환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으로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24
2. 선행연구 검토	26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1
4. 차별성 및 한계	33
제2장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37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38
가. 인도 수입 추이	38
나. 유형별 수입 변화	42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48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48
나. 유형별 대인도 수출구조	53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61
가. 인도의 수입 환경 변화	63
나. 대인도 수출경쟁 심화	65
다. 인도의 수요 변화	74
4. 소결	80

제3장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83
1. 분석범위 및 방법	84
가. 분석범위	84
나. 분석방법	85
2. 품목별 분석	89
가. 주요 수출 품목	89
나. 수출잠재 품목	125
3. 소결	129
제4장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133
1. 설문조사 개요	134
가. 응답기업 특성	134
나. 대인도 수출 평가 및 분류	137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139
가.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39
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163
3. 소결	183
제5장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결론	185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186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192
가.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192
나. 장기적·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198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202
가.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202
나. 한·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203
다.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205
라.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	207
4. 결론	209
참고문헌	212
부록	217
Executive Summary	231



표 차례

표 1-1. 수출경쟁력 경쟁요인(내부적 요인) 관련 주요 선행연구	28
표 1-2. 수출경쟁력 수요요인(외부적 요인) 분석 선행연구	29
표 1-3. 교역변화에 대한 구조적 요인 분석 선행연구	30
표 2-1.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	40
표 2-2.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 원유·금 제외	41
표 2-3.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43
표 2-4.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원유·금 제외	44
표 2-5. 인도의 주요 중간재 수입 품목 변화 추이(HS 코드 6단위)	47
표 2-6.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48
표 2-7.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국	51
표 2-8. 한국의 대세계 수출 품목과 대인도 수출 품목 비교(2017년)	54
표 2-9.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55
표 2-10. 한국의 가공단계별 주요 수출국(2017년)	60
표 2-11. 인도의 상위 수입 품목과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비교 (2010~17년 누적)	62
표 2-12. 인도 주요 수입품목별 상위 수입국(2010~17년 누적)	67
표 2-13. 인도의 가공단계별 주요 수입대상국(2017년)	71
표 2-14. 인도의 주요 수입 증가 품목(HS 4단위, 2010~17년 기준)	75
표 2-15. 품목 분류 (1): 인도 수입증가율 <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HS 코드 4단위, 2010~17년 기준)	76
표 2-16. 품목 분류 (2): 인도 수입증가율 >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HS 코드 4단위, 2010~17년 기준)	77
표 2-17. 종합 분류: 수출경쟁 우위 vs. 열위, 주력 vs. 비주력 품목	78
표 2-18. 한국의 대인도 수출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 (비주력 품목 한정)	80

표 3-1. 경쟁력 변화 요인 및 파악 방법	89
표 3-2.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전기기기 수출 현황(HS 4단위)	91
표 3-3. 한국의 주요 전기기기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93
표 3-4. 전기기기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94
표 3-5. 한국의 대인도 주요 기계류 수출 현황(HS 4단위)	96
표 3-6. 한국의 주요 기계류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98
표 3-7. 기계류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99
표 3-8. 한국의 대인도 주요 철강 수출 현황(HS 4단위)	100
표 3-9.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102
표 3-10. 철강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103
표 3-11. 인도의 대한국 철강 비관세조치	104
표 3-12. 자동차부품 경쟁력 변동 요인	107
표 3-13. 한국의 대인도 주요 플라스틱 수출 현황(HS 4단위)	109
표 3-14. 한국의 주요 플라스틱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111
표 3-15. 플라스틱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111
표 3-16. 한국의 대인도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 현황(HS 4단위)	113
표 3-17. 인도의 대한국 및 대세계 유기화학품 비관세조치	115
표 3-18. 한국의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115
표 3-19. 유기화학품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116

표 3-2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710) 경쟁력 변동 요인	118
표 3-21. 한국의 대인도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 현황(HS 4단위) ...	119
표 3-22. 인도의 대한민국 고무 및 관련제품 비관세조치	120
표 3-23. 한국의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121
표 3-24. 고무 및 관련제품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	121
표 3-25.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정밀기기 수출 현황(HS 4단위)	123
표 3-26. 한국의 주요 정밀기기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124
표 3-27. 정밀기기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125
표 3-28. 한국의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 수출경쟁력 변화 (HS 4단위, 2010 vs. 2017)	127
표 3-29. 한국의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 경쟁력 변동 요인	128
표 3-30. 한국의 대인도 경쟁력 하락 요인과 대표 품목	130
표 5-1.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매트릭스	187
표 5-2. 기계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188
표 5-3. 전기기기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189
표 5-4. 화학/플라스틱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190
표 5-5. 철강 및 철강제품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191
표 5-6. 자동차부품/정밀기계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192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결정 잠재요인 재구성	31
그림 2-1. 인도의 수입 추이	39
그림 2-2. 인도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	46
그림 2-3. 한국의 대인도 및 대세계 수출증가율 비교	49
그림 2-4. 한국의 국가별 수출 규모 비교	52
그림 2-5. 한국의 대인도 수출 및 투자 추이: 중국·베트남과 비교	52
그림 2-6.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금액 변화 추이	56
그림 2-7. 한국의 대인도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61
그림 2-8. 주요 국가들의 대인도 수출 추이	63
그림 2-9. 신흥국 무역위축 현상	64
그림 2-10. 인도 무역위축 현상	64
그림 2-11. 주요 국가들의 인도 수입시장점유율	66
그림 2-12. 품목별 주요 국가들의 인도 수입시장점유율(2010~17년) ..	68
그림 2-13. 인도 가공단계별 수입에서 주요 수입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72
그림 3-1. 주요국의 전기기기 MCA 추이	90
그림 3-2. 한국과 주요국의 전기기기 수출경합도 추이	90
그림 3-3.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전기기기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91
그림 3-4. 주요국의 기계류 MCA 추이	95
그림 3-5. 한국과 주요국의 기계류 수출경합도 추이	95
그림 3-6. 한국의 대인도 주요 기계류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	96

그림 3-7. 주요국의 철강 MCA 추이	100
그림 3-8. 한국과 주요국의 철강 수출경합도 추이	100
그림 3-9. 한국의 대인도 주요 철강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	100
그림 3-10. 주요국의 자동차 및 부품 MCA 추이	105
그림 3-11. 한국과 주요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경합도 추이	105
그림 3-12. 한국의 자동차부품(8708) 수출 추이	107
그림 3-13. 한국의 대세계 vs. 대인도 경쟁력 지수 추이	107
그림 3-14. 주요국의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MCA 추이	108
그림 3-15. 한국과 주요국의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수출경합도 추이 ...	108
그림 3-16. 한국의 대인도 주요 플라스틱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109
그림 3-17. 주요국의 유기화학품 MCA 추이	112
그림 3-18. 한국과 주요국의 유기화학품 수출경합도 추이	112
그림 3-19. 한국의 대인도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113
그림 3-20. 주요국의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MCA 추이	117
그림 3-21. 한국과 주요국의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수출경합도 추이 ...	117
그림 3-22. 2710의 한국의 대인도 MCA 추이	118
그림 3-23. 2710의 한국의 RCA 추이	118
그림 3-24. 주요국의 고무 및 관련제품 MCA 추이	119
그림 3-25. 한국과 주요국의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경합도 추이	119
그림 3-26. 한국의 대인도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 품목 MCA 추이 (HS 4단위)	119
그림 3-27. 주요국의 정밀기기 MCA 추이	122
그림 3-28. 한국과 주요국의 정밀기기 수출경합도 추이	122

그림 3-29.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정밀기기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123
그림 4-1. 설문응답기업 산업별 분포	135
그림 4-2. 응답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규모	135
그림 4-3. 수출전략 변화 및 진출형태	136
그림 4-4. 생산지역 및 수출대상	137
그림 4-5. 산업별 대인도 수출평가 응답률	138
그림 4-6.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39
그림 4-7. 인도시장 내 경쟁구도 변화	140
그림 4-8. 경쟁관계 변화 및 열위 요인	141
그림 4-9. 수출품목 형태 및 대상	142
그림 4-10. 인도 수입 관세 및 비관세 평가	143
그림 4-11. 비관세장벽 종류	144
그림 4-12. 대인도 기계류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46
그림 4-13. 대인도 기계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147
그림 4-14. 기계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147
그림 4-15. 기계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148
그림 4-16.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49
그림 4-17.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150
그림 4-18. 전기기기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151
그림 4-19. 전기기기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151
그림 4-20. 대인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52
그림 4-21. 대인도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153

그림 4-22.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154
그림 4-23.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155
그림 4-24. 대인도 철강, 철강제품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56
그림 4-25. 대인도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157
그림 4-26.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158
그림 4-27.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158
그림 4-28. 대인도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160
그림 4-29.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경쟁관계 변화	161
그림 4-30.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162
그림 4-31.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162
그림 4-32.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163
그림 4-33.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164
그림 4-34.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164
그림 4-35. CEPA 미활용 요인	165
그림 4-36. 수출 대체 지역(국가)	166
그림 4-37. 대인도 기계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167
그림 4-38. 기계류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168
그림 4-39. 기계류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168
그림 4-40. 기계류 품목 수출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	169
그림 4-41. 기계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170
그림 4-42.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171
그림 4-43. 전기기기류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171

그림 4-44. 전기기기류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172
그림 4-45. 전기기기류 품목 수출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	173
그림 4-46. 전기기기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173
그림 4-47. 대인도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	174
그림 4-48. 화학, 플라스틱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175
그림 4-49.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175
그림 4-50. 화학, 플라스틱류 품목 수출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	176
그림 4-51.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	176
그림 4-52. 대인도 철강, 철강제품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178
그림 4-53. 철강, 철강제품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179
그림 4-54. 철강, 철강제품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179
그림 4-55. 철강, 철강제품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	180
그림 4-56. 대인도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180
그림 4-57.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182
그림 4-58.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182
그림 5-1. 한·인도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안)	205
그림 5-2. Team Korea 형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사업 구조(안)	208



글상자 차례

글상자 4-1. 인도의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현황	144
글상자 4-2. 인도의 반덤핑 부과 및 대응 사례	145
글상자 4-3. 인도 진출 철강제품 공급업체 사례	159
글상자 4-4. 국내 윤활유 수출기업의 현지화 추진	177
글상자 4-5. 인도 진출 국내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현지화 사례	181
글상자 4-6.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CEPA 활용 사례	183
글상자 5-1. HS 코드 임의변경 및 적용 사례	199
글상자 5-2. 주요 CEPA 미양허 및 부분적 관세 철폐 품목	201



부록 표 차례

부표 1. 가공단계별 BEC 코드 분류	218
부표 2. 한-인도와 일-인도 CEPA 상품부문 양허유형 비교	218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차별성 및 한계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2018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국정과제 98번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 명시된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이다.¹⁾ 실제로 신북방정책은 이를 총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17년 8월부터 가동되었으며, 위원장의 관련국 방문은 물론 대통령이 다양한 정상외교를 통해 직접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등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관련하여 신북방정책 추진 로드맵과 9개 실행계획(9 Bridges) 등이 수립되어 있다. 신남방정책도 진전되고 있다. 2017년 11월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summit)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사람·평화·상생의 3P(People, Peace, Prosperity) 공동체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3P 공동체 비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설치, 출범되는 등 신남방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경제 구상 및 정책으로 지속 추진될 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맥락의 대외정책이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및 중국과의 (G2)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개방화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신남·북방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2 무역 갈등이 종결된다고 하여도 G2에 과도하

1)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은 한반도 서해안을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그리고 남북한 접경지역 비무장지대를 연결한 환경·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계되어 있어 아직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비해 구상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게 의존해 있는 경제 및 무역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신남·북방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²⁾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 다음으로 큰 경제협력 파트너다. 인도는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합한 경제규모보다 큰 2.7조 달러의(2017년 기준) 거대 신흥국가이다. 최근과 같이 7%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 유지할 경우 인도는 2023~24년 경제규모 5조 달러를 달성하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G3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도와 아세안과 3P 공동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현재의 미·중·일·러 4강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골자다.

본 보고서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수출확대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인도 교역은 2011년 206억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급속히 증가했다. 2010년에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하지만 이후 양국간 교역은 정체했다. 수출은 물론 수입이 같이 정체하고 감소하기도 했다. 2017년에서야 양국간 교역규모가 다시 2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그동안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역 목표액을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정상회담에서는 2015년까지 400억 달러가 목표로 합의됐다. 하지만 이후 양국 교역은 200억 달러 이하에서 지속 정체됐다. 양국간의 교역이 정체되는 동안에도 인도는 연평균 7%대의 고속성장을 지속 유지했다. 인도도 기본관세를 인하하고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개방적인 대외경제 정책 기조를 지속 유지해왔다. 특히 한·인도 간의 교역정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인도와 중국 간 교역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특히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점유율은 3% 미만이었다. 하

2)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도 신남·북방 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지만 이후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 내외로 최근까지 지속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의 점유율은 지난 2016년 17%를 돌파할 정도로 높아졌다.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어떤 이유에서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이유를 제품별로 찾아 문제를 해소하고 중국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 발표했다.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서도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교역 중에서도 수출정체 현상에 우선 집중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수출경쟁력은 국제무역에서 일국의 무역성과를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마다 연구목적과 데이터 활용성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경쟁력을 세계시장, 또는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 증가율 등으로 나타내거나(Magnier and Toujas-Bernate, 1984; Carlin *et al.*, 2001; Amable and Verspagen, 1995), 수출/수입 비중(Greenhalgh *et al.*, 1994; Greenhalgh, 1990), 현지비교우위 및 시장비교우위 지수 등의 대응지표로도 나타낼 수 있다(Hulst *et al.*, 1991).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경쟁력 요인은 크게 수출국(내부적 요인)과 수입국(또는 세계) 측면(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

부분의 선행연구는 수출기업의 기술, 가격, 상품, 비용, 생산성 관련 변수 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Amable and Verspagen(1995)과 Landesman and Pfaffermayer(1997)는 OECD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출과 특허권 변수를 활용, 기업의 혁신활동이 수출 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Madden *et al.*(1999) 역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5개국을 대상으로 특허권 변수를 활용해 혁신 활동이 수출경쟁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했다. Fagerberg(1988)는 수출점유율 향상에 있어 상대단위 노동비용과 같은 가격 요인보다는 기술수준과 기술경쟁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했다. Ioannidis and Schreyer(1997)는 22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반면 Carlin *et al.*(2001)은 OECD 14개국의 12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술경쟁력보다는 상대단위 노동 비용이 수출경쟁력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내에서는 권철우, 전봉걸(2008)이 한국 경공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수출점유율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경원, 장선미(2003) 역시 기업생산성 향상이 수출 비교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현훈(1993)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이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했다. 무역협회(2018)는 시장불변점유율 모형을 바탕으로 2017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경쟁력 변화의 단기적 요인을 경쟁력요인, 상품구성요인, 수요요인으로 구분해 중국, 일본 및 EU의 경우 현지 수요 부진, 그리고 미국의 경우 현지 경쟁력 약화가 요인임을 밝혔다.

표 1-1. 수출경쟁력 경쟁요인(내부적 요인) 관련 주요 선행연구

선행연구	경쟁요인	분석대상(수출국)
Amable and Verspagen(1995) Landesman and Pfaffermayer(1997) Madden <i>et al.</i> (1999) Fagerberg(1988)	· 기술수준, 기술경쟁력 · 혁신수준 등	OECD 아시아-태평양 5개국(한국 포함)
Ioannidis and Schreyer(1997)	·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유럽
Carlin <i>et al.</i> (2001)	· 상대단위 노동비용	OECD
권철우 · 전봉걸(2008)	·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한국
주경원 · 장선미(2003)	· 생산성(총요소생산성)	
이현훈(1993)	· 기술개발, 외국기술도입	
한국무역협회(2018)	· 경쟁력 요인(가격, 품질 등)	

자료: 선행연구를 종합해 저자 작성.

한편 무역협회(2018), 한국개발연구원(2007)에서 수요요인, 상품구성요인을 분석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수출은 수입(국가) 측의 영향, 즉 외부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수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지표로 표현되는 수출경쟁력이 단순히 수출국의 수출 변화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수입변화를 함께 고려해 산출되기 때문이며 수입국의 경기변동, 산업구조 및 수입수요 변화, 정책 및 제도적 영향 등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혼재된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Nagesh Kumar (2001)는 인도의 수입수요가 인도의 경제성장(경제규모), 무역자유화, 국제유가, 산업고도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Nassir(2016)는 인도의 수입이 국내 인플레이션, 1인당 국민소득,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자유화 정도, 국경 인접 여부가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Bishwanath(2013)는 인도의 수출 및 상품구성 변화, 그리고 무역자유화 정도가 인도의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김영귀 외(2016)는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했으며 소비재 수입의 경우 국내 소득수준과 경

제규모,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받고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이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산업의 산출량과 수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FTA 등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오동윤(2012)은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대상국의 경제규모, 환율, 관세율, 문화적 거리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표 1-2. 수출경쟁력 수요요인(외부적 요인) 분석 선행연구

선행연구	수요요인	분석대상(수입국)
한국무역협회(2018) 한국개발연구원(2007)	· 경기변동 · 상품구성요인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김영귀 외(2016)	· 소득 · 경제규모 · 외국인투자 · 산업 및 수출구조 변화	한국
오동윤(2012)	· 대상국 경제규모 · 환율 · 관세율 · 문화적 거리	
Nagesh Kumar(2001)	· 경제성장(경제규모) · 무역자유화 · 국제유가 · 산업고도화	인도
Nassir(2016)	· 인플레이션 · 1인당 국민소득 · 무역자유화 · 거리(국경 인접 여부)	
Bishwanath(2013)	· 수출 증가 · 수출품목구성 변화 · 무역자유화	

자료: 선행연구를 종합해 저자 작성.

한편 글로벌가치사슬, 즉 공급망 무역(supply-chain trade)의 확산이 수출(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³⁾ 특히

과거에는 위 요인들이 수출확대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의 한계와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 까지 세계무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급망 무역이 성숙 및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해외직접투자, 즉 현지화가 더 이상 급격한 수출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관련하여 Fouquin and Jules Hugot(2016)는 2008년 이후 세계무역 감소 및 둔화가 순환적 요인이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의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근거 중 “GVC 확산의 둔화”,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이 수출을 대체하는 경향” 등을 지적했다.⁴⁾ JETRO(2016)는 세계 교역 둔화의 요인으로 글로벌가치사슬 포화와 중국의 수요 감소를 지적했다. 또한 Sébastien Jean(2015)은 무역상대국의 성장률에 따른 교역규모의 변화, 즉 수요효과로 설명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구조적 변화로 인식했으며, 이는 공급망 무역과 보호무역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경우 무역량 감소 및 둔화가 상대국의 수요요인보다는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표 1-3. 교역변화에 대한 구조적 요인 분석 선행연구

선행연구	구조적 요인	분석대상
Fouquin & Jules Hugot(2016)	· GVC 확산의 둔화 · 현지화의 수출 대체 효과	세계교역
JETRO(2016)	· GVC 포화 · 중국의 수요 감소	
Sébastien Jean(2015)	· 공급망 무역 정체 · 보호무역 강화	
Jouchi Nakajima(2016)	· GVC 정체, · 중국의 로컬생산 확대 · 무역의 장기소득탄력성 저하	

자료: 선행연구를 종합해 저자 작성.

3) 김계환 외(2016)는 공급망 무역을 국제생산네트워크와 연계된 재화, 투자, 서비스, 인력의 국제적 흐름으로 정의한 개념으로 사용함(R. Baldwin, 2012, p.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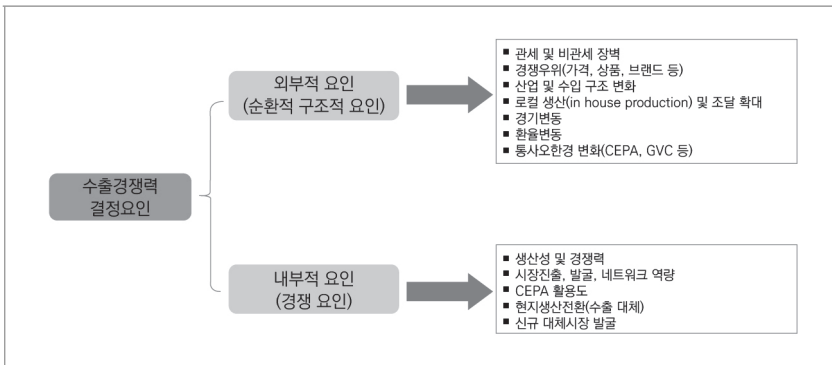
4) Fouquin, Hugot(2016), p. 4, 재인용; 김계환 외(2016), pp. 44~45.

Jouchi Nakajima(2016)은 성장률보다 낮은 교역정체 현상, 즉 “slow trade”의 요인으로 글로벌가치사슬 정체, 중국의 로컬생산 증가, 무역의 장기소득탄력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주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그리고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특성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요인들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해 재구성했다. 이러한 요인분석 접근법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그림 1-1.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결정 잠재요인 재구성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인도 총수출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상이한 수출정책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경기변동, 환율변동 요인 등은 제외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 제3장, 제4장은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책 요인을 추정하고 분석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UN comtrade의 HS 2단위 기준 교역 데이터를 활용해 △ 인도의 수입시장 구조 △ 한국 대인도 수출구조 △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점검한다.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경우 각각 품목별, 국가별, 가공단계별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고, 또한 이를 비교 분석해 인도 수입시장 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주력품목과 잠재품목 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요인과 개연성을 대략적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2장에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외부적 요인 중 인도 내 국가간 경쟁구도 변화와 산업 및 수요구조 변화 요인 식별만 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주력품목과 잠재품목을 HS 4단위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무역지수(RCA, MCA, ESI)를 활용해 제2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세부 품목별 수출 감소, 정책요인을 분석한다. 더불어 추정 가능한 요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율 및 RCA 지수 변화, 품목별 비관세 사례, 일·인도 CEPA 양허안을 활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책의 외부적 요인 중 인도의 로컬생산 및 조달 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영향과 개연성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제4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을 제시한다. 앞서 서론에서 설정한 대내외 요인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률을 품목별로 구분해 도출하고 제2장, 제3장에서 추정한 요인과의 일치성 여부도 함께 고려해

5) 외부적 요인 중 로컬생산 및 조달 확대는 수출기업 측에서의 현지화가 아닌 전반적인 인도 내 로컬생산과 조달이 확대되면서 발행하는 영향을 의미함.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인도의 통상환경과 애로사항, 대한민국 수입 현황, 현지화 전략, CEPA 활용 및 사례 정보 등을 활용해 설문조사 분석을 보완한다. 특히 설문 및 현지조사 분석 결과는 앞선 방법론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와 관련한 기업 내부적 요인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외부적 요인 중 제2장, 제3장의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 인도에 수출만 하는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현지조사(간담회) 대상은 한국으로부터 수입과 현지생산을 병행하는 중견, 대기업이 많아 분석 표본의 특성이 비교적 적절히 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장~4장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품목별 내·외부적 요인을 종합해 매트릭스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 결론을 제시한다.

4. 차별성 및 한계

본 연구는 양국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지수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세계 교역,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교역 감소, 정체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단편적인 통계데이터만을 활용해 단편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이 데이터 분석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정량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해 앞선 분석 방법을 보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제 2장, 제3장, 제4장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을 품목별로 추정,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의 일치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무역데이터 분석의 경우 특정 품목의 대인도 수출이 지속 증가하거나 지수(RCA, MCA 등)가 향상되어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설문조사(또는 현지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개별기업의 응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⁶⁾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이 제외되어 환율변동, 경기변동 등의 중요한 외부적 요인을 식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무역데이터의 특성상 교역 변화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용이하지만, 그 자체로 요인을 추정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하에 다양한 개연성과 가능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을 추정했음을 미리 밝힌다. 설문조사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기업은 약 2,500개로 추정되지만, 설문응답 기업은 300개로 샘플의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품목별로 분석할 경우 관측치가 더 적어져 분석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2장, 제3장에서 도출한 요인 추정 결과를 보완하는 데 주로 활용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양적 교역보다 교역의 질이 강조되는 만큼, 부가가치 무역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한계로 양국간 부가가치 무역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활용 가능한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의 시계열 기간이 본 연구의 대상 기간과 다소 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본 연구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HS 4단위 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외부 요인을 정량적,

6) 설문조사나 간담회의 경우 실제 수치상으로 기업의 수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체감상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했을 경우 부정적 응답을 할 소지가 있음.

정성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과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해결 과제들은 깊이와 범위를 더해줄 수 있는 향후 미래의 연구로 남겨둔다.

제2장

K

PM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4.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인도 수출경쟁력이나 수출 애로사항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통계자료 (UN Comtrade와 WITS,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파악해 본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인 변화 추이와 품목별 및 가공단계별 구성과 변화를 차례로 분석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정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을 짚어본다.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가. 인도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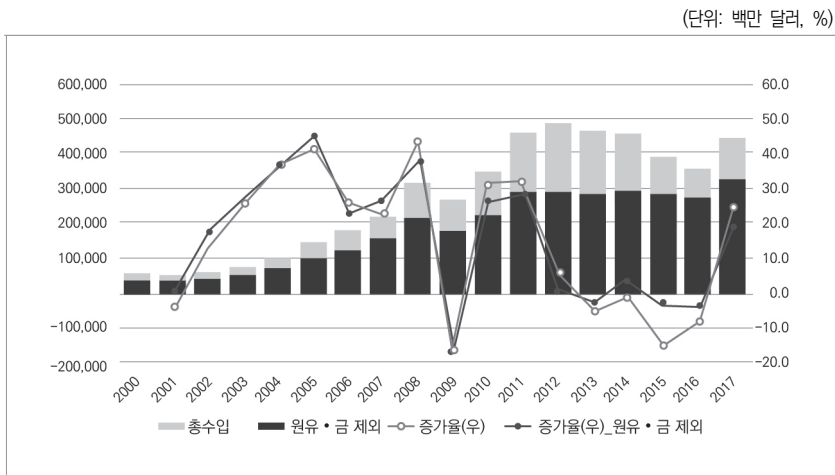
인도 총수입은 [그림 2-1]에서 보듯 2000년 530억 달러에서 연평균 20.4% 증가하며 2012년 처음으로 4,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락하고 귀금속 가격 상승의 여파로 금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⁷⁾ 인도 총수입은 연이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 3,57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2017년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인도 총수입 역시 2017년 전년대비 24.5% 증가한 4,440억 달러로 회복했다. 이처럼 인도 수입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는데, 이는 인도 총수입에서 원유(HS 270900)의 비중이 연평균 25.3%(2000~17년 기준)에 달하며, 원유를 포함한 광물성연료에 귀금속까지 더하면 그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데 기인한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원유(HS 270900)와

7) 유로저널(2016. 5.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13).

비(非)가공 금(HS 710812)을 제거하고 인도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 들어 큰 변화폭 없이 3,000억 달러 안팎에서 정체되 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최근의 수입 변화가 실질적인 수입량의 변화보다는 원 유 가격 변동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14년 수준 에 가깝게 회복된 2017년의 수입은 단순히 원유 가격 상승 요인뿐만 아니라 전 기기기, 기계류 등의 수입 역시 증가한 결과로서, 그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 인도의 수입 추이



주: 원유(HS 270900)와 비가공 금(HS 710812)을 제거함. 증가율은 명목 기준.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4)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광물성연료와 귀금속 품목에서의 핵심 교역파트너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산유국 들과 스위스, 벨기에, 호주, 홍콩과 같은 귀금속 수출국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표 2-1]에서와 같이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UAE,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가 차례로 3위부터 5위를, 이라크

가 8위를 기록했다. 인도에 팜 오일과 석탄 및 구리광석을 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와 석탄, 금, 구리광석이 주요 수출품목인 호주가 각각 6위와 9위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2017년 기준 16.2%의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인도의 수입국 1위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도가 대외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던 시점과 맞물려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방송·통신기기, 기계류, 전산기기 등 저가의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⁸⁾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연평균 증가율 25.7%를 기록하며 2000년 인도 수입국 8위에서 4년여 만인 2004년 1위에 오른 이래 지체부동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저유가로 주요 산유국들의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이 하락한 틈에 지난 2년간 중국에 이어 2위 수입국으로 자리했다.

표 2-1.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

(단위: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벨기에	6.1	중국	7.2	중국	11.8	중국	15.8	중국	17.0	중국	16.2
2	영국	6.0	미국	5.9	UAE	8.8	사우디	5.5	미국	5.7	미국	5.4
3	미국	5.4	스위스	5.0	스위스	6.3	스위스	5.4	UAE	5.4	UAE	5.2
4	스위스	5.3	독일	3.9	사우디	5.8	미국	5.2	사우디	5.2	사우디	4.7
5	일본	4.2	벨기에	3.7	미국	5.5	UAE	5.2	스위스	4.2	스위스	4.6
6	독일	3.4	UAE	3.6	호주	3.4	인도네시아	3.6	한국	3.4	인도네시아	3.7
7	사우디	3.0	호주	3.5	독일	3.3	한국	3.3	인도네시아	3.4	한국	3.6
8	중국	2.8	한국	3.1	이란	3.2	독일	3.0	독일	3.2	이라크	3.4
9	싱가포르	2.6	영국	3.1	나이지리아	2.9	이라크	2.9	이라크	2.8	호주	3.2
10	남아공	2.6	일본	2.6	한국	2.8	나이지리아	2.6	일본	2.7	독일	2.9
이하 (16)	한국	1.5	-	-	-	-	-	-	-	-	-	-

자료: WITS; UN Comtrad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9. 13)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Singh(2012), p. 3(검색일: 2018. 9. 10).

표 2-2.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국: 원유·금 제외

(단위: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벨기에	9.6	중국	10.2	중국	18.3	중국	21.7	중국	22.1	중국	22.1
2	미국	8.5	미국	8.3	미국	8.0	미국	6.3	미국	7.0	미국	6.6
3	일본	6.6	독일	5.5	독일	5.1	인도네시아	4.9	한국	4.4	인도네시아	4.9
4	독일	5.4	벨기에	5.2	한국	4.4	한국	4.6	인도네시아	4.4	한국	4.9
5	중국	4.4	한국	4.4	인도네시아	4.3	독일	4.2	독일	4.2	호주	4.2
6	싱가포르	4.2	호주	4.0	일본	3.7	일본	3.4	일본	3.6	독일	3.9
7	말레이시아	3.5	스위스	3.9	벨기에	3.3	벨기에	2.9	호주	3.1	일본	3.2
8	호주	3.1	일본	3.7	홍콩	3.3	호주	2.9	벨기에	2.7	홍콩	3.2
9	인도네시아	2.9	싱가포르	3.2	호주	3.2	말레이시아	2.9	말레이시아	2.5	말레이시아	2.2
10	홍콩	2.7	인도네시아	3.0	싱가포르	3.2	카타르	2.9	홍콩	2.5	싱가포르	2.2
이하 (11)	한국	2.4	-	-	-	-	-	-	-	-	-	-

주: HS 710812와 HS 270900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자료: WITS; UN Comtrad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4)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처럼 중국과 미국, 주요 산유국들과 귀금속 및 광물 수출국들이 상위권에 포진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을 올려나갔다. 2000년 당시 1.5%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최고치인 3.4%를 기록했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다시 3.6%로 회복하며 현재 인도의 일곱 번째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 광물성연료와 귀금속이 전체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품목만으로 이처럼 선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표 2-2]에서와 같이 원유(HS 270900)와 비가공 금(HS 710812)을 제외하고 국가별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을 차례로 나열했을 때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과 함께 인도의 상위 5대 수입국으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호주, 일본, 홍콩,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이 잇따른다. 인도에 팜 오일과 광물자원(원유 제외)을 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인도의 핵심 수입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유형별 수입 변화

1) 품목별

지난 20여 년 사이 전체 수입이 10배 가까이 확대되는 동안 품목별 구성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광물유·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HS 27, 이하 광물성연료), 진주·(반)귀석·귀금속·모조신변장식품·주화(HS 71, 이하 귀금속), 전기기기 및 부분품(HS 85, 이하 전기기기),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부분품(HS 84, 이하 기계류), 유기화학품(HS 2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HS 39, 이하 플라스틱),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동식물성납(HS 15, 이하 동식물성 유지), 철강(HS 72), 광학기기·사진/영화용기기·측정/검사/정밀/의료용기기 및 부분·부속품(HS 90, 이하 정밀기기), 광·슬랙·회(HS 26) 순이다.

[표 2-3]에서와 같이 광물성연료와 귀금속은 인도의 핵심 수입품목으로서 꾸준히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해왔는데, 저유가의 영향을 받은 최근 3년 동안에는 광물성연료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가 경제 규모의 확대와 원유 수요 증가로 인도가 세계 원유 3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15~16년 국제 유가 변동으로 석유(HS 2709) 수입액은 2013년 1,480억 달러에서 2016년 610억 달러로 급락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⁹⁾ 높은 귀금속 수요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축제나 결혼식의 필수품이자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여기는 인도의 문화적 및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수입되는

9) 광물성연료(HS 27)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67%에 달한다.

표 2-3.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1	27	19,342 (36.5)	27	46,322 (32.9)	27	110,841 (31.7)	27	104,646 (26.8)	27	89,309 (25.0)	27	123,108 (27.7)	11.5
2	71	9,937 (18.8)	71	23,323 (16.6)	71	68,630 (19.6)	71	59,633 (15.3)	71	48,130 (13.5)	71	74,307 (16.7)	12.6
3	84	4,216 (8.0)	84	12,877 (9.1)	84	28,090 (8.0)	85	35,522 (9.1)	85	36,660 (10.4)	85	46,557 (10.5)	18.3
4	85	2,692 (5.1)	85	11,073 (7.9)	85	25,209 (7.2)	84	32,406 (8.3)	84	32,660 (9.2)	84	36,163 (8.1)	13.5
5	29	1,595 (3.0)	72	5,310 (3.8)	29	12,116 (3.5)	29	15,918 (4.1)	29	14,767 (4.1)	29	17,966 (4.0)	15.3
6	15	1,410 (2.7)	29	5,101 (3.6)	72	10,701 (3.1)	72	11,708 (3.0)	39	11,413 (3.2)	39	13,034 (2.9)	19.0
7	28	1,155 (2.2)	90	2,562 (1.8)	39	7,348 (2.1)	39	11,373 (2.9)	15	10,491 (2.9)	15	11,874 (2.7)	13.4
8	72	998 (1.9)	15	2,428 (1.7)	15	6,441 (1.8)	15	10,481 (2.7)	72	8,714 (2.4)	72	9,959 (2.2)	14.5
9	90	941 (1.8)	39	2,428 (1.7)	31	6,162 (1.8)	31	7,459 (1.9)	90	7,419 (2.1)	90	8,557 (1.9)	13.9
10	39	682 (1.3)	28	2,351 (1.7)	26	5,541 (1.6)	90	7,208 (1.8)	89	5,481 (1.5)	26	5,872 (1.3)	18.6
소계	-	42,968 (81.2)	-	113,776 (80.8)	-	281,078 (80.3)	-	296,353 (75.8)	-	265,044 (74.3)	-	347,399 (78.2)	-
총계	-	52,940	-	140,862	-	350,029	-	390,745	-	356,705	-	444,052	13.3

※ [15]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납 [26]광, 슬랙, 회 [27]광물성연료, 광물 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8]무기화합물 및 유·무기화합물 [29]유기화합물 [31]비료 [39]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등 [72]철강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품 [85]전기기기 및 부품품 [89]선박 [90]수상구조물 [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기기, 측정/검사/정밀/의료용기기 및 부품품과 부속품.

주: HS 99(기타)는 순위에서 제외함. *2000~17년 기준.

자료: WITS(검색일: 2018. 9. 13)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귀금속의 상당량이 세공을 거쳐 재수출되고 있다.¹⁰⁾

인도의 산업화와 생활수준 향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동안 전기기기는 수입품목 순위 3~4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수입비중을 늘려왔다. 특히 지난 5년 사이 수입액이 293억 6,600만 달러에서 465억 5,700만 달러로 58.5% 증가하며 수입비중은 6.3%에서 10.5%로 크게 확대되었다. 기계류, 동식물성 유지나 철강은 큰 비중 변화 없이 2000년대부터 꾸준히 10대 수입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은 증가세에 있는 반면, 무기화학품 및 유·무기화합물(HS 28)은 지난 20여 년 사이에 수입비중이 감소해 현재 10대 수

표 2-4.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원유·금 제외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1	71	6,336 (12.0)	71	17,160 (12.2)	71	31,335 (9.0)	85	35,522 (9.1)	85	36,660 (10.4)	85	46,557 (10.5)
2	84	4,216 (8.0)	84	12,877 (9.1)	84	28,090 (8.0)	84	32,406 (8.3)	84	32,660 (9.2)	27	41,006 (9.2)
3	27	3,613 (6.8)	27	11,530 (8.2)	85	25,209 (7.2)	27	32,324 (8.3)	27	28,440 (8.0)	71	38,217 (8.6)
4	85	2,692 (5.1)	85	11,073 (7.9)	27	22,230 (6.4)	71	24,967 (6.4)	71	25,326 (7.1)	84	36,163 (8.1)
이하 [표 2-3]의 순위 5~10위와 동일												
소계	-	23,638 (44.7)	-	72,821 (51.7)	-	155,173 (44.3)	-	189,366 (48.5)	-	181,371 (50.8)	-	229,207 (51.6)
총계a	-	33,611	-	99,907	-	224,124	-	283,758	-	273,032	-	325,860
총계b	-	52,940	-	140,862	-	350,029	-	390,745	-	356,705	-	444,052

※ [2]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등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주: HS 99(기타)는 순위에서 제외함. HS 710812와 HS 270900 제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소계는 상위 10개 품목을 합산, 총계a는 원유와 비가공 금을 제외, 총계b는 이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비중은 총계b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WITS(검색일: 2018. 9. 13, 2018. 10. 4)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인도의 수출 상위 품목은 귀금속, 광물성연료, 기계류, 자동차부품, 유기화학품, 의약품, 철강 등(금액 순)이다.

입품목에서 제외되었다. 그 사이 광·슬랙·회가 10대 수입품목에 새롭게 진입했다. 한편 [표 2-4]에서와 같이 원유와 비가공 금을 제외하고도 광물성연료와 귀금속은 여전히 전기기기, 기계류와 함께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 비중은 15% 내외로 떨어져 순위 변화가 나타난다.

2) 가공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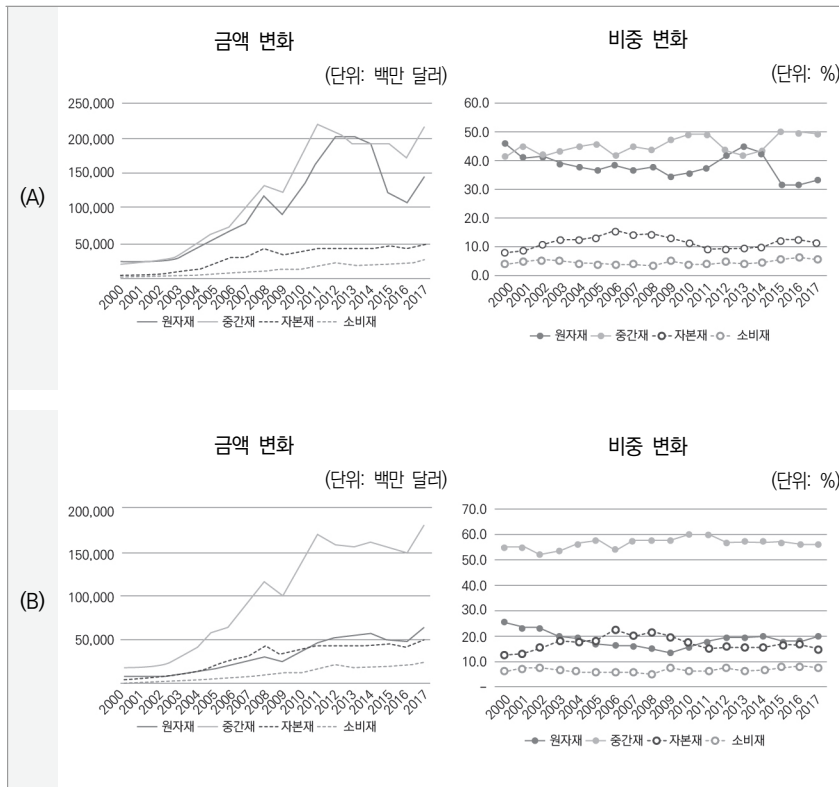
지난 20여 년 사이 가공단계별 수입 변화¹¹⁾를 살펴보면, 인도의 총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중간재이며 그다음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순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그림 2-2 참고). 2000년대 들어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동안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원자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간재의 비중이 감소했다. 최근 3년 사이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의 비중이 10%p 가량 크게 감소하면서 2017년 기준 원자재와 중간재는 각각 33.4%와 49.7%, 자본재는 11.2%, 소비재는 5.7%를 기록했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효과를 일부 제거해서 보면(그림 2-2, (B))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중간재의 비중이 60%, 원자재와 자본재는 20% 전후, 소비재는 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자본재의 비중이 최대 21.9% (2008년)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이 급격히 확대된 시기와 일치한다.

인도 전체 수입의 50%(원유와 비가공 금을 제외할 경우 60%)에 달하는 중간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표 2-5]는 중간재를 HS 6단위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을 정리한 것인데, 2011년 이래 중간재 감소에 일조한 주요 품목들은 주로 국제 원자

11) HS 코드 6단위 기준 모든 품목을 UN의 상품별용도분류(BEC: Broad Economics Categories)를 활용하여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한다. 세부 분류 기준은 부록의 [부표 1] 참고.

재 가격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금, 은,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 제품들과 석유·역청유(원유 제외), 광물성·화학성 비료 등이다. 이들 품목은 중간재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2009~11년에 빠른 속도로 수입이 증가했다가 2011~16년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대두유, 팜유, 조유 등), 자본재 부품(반도체디바이스, 방송용 송수신기 부분품)과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제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2-2. 인도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



주: (A) 인도 전체 수입 기준, (B) 원유(HS 270900, 원자재에 포함) 및 비가공 금(HS 710812, 중간재에 포함) 제외. 분류 기준은 부록의 [부표 1] 참고.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2)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5. 인도의 주요 중간재 수입 품목 변화 추이(HS 코드 6단위)

(단위: %)

증가율이 전환(+ → -)된 품목					지속 증가한 품목				
HS	BEC	비중*	연평균 증가율		HS	BEC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9-11년	2011-16년				2009-11년	2011-16년
710812	22	21.81	47.0	-14.6	150710	121	1.13	32.1	20.1
710239	22	4.23	47.5	-34.3	151190	121	0.94	25.6	10.8
151110	121	2.98	42.1	-8.0	854140	42	0.91	81.3	18.8
710691	22	1.95	186.4	-17.0	151211	121	0.76	42.1	6.4
271019	32	1.86	19.6	-13.9	390110	22	0.66	19.7	3.6
310530	22	1.51	27.5	-14.0	852990	42	0.63	6.8	7.9
310210	22	1.31	29.5	-4.5	390421	22	0.61	34.9	5.9
710813	22	1.15	333.1	-47.7	290250	22	0.50	24.8	3.0
870899	53	0.98	6.1	-2.2	290243	22	0.49	58.9	9.2
271011	32	0.98	44.4	-11.2	290531	22	0.47	32.9	1.1

주: HS 2007년 기준. *중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WITS(검색일: 2018. 11. 8)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수입구조는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생활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면서 산업용 원자재나 연료 중심에서 전기기기를 비롯한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원유, 금 같은 원자재보다는 제조업에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도의 핵심 수입국 중 하나로 시장점유율을 조금씩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만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인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인도시장 내 경쟁심화로 경쟁우위가 떨어지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도의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진출할 만한 품목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2000년 당시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0.8%에 불과했던 대인도 수출 비중은 2017년 2.6%까지 확대되었다. [표 2-6]에서 보듯이 2000년대 초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인도 수출액은 10여 년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3년에는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이 106.1%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성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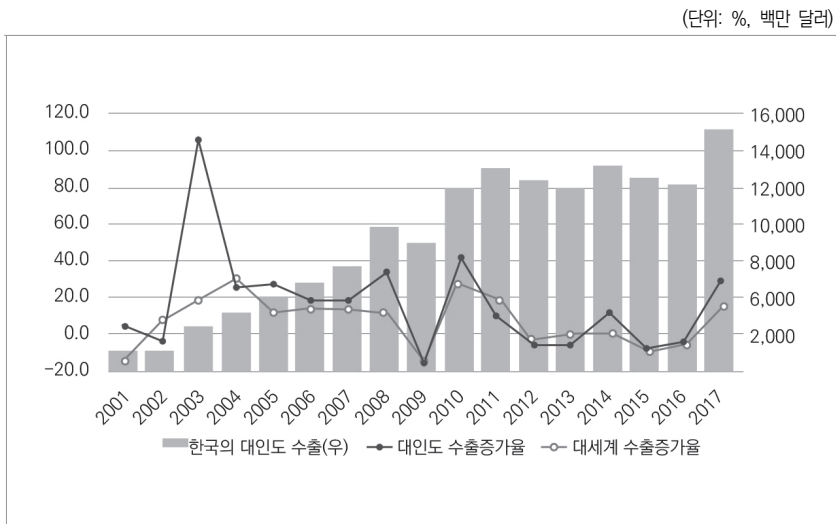
표 2-6.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연도	수출금액(천 달러)	수출증가율(%)	총수출 비중(%)	수출대상국 순위
2000	1,326,166	-2.7	0.8	25
2001	1,407,728	6.2	0.9	24
2002	1,384,137	-1.7	0.9	24
2003	2,852,952	106.1	1.5	13
2004	3,631,978	27.3	1.4	11
2005	4,597,837	26.6	1.6	11
2006	5,532,797	20.3	1.7	10
2007	6,600,039	19.3	1.8	11
2008	8,977,063	36.0	2.1	10
2009	8,013,290	-10.7	2.2	9
2010	11,434,596	42.7	2.5	7
2011	12,654,078	10.7	2.3	9
2012	11,922,037	-5.8	2.2	9
2013	11,375,792	-4.6	2.0	9
2014	12,782,490	12.4	2.2	8
2015	12,029,587	-5.9	2.3	7
2016	11,596,286	-3.6	2.3	8
2017	15,055,543	29.8	2.6	7
2018(10월)	13,103,400	2.5	2.6	7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8. 1);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8. 11. 19)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올렸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10억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¹²⁾ 여기에는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 농업생산 확대, 내수 증가, 정부의 개방적 교역정책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시장 활성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한·인도 CEPA 첫해인 2010년, 전년대비 42.7% 증가했던 대인도 수출은 그 직후 인도 경기침체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이어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110~120억 달러 수준에서 한동안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7년에는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29.8%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인 15.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그림 2-3 참고). 이에 수출이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2-3. 한국의 대인도 및 대세계 수출증가율 비교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13)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p. 90.

다만 2017년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이나 거저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품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2017년 수출이 증가한 품목들은 크게 금세공품(HS 7114), 무선전화기와 송수신기기(HS 8517, 이하 무선통신기기), 철강(HS 72) 등이다. 무선통신기기는 2016년 전년대비 27.1% 급감했고 철강은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던 품목이다. 이 두 품목은 2017년 각각 전년대비 35.4%와 36.1% 증가하며 대인도 수출을 견인했다. 금세공품의 경우 인도정부의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 도입과 한·인도 CEPA 협정 세율에 따른 무관세 적용¹³⁾으로 2017년 7월과 8월, 일시적으로 수출이 급증했다. 한편, 2018년 1~10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액은 약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하며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기기 수출은 관세 인상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년대비 21.0% 감소했으나, 그 외 철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수출이 늘면서 대인도 총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다만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인 6.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이하 메이크인인디아)'의 일환으로 주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13~17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 홍콩, 일본,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이다(표 2-7 참고). 그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과 홍콩에 이어 대인도 수출 비중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2%대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3) HS 7114의 모든 품목은 한·인도 CEPA 양허 E-8 유형에 해당됨에 따라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었다.

표 2-7.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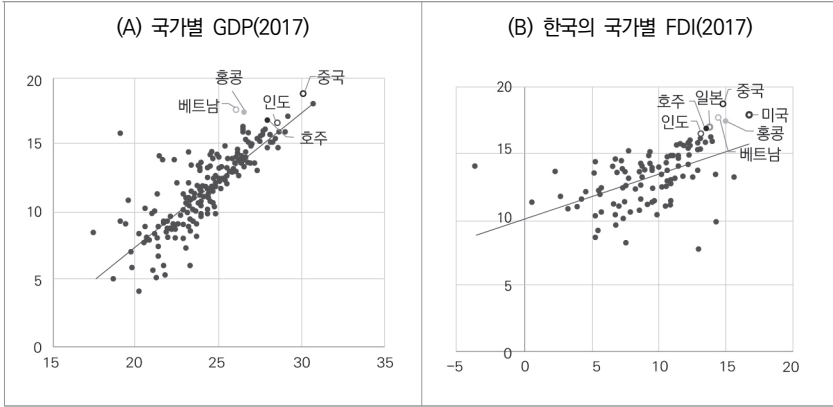
(단위: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1.8	중국	21.8	중국	25.1	중국	26.0	중국	25.1	중국	24.8
2	일본	11.9	미국	14.5	미국	10.7	미국	13.3	미국	13.4	미국	12.0
3	중국	10.7	일본	8.4	일본	6.0	홍콩	5.8	홍콩	6.6	베트남	8.3
4	홍콩	6.2	홍콩	5.5	홍콩	5.4	베트남	5.3	베트남	6.6	홍콩	6.8
5	대만	4.7	대만	3.8	싱가포르	3.3	일본	4.9	일본	4.9	일본	4.7
6	싱가포르	3.3	독일	3.6	대만	3.2	싱가포르	2.8	싱가포르	2.5	호주	3.5
7	영국	3.1	싱가포르	2.6	인도	2.5	인도	2.3	대만	2.5	인도	2.6
8	독일	3.0	영국	1.9	독일	2.3	대만	2.3	인도	2.3	대만	2.6
9	말레이시아	2.0	인도네시아	1.8	베트남	2.1	멕시코	2.1	멕시코	2.0	싱가포르	2.0
10	인도네시아	2.0	말레이시아	1.6	인도네시아	1.9	호주	2.1	말레이시아	1.6	멕시코	1.9
이하 (25)	인도	0.8	(11) 인도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8. 9. 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는 우리나라가 대인도 수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 GDP와 우리나라의 국가별 FDI를 기준으로 각각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이 각각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인도 수출은 대체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7년 기준 GDP 3,400억 달러의 홍콩이나 2,200억 달러의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각각 391억 달러와 478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GDP 2조 6,100억 달러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이들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는 것이다(그림 2-4, (A) 참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액은 GDP 5,800억 달러에 불과한 대만(149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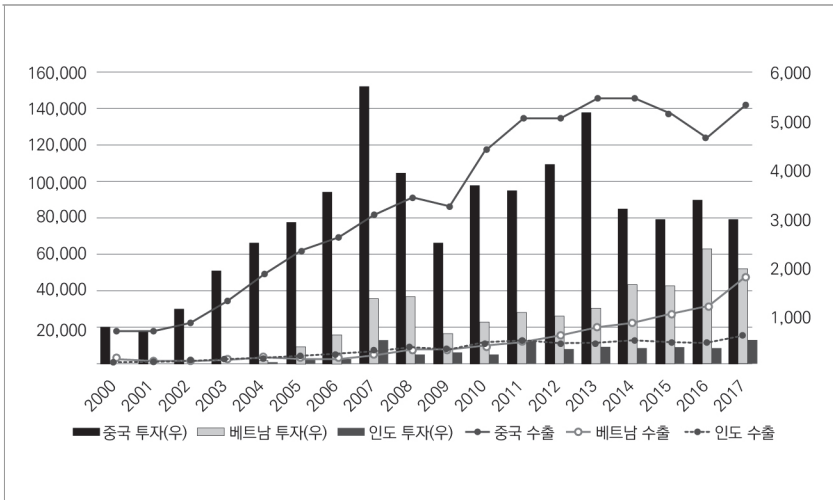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의 국가별 수출 규모 비교



주: 세로축은 해당연도 한국의 국가별 수출. 모든 통계치는 로그함수를 취함.
 자료: 세계은행 WDI; WITS;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1.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5. 한국의 대인도 수출 및 투자 추이: 중국·베트남과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TS;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1.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과 FDI를 상호 비교해보면, 상위 10개 수출국에 투자 또한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4, (B) 참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림 2-5]에서와 같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투자와 수출이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동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기점으로 투자와 함께 가파르게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은 2000년대 중반 투자가 크게 확대된 직후 201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수출과 투자가 나란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인도 수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인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형별 대인도 수출구조

1) 품목별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전기기기(HS 85), 철강(HS 72), 기계류(HS 84), 귀금속(HS 71), 플라스틱(HS 39), 유기화학품(HS 29),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부속품(HS 87, 이하 자동차 부품), 광물성연료(HS 27), 정밀기기(HS 90), 아연 및 관련제품(HS 79, 이하 아연) 순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상위 10개 품목과 비교해보면, 대인도 수출에서는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고무, 귀금속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8 참고). 특히 철강은 대세계 수출비중이 3.9%인 반면 대인도 수출비중은 11.0%에 달하며, 플라스틱은 각각 5.5%와 9.3%, 고무는 0.3%와 4.3%로 인도시장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출 편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선박 및 수송 구조물(HS 89, 이하 선박), 광물성연료, 정밀기기, 철강 제품(HS 73)에서는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선박의 대세계 수출비중은 7.1%에 달하는 반면 대인도 수출비중은 0.1%에 불과하며, 정밀기기는 대세계 수출비중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전기기기는 세계와 인도시장 모두에서 수출 품목 1위에 자리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출 집중도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비중은 28.4%를 기록한 반면,¹⁴⁾ 인도시장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으며, 전기기기의 비중은 20.5%에 그치고 있다.

표 2-8. 한국의 대세계 수출 품목과 대인도 수출 품목 비교(2017년)

(단위: %)

순위	주요 대세계 수출 품목		주요 대인도 수출 품목	
	(HS 코드) 품목명	수출비중	(HS 코드) 품목명	수출비중
1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28.4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20.5
2	(84) 기계류	12.1	(84) 기계류	13.4
3	(87) 자동차부품	10.8	(72) 철강	11.0
4	(89) 선박 및 수송구조물	7.1	(87) 자동차부품	9.9
5	(27) 광물성연료	6.3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9.3
6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5.5	(29) 유기화학품	6.2
7	(90) 정밀기기	5.1	(27) 광물성연료	5.0
8	(29) 유기화학품	4.0	(40) 고무 및 관련제품	4.3
9	(72) 철강	3.9	(71) 귀금속	2.5
10	(73) 철강 제품	2.3	(90) 정밀기기	2.5
소계	-	85.5	-	84.7
이하	(71) 귀금속	0.7	(73) 철강 제품	1.6
	(40) 고무 및 관련제품	0.3	(89) 선박 및 수송구조물	0.1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자료: WITS(검색일: 2018. 11. 8)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7.1%에 달했다. 한경 비즈니스(2018. 10.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8).

2000년에서 2017년까지 대인도 전체 수출이 연평균 15.4% 증가하는 동안 주요 품목들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전기기기가 18.1% 증가했으며 철강은 20.1%, 플라스틱이 17.5%, 정밀기기가 16.9% 증가했다. 귀금속과 아연은 각

표 2-9.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금액(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10월)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	HS	금액 (비중)
1	84	241 (18.2)	85	1,466 (31.9)	84	1,918 (16.8)	85	2,645 (22.0)	85	2,478 (21.4)	85	3,090 (20.5)	18.1	85	2,166 (16.5)
2	85	182 (13.7)	84	662 (14.4)	85	1,742 (15.2)	72	1,683 (14.0)	84	1,547 (13.3)	72	2,023 (13.4)	20.1	72	2,120 (16.2)
3	87	135 (10.2)	87	452 (9.8)	72	1,523 (13.3)	84	1,472 (12.2)	72	1,487 (12.8)	84	1,656 (11.0)	12.0	84	2,028 (15.5)
4	27	134 (10.1)	72	433 (9.4)	87	1,344 (11.8)	39	1,185 (9.9)	39	1,158 (10.0)	71	1,493 (9.9)	41.5	39	1,474 (11.2)
5	29	91 (6.9)	39	282 (6.1)	39	887 (7.8)	87	1,125 (9.4)	87	752 (6.5)	39	1,396 (9.3)	17.5	29	934 (7.1)
6	39	90 (6.8)	27	225 (4.9)	29	718 (6.3)	29	581 (4.8)	29	638 (5.5)	29	933 (6.2)	14.7	27	657 (5.2)
7	72	90 (6.7)	89	176 (3.8)	89	716 (6.3)	27	512 (4.3)	27	473 (4.1)	87	750 (5.0)	10.6	87	651 (5.0)
8	54	62 (4.7)	29	122 (2.7)	27	608 (5.3)	71	285 (2.4)	79	353 (3.0)	27	650 (4.3)	9.7	90	429 (3.3)
9	59	34 (2.6)	73	97 (2.1)	40	306 (2.7)	40	269 (2.2)	90	312 (2.7)	90	382 (2.5)	16.9	79	353 (2.7)
10	48	28 (2.1)	48	71 (1.5)	73	294 (2.6)	73	248 (2.1)	71	308 (2.7)	79	375 (2.5)	31.7	40	285 (2.2)
소계	-	1,087 (81.9)	-	3,988 (86.7)	-	10,054 (87.9)	-	10,005 (83.2)	-	9,506 (82.0)	-	12,748 (84.7)		-	11,128 (84.9)
총계	-	1,326	-	4,598	-	11,435	-	12,030	-	11,596	-	15,056	15.4	-	13,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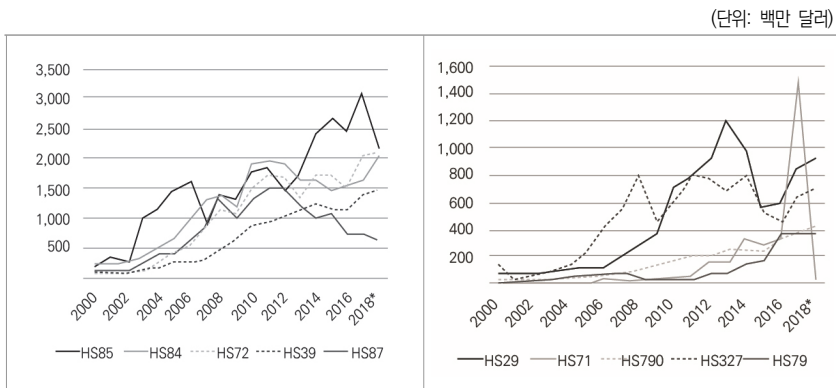
※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9]유기화학품 [39]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40]고무 및 관련제품 [48]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54]인조장섬유 [59]방직용 섬유직물 및 제품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2]철강 [73]철강 관련제품 [79]아연 및 관련제품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7]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과 부속품 [89]선박 및 수상구조물 [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기기, 측정/검사/정밀/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주: 2018년 1~10월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DB 활용.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8);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8. 11. 19)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각 41.5%와 3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2010년대 초반까지 연간 1억 달러에도 못 미치던 대인도 수출액이 2010년대 후반 귀금속은 14억 달러, 아연이 최고 3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급격하게 증가한 데 비롯된다. 반면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광물성연료는 각각 전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밀도는 12.0%, 10.6%, 9.7%를 기록하는 데 그치며 수출비중과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표 2-9, 그림 2-6 참고).

그림 2-6. 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금액 변화 추이



주: *1~10월,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72]철강, [39]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87]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과 부속품, [29]유기화학품,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기기, 측정/검사/정밀/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79]아연 및 관련제품.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8);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8. 11. 19)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수출품목 순위 1~2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전기기기의 수출비중은 2000년 13.7%에서 2017년 20.5%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 5년 사이에 수출비중이 5.6%p 상승하면서 2017년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몇 년 사이 인도 내 차세대 통신망 기지국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기지국(HS 851761)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다만 기지국 설치가 최근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관련 품목 수요가 감소한 데 이

어,¹⁵⁾ 2018년 2월에는 전기기기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자체조달을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¹⁶⁾하면서 전기기기 수출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앞서 인도 전기기기 시장에서 중국이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인도 전기기기 수출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57.3%와 37.4%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산 전기기기, 특히 스마트폰의 빠른 시장점유율 확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⁷⁾

전기기기와 더불어 대인도 수출의 주력 품목인 철강은 금액과 비중 모두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대인도 수출의 6.7%에 불과했던 철강은 지난 5년간 기계류와 수출 순위 2·3위를 다투며 2017년 수출액 20억 달러, 수출비중 13.4%를 기록했다. 반면 철강 못지않게 대인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계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기계류의 수출비중은 18.2%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11.0%에 그쳤다. 다만 2018년 하반기 들어 권양·취급·적하용 기계류(HS 8428), 차량용 가솔린엔진(HS 8407)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18년 10월 기준 기계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0.0%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자동차부품¹⁸⁾ 수출은 1990년대 말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 1억 달러에 그쳤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08년 10억 달러, 2011년에는 15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15) 매일경제(2018.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1).

16) 2018/19년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 7.5~15%였던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본관세가 10~20%로 상향 조정되었다. Bloomberg(2018. 2.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9). 한·인도 CEPA 미양허 품목인 접화용·시동용 전기기기 및 발전기·개폐기(HS 8511)도 포함된다(인도 재무부, 2018 참고).

17) 한국무역신문(2018. 2.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9).

18) 자동차부품은 HS 87(차량 및 부분품)뿐만 아니라 HS 84(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부분품)에 속하는 엔진과 부분품(HS 840733, 840734, 840820, 840991 등), HS 94(가구·침구·쿠션, 비분류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의 차량용 의자 및 부분품(HS 940120, 940190) 등을 포함하나 여기서는 HS 87에 한정한다.

증가했다. 그러나 그 직후 인도 경제성장 둔화와 자동차 시장 불황으로 수출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해 메이크인인디아 정책에 따라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정부의 의지가 강화되면서 인도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체 조달 비율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자동차부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¹⁹⁾ 이에 더해 2018년 2월에는 인도정부가 전기기기와 더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취함에 따라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기존의 7.5~10%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다.²⁰⁾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수송용 자동차(HS 8702), 승용자동차(HS 8703), 화물자동차(HS 8704),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부품품과 부속품(HS 8708)으로, 대부분 한·인도 CEP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²¹⁾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7억 5,000만 달러로 2011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²²⁾

플라스틱은 지난 5년간 대인도 수출에서 1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자리해왔고, 유기화학품 수출은 2013년 11억 9,7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유가하락과 함께 2015년에 절반 이하로 급락한 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광물성연료인데, 이 중 94%가 윤활유기유(HS 2710195020)이다. 2010년대 들어 새로운 대인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은 정밀기기는 액정 디바이스에서 의료 및 과학 기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10대 수출품목에 들어선 아연 수출은 아연 괴(HS 7901)가 99%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액이 2015년 처음으로 1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한 뒤

19) KOTRA 해외시장 뉴스(2017. 12. 7): 2018년 2월, 인도정부가 전기기기와 더불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취함에 따라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기존의 7.5~10%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다. Bloomberg(2018. 2.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9).

20) Bloomberg(2018. 2.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9).

21) 인도 HS 코드 8단위 기준 SEN(이행 9년차 기준세율의 50% 적용) 7개 품목, RED(이행 7년차 기준세율의 1~5% 적용) 1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이 미양허 대상이다.

22) 2018년 10월 기준 수출금액은 6억 5,000만 달러이다(한국무역협회 DB, 검색일: 2018. 11. 16).

가파르게 증가해 2016~17년 연간 3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대인도 수출액이 150억 달러를 돌파한 2017년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연간 3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던 귀금속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11억 8,5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수출비중이 기존의 2%대에서 9.9%로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도 GST 도입으로 수입 금세공품(HS 7114)에 대해 부과되던 12.5%의 상계관세가 폐지되고 한·인도 CEPA 협정세율에 따라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대인도 금 수출이 7~8월 두 달 사이 14억 달러 가까이 폭증한 데 기인한다.²³⁾ 그러나 그 직후인 8월 말 인도정부가 한국산 금 관련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수출액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일시적인 증가에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2) 가공단계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분류해보면 중간재의 비중이 65.8%로 전체의 3분의 2를, 그다음으로 소비재와 자본재가 각각 21.6%와 11.9%를 차지하며, 원자재의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표 2-10]에서와 같이 각 가공단계별로 주요 수출국을 보면, 인도는 2017년 기준 원자재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 수출국이며, 중간재에서는 여섯 번째, 소비재와 자본재에서는 각각 10번째와 12번째 수출국이다. 보다 세부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자재 부문에서는 산업용 원자재(BEC 21)에, 중간재 부문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BEC 22)와 운송장비 부품(BEC 53)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자본재는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BEC 41)가, 최종재 중에서는 내구성 소비재(BEC 61)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23) 인도 금 업체들이 관세 효과를 노리고 아랍에미리트산 금을 한국에서 가공 후 인도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2017. 10.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7).

표 2-10. 한국의 가공단계별 주요 수출국(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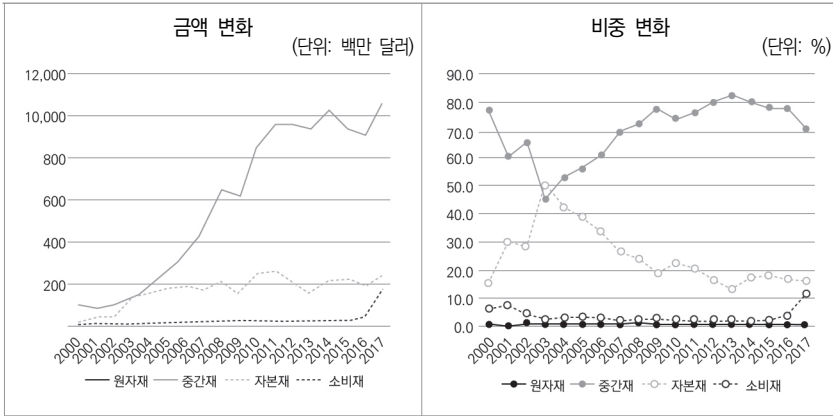
(단위: %)

순위	원자재(0.4*)		중간재(65.8*)		자본재(11.9*)		소비재(21.6*)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25.2	중국	29.7	미국	29.0	중국	19.6
2	일본	22.7	베트남	9.7	중국	7.8	미국	12.5
3	인도	6.1	홍콩	8.9	일본	5.4	호주	8.8
4	태국	5.3	미국	8.8	호주	4.1	베트남	7.4
5	베트남	4.8	일본	5.2	캐나다	3.6	말레이시아	5.5
6	미국	3.0	인도	2.8	홍콩	3.1	영국	3.5
7	독일	2.6	싱가포르	2.3	사우디	2.9	홍콩	2.6
8	싱가포르	2.6	필리핀	2.2	독일	2.9	일본	2.5
9	필리핀	2.5	멕시코	2.0	베트남	2.9	멕시코	2.1
10	홍콩	1.9	말레이시아	1.7	러시아	2.7	인도	2.0
이하	-	-	-	-	(12) 인도	2.5	-	-

주: * 각 유형이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7]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이 가공단계별로 변화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재 비중은 2003년 급격히 확대되면서 2013년 82.6%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전체 대인도 수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인 65.8%(2017년)를 한참 웃도는 수치이다.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대인도 투자가 크게 늘었던 2000년대 초반 51.0%(2003년)의 정점을 기록한 이래 지속 감소하여 2010년대 들어서는 1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원자재와 소비재는 큰 변화폭 없이 5%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 대인도 소비재 수출이 2016년 4억 2,500만 달러에서 2017년 17억 3,800만 달러로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11.5%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세공품(HS 7114, BEC 61)의 일시적인 대인도 수출 급증에 기인한다. 2017년 기준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가 전체 대인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례로 0.9%, 70.7%, 16.5%, 11.5%이다.

그림 2-7. 한국의 대인도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주: 분류 기준은 부록의 [부표 1] 참고.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대부분 인도의 수입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기기기는 대인도 수출 품목들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연간 수출 증가세도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인도의 수입제한조치나 자체조달 확대, 중국의 인도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다수의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 수출 둔화 또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심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전기기기에 이어 대인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은 이미 지난 10여 년 사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물성연료와 귀금속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수입구조를 감안할 때,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

국 다음으로 인도의 핵심 수입국이다. 게다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본격화와 인도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비록 더디지만 원자재 중심의 수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나라와 인도 간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과 대부분 일치한다. [표 2-11]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품목을 가장 실적이 높은 순으로 각각 나열하여 비교한 것인데 이를 살펴보면 특히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등 인도의 수요가 높은 품목에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정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표 2-11. 인도의 상위 수입 품목과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비교(2010~17년 누적)

(단위: %)

순위	인도의 수입 품목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HS 코드) 품목명	수입비중	(HS 코드) 품목명	수출비중
1	(27) 광물성연료	12.1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17.6
2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11.9	(84) 기계류	13.9
3	(84) 기계류	11.6	(72) 철강	13.4
4	(71) 귀금속	11.4	(87) 자동차부품	9.3
5	(29) 유기화학품	5.5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9.1
6	(72) 철강	3.9	(29) 유기화학품	6.9
7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3.6	(27) 광물성연료	5.4
8	(15) 동식물성 유지	3.5	(40) 고무 및 관련제품	2.9
9	(90) 정밀기기	2.4	(71) 귀금속	2.8
10	(31) 비료	2.2	(90) 정밀기기	2.0
이하	(87) 자동차부품	1.7	(31) 비료	0.1
	(40) 고무 및 관련제품	1.1	(15) 동식물성 유지	0.0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HS 710812와 HS 270900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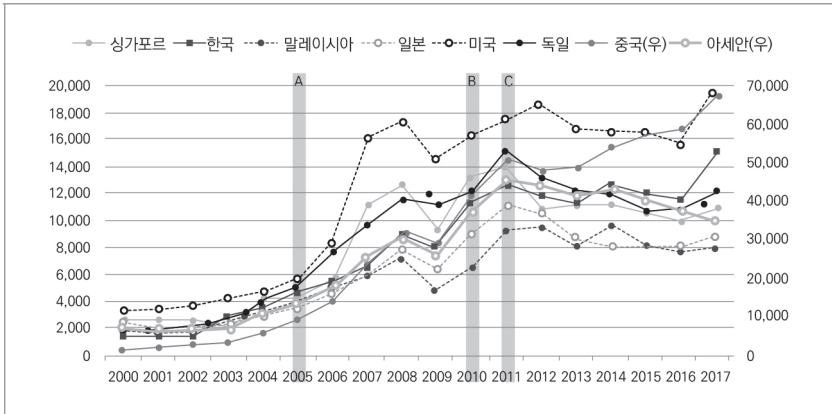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23)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인도의 수입 환경 변화

먼저 짚어보아야 할 점은, 대인도 수출정체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2-8]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아세안, 우리나라와 이를 협상 또는 검토 중인 미국, 독일(EU),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CEPA 효과(2010년 1월 발효)를 보지 못한 채 대인도 수출 정체기를 맞았다. 이러한 수출정체 현상은 이보다 앞서 인도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2005년 11월 발효)나 2011년 FTA(CEPA 또는 CECA)가 발효된 말레이시아(2011년 7월), 일본 및 아세안(2011년 8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7년 대인도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대인도 수출은 우리나라와 경우와 비슷하게 80~90억 달러 안팎에서 정체기를 맞았다. 아세안과 일본은 FTA가 발효된 당해년도에 대인도 수출이 최고점을 기록한 뒤 수출이 도리어

그림 2-8. 주요 국가들의 대인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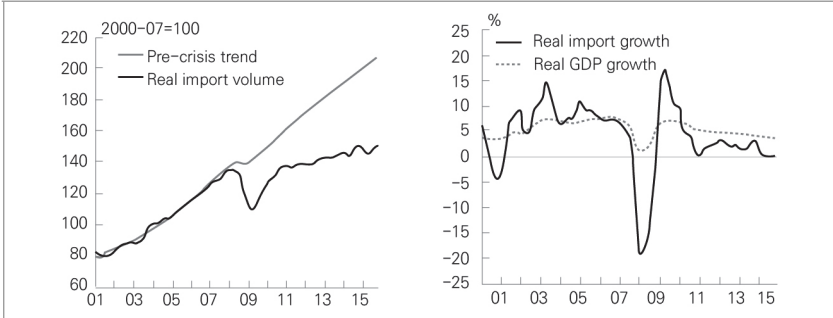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A) 2005년 11월 인도·싱가포르 FTA 발효 (B) 2010년 1월 한·인도 CEPA 발효 (C) 2011년 7월 인도·말레이시아 CECA, 8월 인도·일본 CEPA 및 인도·아세안 FTA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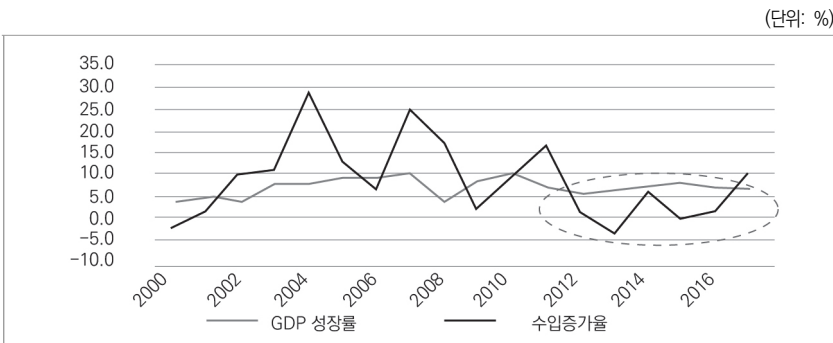
자료: WITS(검색일: 2018. 9. 14)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9. 신흥국 무역위축 현상



자료: J. Nakajima *et al.*(2016), p. 16.

그림 2-10. 인도 무역위축 현상



주: 실질 기준.

자료: IMF WEO(검색일: 2018. 11. 12).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인도의 수입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두 국가들의 대인도 수출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인도의 수입은 정체기에 들어섰고(원유 및 비가공 금 제외 시) 그 속에서 오직 중국만이 대인도 수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나가며 인도의 수입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인도의 수입정체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최근 신흥개발도 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위축(Slow Trade)' 현상이 인도에서도

목격된다는 점에 주목하겠다. '무역위축'은 최근 국제무역 관련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을 지칭한다. 2000년대 초중반 중국의 WTO 가입과 냉전 종료로 전 세계 무역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증가율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두 변수가 반전되었다(그림 2-9 참고).²⁴⁾ 인도에서도 실질 수입증가율이 2011년 16.4%에서 이듬해 1.4%로 크게 하락한 뒤 2016년까지 실질 GDP 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10 참고). 수입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한 수입의 소득탄력성²⁵⁾은 2011년 2.5에서 이듬해 0.3으로 떨어져 2013년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약화되는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수요구조의 변화나 자체생산(in-house production)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및 자유무역기조 약화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다.²⁶⁾ 인도의 수입 정체에도 이들 중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모디 정부의 메이크인인디아 정책으로 현지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의 비관세 무역제재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⁷⁾

나. 대인도 수출경쟁 심화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속에서 인도의 수입정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24) Nakajima *et al.*(2016).

25)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무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요인 중 하나다(최낙균 외 2017, p.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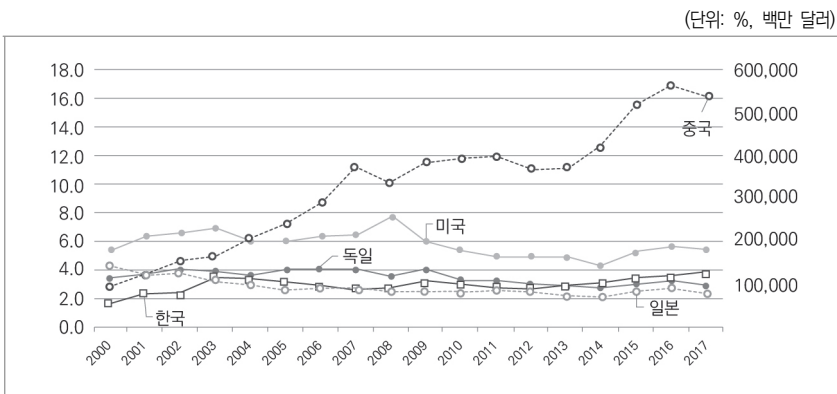
26) Nakajima *et al.*(2016).

27) 2010~18년 최근까지 연평균 자유무역조치(liberalizing)는 22건, 보호무역조치(harmful)는 59건에 달하며 최근 3년 사이 보호무역조치는 46건에서 71건까지 증가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HS 4단위 기준 무역제재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품목은 합금강 평편압연제품(HS 7225, 15건), 건조한 채두류(HS 0713, 13건), 사탕수수당(HS 1701, 12건), 반도체디바이스(HS 8541, 11건), 무선통신기기(HS 8517, 11건) 순이다(Global Trade Alert, 검색일: 2018. 11. 19).

국가들의 대인도 수출정체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중국은 인도의 수입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진출한 대다수의 산업군에서 목격되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을 압축해본다면, 제조업 품목 전반에 걸쳐 인도 수입시장을 선점해 온 미국, 독일, 일본과 높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최근 빠른 속도로 인도 수입시장을 점유해나가고 있는 중국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림 2-11]에서 보듯이 미국, 독일, 일본의 인도시장점유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서서히 감소했고 우리나라는 2~3% 선에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6%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제조업, 특히 전기기기 등을 앞세워 인도 시장점유율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을 2.8%에서 7.2%로 확대하며 1위 수입대상국으로 자리한 이후 그 비중이 최대 17.0%(2016년)까지 확대되는 사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00~05년 1.5%에서 3.1%로

그림 2-11. 주요 국가들의 인도 수입시장점유율



주: 막대그래프는 인도 총수입(단위는 그래프 우측 기준)을 표시.
 자료: WITS(검색일: 2018. 9. 13)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폭 확대된 이래 큰 비중 변화 없이 3%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1) 품목별

대인도 품목별 수출실적을 다른 수출경쟁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0~17년 누적기준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등의 품목에서 인도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으로 손꼽힌다(표 2-12 참고). 특히 철강

표 2-12. 인도 주요 수입품목별 상위 수입국(2010~17년 누적)

(단위: %)

순위	HS 27	HS 85	HS 84	HS 71	HS 29	HS 72	HS 39	HS 15	HS 90	HS 31
1	카타르 (20.2)	중국 (50.1)	중국 (31.4)	UAE (23.6)	중국 (33.7)	중국 (16.6)	중국 (14.4)	인도네시아 (45.3)	미국 (20.1)	중국 (35.3)
2	호주 (17.2)	한국 (6.6)	독일 (11.6)	벨기에 (22.1)	사우디 (8.2)	한국 (14.9)	한국 (11.2)	말레이시아 (19.1)	중국 (16.6)	미국 (8.3)
3	인도네시아 (16.0)	미국 (4.8)	미국 (9.5)	홍콩 (17.9)	싱가포르 (7.7)	일본 (11.4)	미국 (8.6)	아르헨티나 (15.1)	독일 (14.2)	러시아 (8.1)
4	UAE (6.8)	독일 (4.5)	일본 (8.5)	러시아 (4.5)	한국 (5.6)	미국 (4.9)	사우디 (7.9)	우크라이나 (12.0)	일본 (8.2)	이란 (7.2)
5	남아공 (5.9)	말레이시아 (3.6)	한국 (5.2)	영국 (4.3)	미국 (5.5)	영국 (4.1)	태국 (6.3)	브라질 (3.1)	싱가포르 (4.8)	사우디 (6.4)
6	사우디 (5.2)	일본 (3.5)	이탈리아 (5.0)	미국 (3.7)	독일 (4.2)	UAE (4.0)	독일 (6.2)	UAE (1.4)	한국 (4.4)	오만 (5.8)
7	미국 (4.7)	싱가포르 (3.3)	태국 (3.6)	스위스 (3.6)	쿠웨이트 (3.8)	독일 (3.6)	싱가포르 (5.9)	태국 (0.6)	영국 (3.8)	요르단 (4.4)
8	싱가포르 (3.3)	베트남 (2.7)	싱가포르 (3.3)	이스라엘 (3.5)	이란 (3.1)	러시아 (3.4)	일본 (4.7)	파라과이 (0.5)	스위스 (2.9)	캐나다 (4.3)
9	쿠웨이트 (2.6)	홍콩 (2.3)	영국 (2.2)	중국 (2.0)	태국 (2.9)	남아공 (3.4)	UAE (4.4)	미국 (0.5)	프랑스 (2.7)	이스라엘 (3.6)
10	한국 (2.1)	핀란드 (2.0)	말레이시아 (2.1)	보츠와나 (1.7)	말레이시아 (2.6)	우크라이나 (2.1)	카타르 (2.9)	스페인 (0.3)	아일랜드 (2.7)	우크라이나 (2.2)
이하	-	-	-	한국 (1.2)	-	-	-	한국 (0.0)	-	한국 (0.2)

※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71]진주, (반)귀석, 귀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9]유기화학품 [72]철강 [39]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15]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납 [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기기, 측정/검사/정밀/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31]비료

주: HS 710812와 HS 270900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8) 바탕으로 저자 작성.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4.9%로 해당품목 1위를 차지한 중국 (16.6%)과 버금가는 수준이며, 플라스틱 품목에서는 11.2%로 이 또한 중국 (1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미국 (4.8%)과 독일(4.5%) 등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2위(6.6%)를 차지했다. 그 외 기계류와 정밀기기 품목에서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각각 5위와 6위를, 유기화학품 부문에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그림 2-12. 품목별 주요 국가들의 인도 수입시장점유율(201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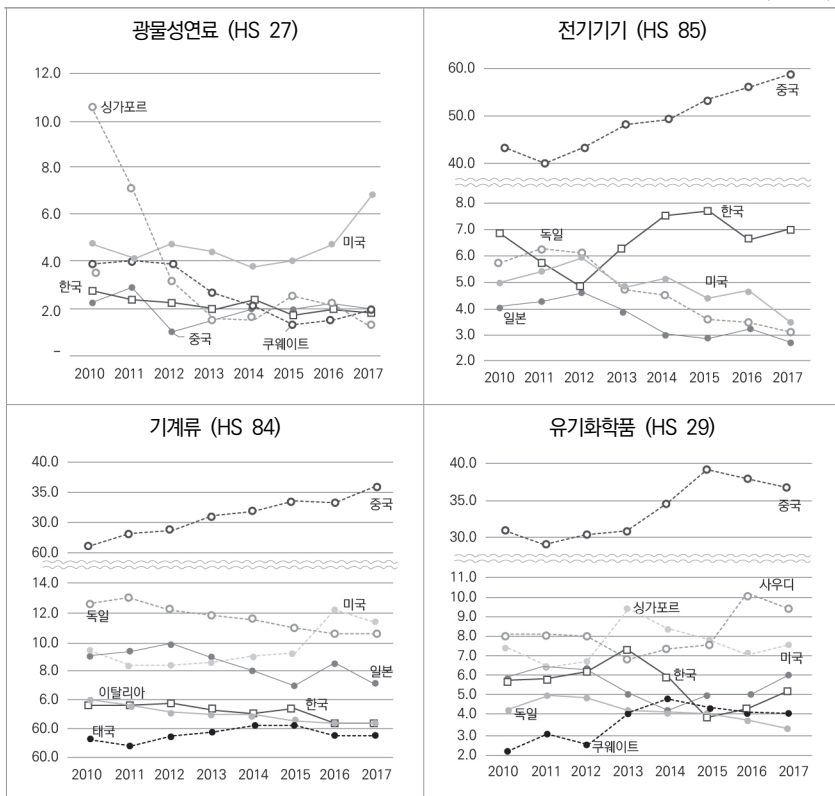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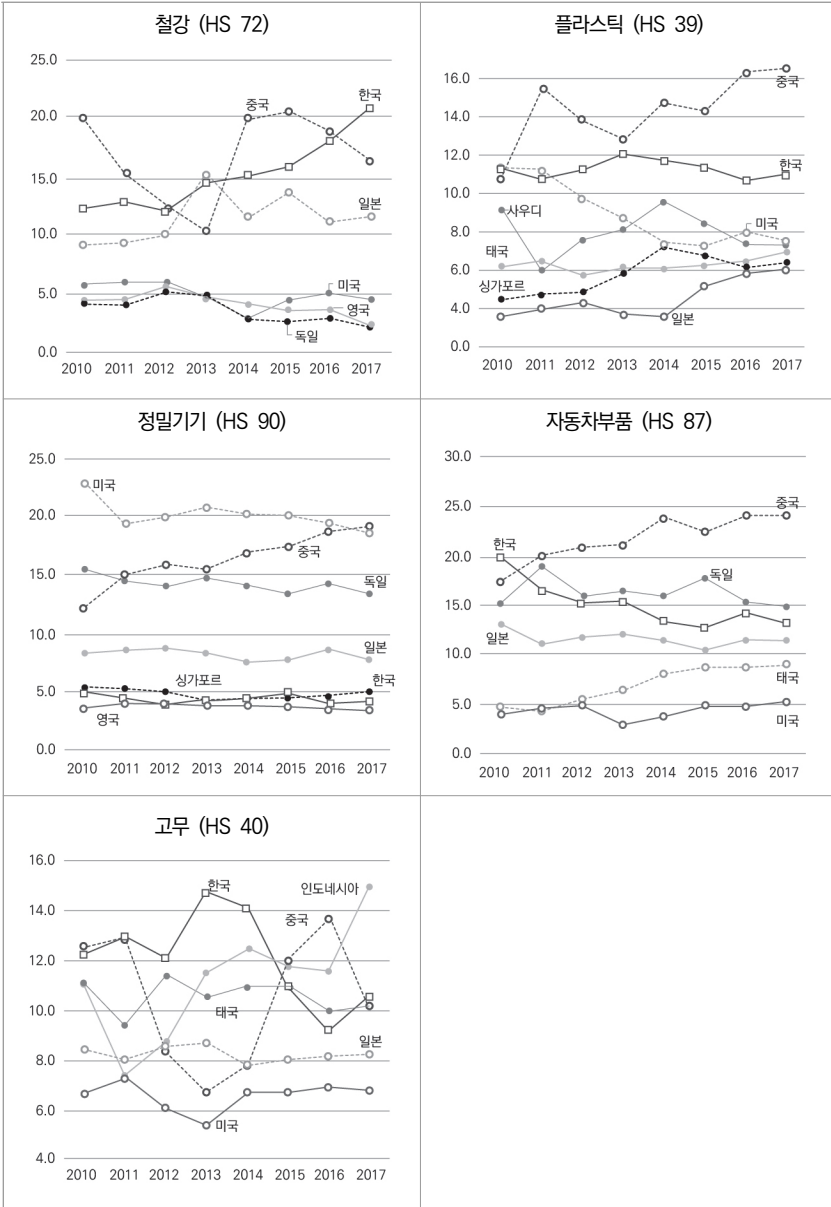


그림 2-12. 계속



주: HS 270900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광물성연료]에서 점유율이 높은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UAE, 남아공, 사우디는 해석의 편의상 생략함.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8)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그림 2-12]에서와 같이 2010~17년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들의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년 사이 기계류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6.7%에서 36.0%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이, 독일과 일본은 각각 2.2%p와 1.9%p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5.7%에서 4.4%로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전기기기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43.6%에서 58.6%로 15.0%p 상승하는 동안 미국, 독일, 일본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010년 6.8%에서 2012년 4.9%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의 격차는 36.8%p에서 51.6%p로 크게 확대됐다.

이 같은 중국의 시장점유율 폭증 현상은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에 달하는 철강이나 플라스틱 등의 품목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철강의 경우 비록 2013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4.5%, 20.8%를 기록하며 중국을 앞질렀으나, 2014~16년에는 중국이 이를 최대 20.6%까지 끌어올리면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플라스틱 품목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5.7%p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0.3%p 하락하면서 양국 격차가 5년 사이 5.6%p까지 확대되었다. 유기화학품의 경우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미국, 쿠웨이트 사이의 경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최고 7.4%까지 증가했다가 하향세로 전환되며 2017년 5.3%에 그쳤다. 정밀기기 품목에서는 중국이 시장점유율을 6.9%p 확대하는 동안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한편 2010~17년 누적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4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에서도 중국의 약진과 우리나라의 퇴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19.9%를 기록하면서 일본, 독일과 중국을 앞섰다. 그러나 그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 중국의 점유율이 24.0%까지 확대되는 사이

13.2%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일본은 물론 약진하고 있는 태국(8년 사이 시장점유율 4.3%p 상승)에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고무 수입시장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태국의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2) 가공단계별

[표 2-13]과 [그림 2-13]은 인도의 주요 수입국별로 각 가공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각 단계별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원자재의 경우 산유국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이 전체의 30%를 상회했으며, 호주가 6.8%, 인도네시아는 5.0%를 차지했다. 인도 총수입에서 49.7%를 차지하는 중간재 부문에서는 중국, 스위스, 미국, 우리나라의 비중이 40%를 상회했다. 자본재 수입은 중국이 단독으로 38.6%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8.2%, 미국이 6.2%,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5.9%와 5.0%를 기록했다.

표 2-13. 인도의 가공단계별 주요 수입대상국(2017년)

(단위: %)

순위	원자재(33.4*)		중간재(49.7*)		자본재(11.2*)		소비재(5.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이라크	10.4	중국	21.2	중국	38.6	중국	21.3
2	사우디	10.2	스위스	9.0	독일	8.2	미국	10.1
3	UAE	8.7	미국	6.7	미국	6.2	한국	6.9
4	호주	6.8	한국	4.9	한국	5.9	호주	6.5
5	이란	6.3	UAE	4.5	일본	5.0	캐나다	4.1
6	나이지리아	5.0	인도네시아	3.8	프랑스	4.7	말레이시아	3.2
7	인도네시아	5.0	독일	3.4	싱가포르	4.3	독일	2.9
8	베네수엘라	4.0	일본	3.3	태국	2.6	영국	2.5
9	러시아	3.6	카타르	3.0	이탈리아	2.5	태국	2.4
10	홍콩	3.5	사우디	2.8	말레이시아	1.7	베트남	2.4
이하	한국	0.4	-	-	-	-	-	-

주: *각 유형이 인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2)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입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그다음으로 우리나라와 호주가 각각 6.9%, 6.5%를 차지했다.

그림 2-13. 인도 가공단계별 수입에서 주요 수입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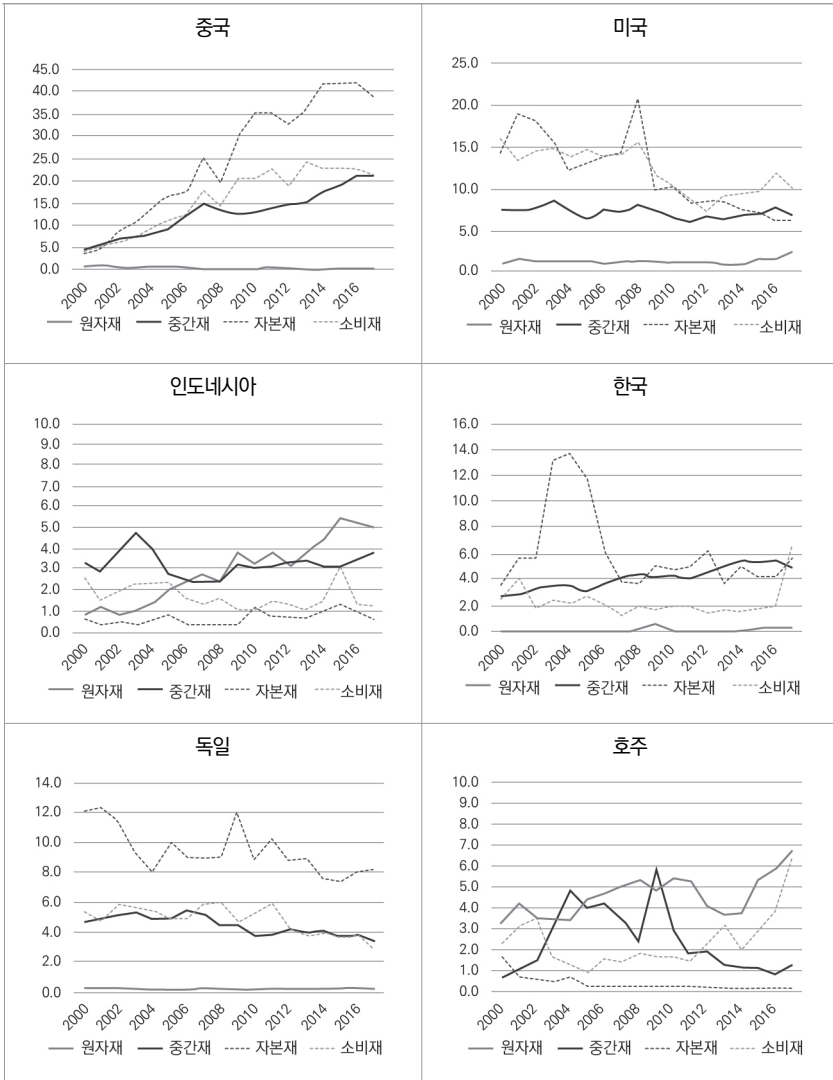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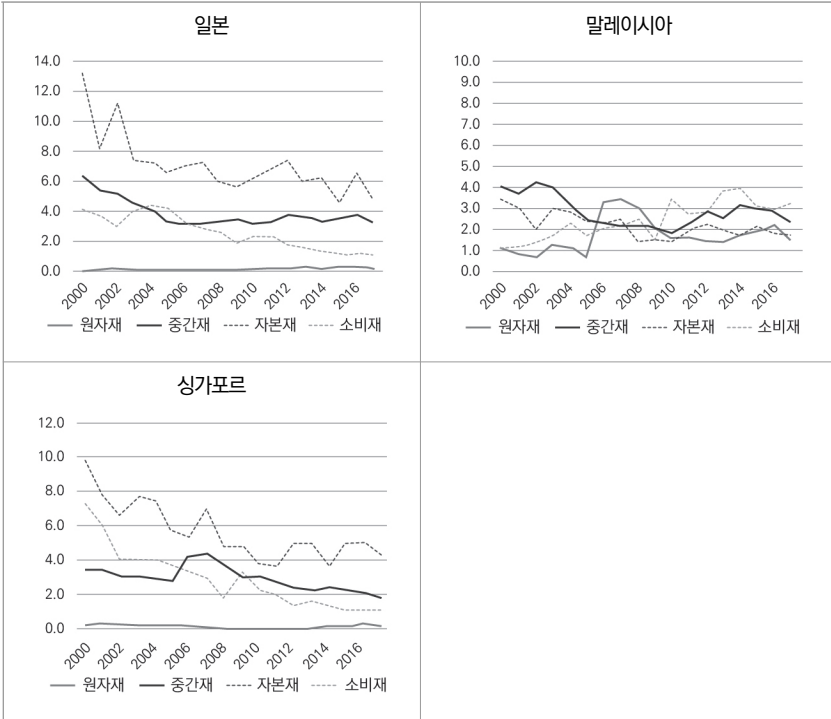


그림 2-13. 계속



주: 분류 기준은 부록의 [부표 1] 참고. 인도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 산유국은 제외함.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12)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각 가공단계별 추세를 살펴보면 원자재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중간재 부문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소비재 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의 비중 확대가 돋보인다. 중국은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본재 부문에서 2000년 3.7%에서 2016년 41.8%로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반면 미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기존의 인도 수입 파트너들의 자본재 및 소비재 비중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05년 자본재 부문 점유율이 최대 13.8%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당시 인도가 내수시장 및 제3국 수출기지로 부상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인도 공장을 증축하는 등 대인도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²⁸⁾

금세공품(HS 7114)의 일시적인 대인도 수출 급증 변수를 제거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소비재 수출비중은 2%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원자재 수출비중은 0%에 가깝다. 반면 인도의 중간재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7%에서 2016년 5.5%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이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전기기기, 철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등의 품목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이는 중국(2017년 21.2%)의 4분의 1 수준이며, 연평균증가율은 18.7%로 중국의 25.2%에 한참 뒤처지는 수준이다.

다. 인도의 수요 변화

한편으로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우리나라가 최근 인도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도 있다. [표 2-14]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수입 품목들을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다. 역시 귀금속, 전기기기, 기계류, 동식물성 유지, 광물성연료 등, HS 코드 2단위 기준 수입 상위 품목들에서 주로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2-14 왼쪽). 진주(HS 7101) 및 귀석·반귀석(HS 7103), 트랜지스터와 반도체다이오드(HS 8541), 터보제트 및 프로펠러(HS 8411), 식물성유지(HS 1512, 1507), 석유가스(HS 2711) 및 석탄(HS 2701) 등은 인도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증가율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한편 인도 10대 수입품목 외의 품목군에서도 비록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8) KOTRA(2006), p. 2.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들이 있다(표 2-14 오른쪽). 선박(HS 8908), 면(HS 5201), 종이 및 판지(HS 4810), 구리선(HS 7408)이나 알루미늄 제품(HS 7602)을 비롯한 비금속 제품, 견과류(HS 0801, 0802)와

표 2-14. 인도의 주요 수입 증가 품목(HS 4단위, 2010~17년 기준)

(단위: %)

10대 수입품목(HS 2단위 기준)에 해당되는 세부 품목*				그 외 품목에 해당되는 세부 품목			
HS	품목명	비중	연평균 증가율	HS	품목명	비중	연평균 증가율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0.22	344.4	8908	선박 및 물에 뜨는 구조물	0.15	65.1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등	0.53	65.7	5201	면	0.12	55.2
7103	귀석과 반귀석	0.24	63.3	7408	구리의 선	0.17	43.9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	0.24	36.7	4810	종이와 판지	0.11	31.4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	0.30	33.9	0802	그 밖의 견과류	0.18	28.5
2933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0.23	33.2	0801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	0.25	26.6
2713	석유코크스, 석유역청	0.31	32.7	7602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31	22.1
7113	신변장식용품 및 부분품	0.28	32.3	0713	건조한 채두류	0.66	20.6
8507	축전지	0.15	30.1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혈 등	0.12	19.1
1507	대두유	0.45	25.3	3808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0.20	18.9
8518	마이크로폰과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 및 이어폰	0.11	25.1	3206	그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0.13	18.1
2711	석유가스 및 탄화수소(가스)	2.83	24.7	3824	조제점결제, 미분류 화학품 및 화학조제품	0.13	17.6
2701	석탄 및 연탄·조개탄	3.43	21.0	8803	항공기 부분품	0.33	13.5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1.02	20.6	9403	의자 외 가구와 부분품	0.12	11.9
2602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11	20.5	3815	반응시작제·촉진제·촉매제조품	0.12	11.9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인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인 항목(2010~17년 누계 기준)은 제외한 110개 품목 가운데 연평균증가율 기준 상위 품목만 일부 발췌. 2010~17년 전체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은 6.1%. *2017년 기준 10대 수입품목으로, HS 15, 26, 27, 29, 39, 71, 72, 84, 85, 90의 세부 품목.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건조한 채두류(HS 0713) 같은 식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생산품(HS 3808, 3815, 3824)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가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주요 대상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5]와 [표 2-16]은 각 품목별로 인도 수입증가율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인도시장에서 수출경쟁 우위를 보이는 품목과 열위에 있는 품목을 분류한 것이다. 만약 특정 품목에서 인도의 수입증가율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높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인도의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수출 경쟁국들보다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철강, 알루미늄 제품, 엔진 부분품, 무선통신기기, 의료용 및 방사선 기기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특정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인도의 수입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감소, 또는 수출이 거의 이루어

표 2-15. 품목 분류 (1): 인도 수입증가율 <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HS 코드 4단위, 2010~17년 기준)

구분	품목	구분	품목
[6부] 화학공업 생산품	2814 2907 2916 2922 2933 3004 3102 3206 3808 3815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8409 8413 8421 8431 8443 8481 8482 8483 8507 8517 8518 8525 8536 8538 8542 8543
[7부] 플라스틱 및 고무	3907 3920 3926 4016		
[10부] 목재펄프, 종이·판지	4810		
[14부] 귀금속	7106 7113	[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803
[15부] 비금속 제품	7202 7204 7210 7219 7225 7318 7601 7602 7801 8207	[18부] 정밀기기, 시계·악기	9018 9022 9027 9031 9032

※ 계층별 HS 코드 분류: [6부]28-38 [7부]39-40 [10부]47-49 [14부]71 [15부]72-83
[16부]84-85 [17부]86-89 [18부]90-92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연평균증가율 기준. 인도의 수입이 감소했거나 비중이 0.1% 미만인 품목은 제외함.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해당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인도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수출경쟁국들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도 수요가 상당히 높은 식물성 생산품이나 동식물성 유지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코크스를 비롯한 광물성연료, 각종 화학제품, 플라스틱 중합체, 고무 및 고무타이어, 구리 제품, 엔진과 터빈, 전동기·발전기, 반도체디바이스, 절연·전선 케이블, 자동차부품과 자전거부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2-16. 품목 분류 (2): 인도 수입증가율 >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HS 코드 4단위, 2010~17년 기준)

구분	품목	구분	품목
[2부] 식물성 생산품	(0713) (0801) (0802)	[11부] 방직용 섬유 및 제품	(5201)
[3부] 동식물성 유지	(1507) (1511) (1512)	[14부] 귀금속	(7101) 7103*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담배 등	1701*	[15부] 비금속 제품	7326 7404* 7408*
[5부] 광물성 생산품	(2701) 2704* 2711 2713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8407* 8411* 8414* 8415* 8426* 8445* 8462* 8471 8473* 8477* 8479* 8480 8501 8504* 8523* 8528* 8529* 8541 8544*
[6부] 화학공업 생산품	2809* 2902 2905 2914 2915* 2921* 2941* 3002* 3824	[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708* 8714* (8802) (8905) (8908)
[7부] 플라스틱 및 고무	3901 3902* 3904 4001* 4002* 4011*	[20부] 잡품	9403*
[10부] 목재펠트, 종이·판지	(4703) 4707* 4801*		

※ 계층별 HS 코드 분류: [2부]06-14 [3부]15 [4부]16-24 [5부]25-27 [6부]28-38 [7부]39-40 [10부]47-49 [11부]50-63 [14부]71 [15부]72-83 [16부]84-85 [17부]86-89 [20부]94-96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연평균증가율 기준. 인도의 수입이 감소했거나 비중이 0.1% 미만인 품목을 제외함.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인 품목. (괄호)안의 품목들은 수출금액이 '0'이거나 해당기간 수출이 드물게 이루어진 품목.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8501, 변압기·변환기-HS 8504, 모니터·프로젝터 및 TV 수신기기-HS 8528, 8529, 절연 전선 케이블-HS 8544), 자동차 부품품(HS 8708) 등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은 떨어지는 품목(표 2-17, (B))들이다. 이들은 가격경쟁력 하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국들의 상품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고무, 기계류, 전기기기 일부 품목과 자동차부품에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이 심지어 감소(표 2-16, *표기 품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상품이 인도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는 틈에서 경쟁우위가 크게 하락했거나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 약화, 신규 수출시장 발굴, 비관세 장벽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⁹⁾

한편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품목들은 대체로 수출경쟁열위 품목, 그중에서도 비주력품목에 집중되어 있다(표 2-17, (D)). 이 품목들은 우리나라가 대인도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세계 시장을 상대로는 비교적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들로, 향후 인도시장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2-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코크스(HS 2704), 의료용 혈(HS 3002), 천연고무(HS 4001), 종이·판지(HS 4707), 귀석·반귀석(HS 7103), 동의 선(HS 7408), 차량용 가솔린엔진(HS 8407), 방적준비기계(HS 8445), 자동차료처리기계(HS 8471), 사무용 기계 부분·부속품(HS 8473), 고무 플라스틱 가공·제조 기계(HS 8477), 가구 및 부분품(의자 제외, HS 9403)이 해당된다.

29) 이는 제4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표 2-18. 한국의 대인도 수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비주력 품목 한정)

(단위: 천 달러, %)

품목군	HS	품목명	금액	(A)	(B)	(C)
광물성 생산품	2704	(반성)코크스 및 레토르트카본	21,030	-8.6	14.1	17.5
화학공업 생산품	3002	인혈, 치료용 동물 피, 면역혈청 등	155,111	-3.3	47.9	19.1
고무	4001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등	399	-60.8	33.7	4.3
종이·판지 제품	4707	화수 지·판지	2,269	-22.5	13.6	11.8
귀금속	7103	귀석(다이아몬드 제외), 반귀석	99	-15.2	13.1	63.3
비금속 제품	7408	구리의 선	295,025	-39.4	0.2	43.9
기계류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로터리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233,402	-8.5	0.7	9.4
	8445	방적준비기계 등	33,395	-17.5	10.0	0.4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163,157	6.6	11.6	20.6
	8473	사무용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89,762	-7.3	14.2	0.3
	8477	고무·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 기계	240,565	-0.1	2.3	4.7
잡품	9403	의자 외 가구 및 부분품	16,424	-16.6	3.2	11.9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2010-17 누적. (A)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B)한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C)인도 수입증가율. 모두 연평균증가율 기준. [표 2-17]에서 '0 < 한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해당 품목들에 대한 심화 분석은 3장에서 진행.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소결

이상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광물성 연료와 귀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며, 상위 수입국들 대부분이 산유국들과 귀금속 수출국들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인도의 핵심 수입국인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추이도 인도의 수입 추이와 유사하게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부터 등락을 반복하며 11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었다가 2017년 전년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인도의 수요가 높은 품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데, 그중에서도 전기기기와 철강, 플라스틱 등의 품목들은 수출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증가율도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그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기계류나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들에서는 수출이 눈에 띄게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본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정체는 크게 세 가지에 기인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첫 번째는 인도의 수입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생산과 비관세 장벽의 확대다. 인도정부의 현지생산 요구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가 실행에 옮긴 무역(수입)보호조치는 총 63건에 달하는데 그중 18건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다.³⁰⁾ 두 번째는 중국의 시장점유율 폭증 현상이다. 이는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등 인도의 상위 수입품목들에서는 물론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리나라의 인도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도는 품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인도의 수입 수요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부족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자동차 부품품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현지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정보 부족이나 한·인도 CEPA 활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신규 시장 발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본 장에서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

30) 다른 나라들과 중복 계산(Global Trade Alert, 검색일: 2018. 11. 26).

도 수출구조를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개연성이 높은 대인도 수출정책 요인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들(2010~17년 누적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전체 수출의 80.5%를 차지)과 더불어, 본 장의 마지막(표 2-18)에 소개한 비주력이지만 대인도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세계시장경쟁력과 인도시장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품목별로 경쟁력이 변화한 추세와 그 요인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정책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

제3장

K

PMW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1. 분석범위 및 방법
2. 품목별 분석
3. 소결



1. 분석범위 및 방법

가. 분석범위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 10개(HS 2단위) 가운데 귀금속(71)을 제외한 전기기기(85), 기계류(84), 철강(72), 자동차 및 부품(87),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39), 유기화학품(29), 고무 및 관련 제품(40),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27), 정밀기기(90) 품목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HS 코드 2단위 기준으로 시장별비교우위지수(MCA)와 수출경합도지수(ESI)를 살펴보았으며, HS 4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경쟁력 변화의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또한 2장에서 도출한 수출잠재력 품목 12개(HS 4단위 기준)의 경쟁력 변화 요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사용된 품목 분류는 HS 2007 기준이며, 분석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이다.³¹⁾ 한편 본 장에서는 인도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보았다.

31) 1988년 처음 도입된 HS 코드는 6번의 개정(HS 1992, HS 1996, HS 2002, HS 2007, HS 2012, HS 2017)을 거쳤으며, 개정 연도를 붙여 버전을 구분하고 있음. HS 코드의 개정은 HS 코드의 호(HS 4단위)와 소호(HS 6단위) 수준에서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어, 특히 HS 4단위 이하의 세부 품목의 분석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 UN Comtrade는 조정 통계를 제공해 HS 코드 개정으로 인한 세부 품목 분류의 시계열적 불일치를 해소하나, 새로운 기준의 통계를 과거 기준 통계로 제공할 뿐 새로운 기준에 대한 통계를 소급적용해 제공하지 않음. HS 코드의 개정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기준을 사용할 경우 UN Comtrade의 조정통계를 활용해 보다 긴 기간의 분석이 가능하나, 과거의 품목 분류로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특히 2007년 코드 개정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품목(8517)의 코드가 변경되어 본 장에서는 HS 2007을 기준 삼음. 한편 인도의 경우 HS 2007 코드를 2009년부터 적용하여서 2009년 이후부터 분석이 가능함.

나. 분석방법

1) RCA 및 MCA

품목별 경쟁력 분석에는 현실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가 많이 활용된다.³²⁾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특정 품목 또는 산업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특정 제품을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수출하고 있다면 그 국가가 특정 품목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RCA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³⁾

· 현시비교우위 지수

$$RCA_{kw}^i = \frac{(X_{kw}^i / X_{ww}^i)}{(X_{kw} / X_{ww})} = \frac{(X_{kw}^i / X_{kw})}{(X_{ww}^i / X_{ww})} \quad [\text{식 3-1}]$$

X_{kw}^i 는 k국 i품목에 대한 對세계 수출액

X_{ww}^i 전 세계 i품목에 대한 對세계 수출액

X_{kw} 는 k국 對세계 총수출액

X_{ww} 는 전 세계 수출액임

한편 RCA 지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한 실적에 의해 특정 품목의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양국간 교역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한 수출이 많을 경우 비교우위가 높게 측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세계시장보다 상대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별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32) 모수원, 정홍영, 이광배(2015), p. 142.

33) 이 용, 송영철, 이정미(2013), p. 59.

Advantage)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시장별비교우위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세계가 아닌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³⁴⁾

MCA는 특정 국가가 특정 시장에 수출한 특정 상품의 비중으로 시장에서의 특정 국가의 시장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별비교우위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수출 비교우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세계수출시장이 아닌 교역 대상국을 대상으로 수입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비교 분석한다는 점이 다르다. MCA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MCA가 1보다 작다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⁵⁾

· 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_{kj}^i = \frac{X_{kj}^i / X_{kj}}{M_{jw}^i / M_{jw}} \quad [\text{식 3-2}]$$

X_{kj}^i : k국가 i품목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

X_{kj} : k국가의 j국가에 대한 총수출액

M_{jw}^i : j국가 i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입액

M_{jw} : j국가의 총수입액

한편 MCA는 특정 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극단적인 값을 가질 수 있어, 국가간 비교에 있어 MCA의 절댓값 비교보다는 비교우위의 추이에 초점을 맞춰 비교했다.

34) 모수원, 정홍영, 이광배(2015), pp. 141~153.

35) 이 용, 송영철, 이정미(2013), p. 67.

2) ESI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두 국가의 수출구조가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여 수출의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양국이 경쟁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SI는 a 국가와 b 국가가 특정 시장으로 수출하는 금액 중 각 i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솟값을 더한 수치로 정의한다. ES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a와 b 국가의 수출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수출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출경합도지수

$$ESI = \sum_{i=1}^n \min\left(\frac{X_{i,a}}{X_a}, \frac{X_{i,b}}{X_b}\right) \quad [\text{식 3-3}]$$

$\frac{X_{i,a}}{X_a}$: a국의 특정 시장에 대한 총수출에서 i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frac{X_{i,b}}{X_b}$: b국의 특정 시장에 대한 총수출에서 i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ESI는 품목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데, 품목의 분류가 대분류일 경우에는 그 값이 크게 나타나며 품목 분류가 세분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ESI는 동일한 품목 분류하에서만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³⁶⁾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를 이용해 ESI를 구했다.

3) 경쟁력 변화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해 경쟁력

36) 신현수, 이원복(2003), p. 16.

변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우선 한국의 대세계경쟁력(RCA)과 대인도경쟁력(MCA)을 비교해 보았다. 대세계경쟁력과 대인도경쟁력이 같은 방향일 경우 제품의 경쟁력 변화가 인도시장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했다. 한국의 대세계경쟁력과 대인도경쟁력이 다른 방향일 경우, 인도의 주요 경쟁국(중, 미, 일, 독)의 대인도 수출 추이를 보았는데, 이들 국가 중 인도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와의 경쟁 심화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관세 및 비관세, 산업/수요구조요인, 로컬생산 및 조달로 구분된 경쟁력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은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조치, 한·인도 CEPA 및 일·인도 CEPA 비교를 통해 파악했다. 산업/수요구조요인은 해당품목의 대세계 수입증가율(2010년과 2017년 기준)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도의 전체 수입은 2010년 대비 2017년 26% 증가했는데, 해당품목의 대세계 수입이 전체 품목 수입증가율의 2배 이상인 60%를 기준으로, 6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인도시장의 매력도 상승이 한국기업의 인도 수입시장 진출 확대에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는 인도의 시장 위축으로 인도가 수출시장으로서 인도의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대인도 수출 자체를 줄이게 됐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현지생산 및 조달의 경우 인도의 대세계경쟁력(RCA) 추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도의 RCA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품목의 인도 내 제조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도 로컬생산 및 조달 확대가 한국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산업/수요구조, 로컬생산/조달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본 보고서에서 경쟁력의 지표로 사용한 MCA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³⁷⁾

37)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력 변화 요인을 HS 4단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 데이터 외 기타 지표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3-1. 경쟁력 변화 요인 및 파악 방법

	변화 요인	분석 방법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 대세계경쟁력(RCA)과 비교
	관세 및 비관세	* 한·인도 CEPA * 비관세조치 확인
	산업/수요 구조요인	* 인도의 대세계 수입변화율(2010년 vs 2017년) 확인
경쟁력 약화	경쟁우위	* 대세계경쟁력(RCA)과 비교 * 인도의 수입주요국(중, 일, 미, 독) 증가율 비교
	관세 및 비관세	* 비관세조치 확인 * 한·인도 CEPA 및 일·인도 CEPA 비교
	산업/수요 구조요인	* 인도의 대세계 수입변화율(2010년 vs 2017년) 확인
	로컬생산/조달	* 인도의 대세계경쟁력(RCA) 확인

주: 한·인도 및 일·인도 CEPA 비교 관련은 부록의 [부표 2] 상품부문 양허유형 참고.
자료: 저자 작성.

2. 품목별 분석

가. 주요 수출 품목

1) 전기기기(HS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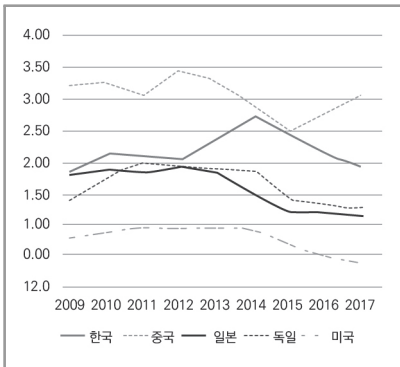
한국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전기기기는 인도시장에서 2이상의 높은 경쟁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1.81이던 한국의 인도시장에서의 전기기기(85) MCA 지수는 2014년 2.7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2017년 1.94까지 하락했다. 한편 전기기기 품목의 경우 중국, 독일, 일본의 MCA 또한 1 이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이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MCA가 1 미만으로 전기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인도시장에서 비교우위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독일, 미국의 전기기기 품목의 대인도 MCA는 2014년을 전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하락하다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국은 대인도 전기기기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가장 높은 경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경합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합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독일과의 경합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도시장에서 가격 중심의 수출 품목은 중국이 인도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반면, 한국은 품질 중심의 수출 품목으로 주요 수출 품목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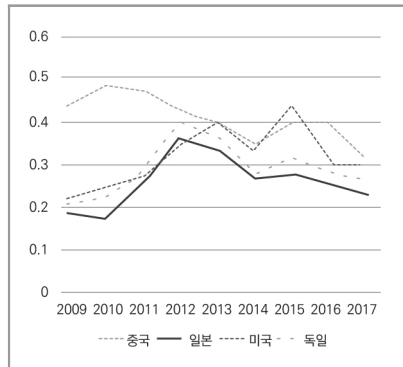
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8517)의 경쟁력이 등락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517의 MCA는 2009년 2.5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이었으나 2012년 0.99로 비교열위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최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 MCA 지수가 3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은 8517의 경쟁력 등락은 하위 품목의 수출구조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517 품목 가운데 주요 수출품이었던 무선전화기(851712)와 그 부분품

그림 3-1. 주요국의 전기기기 M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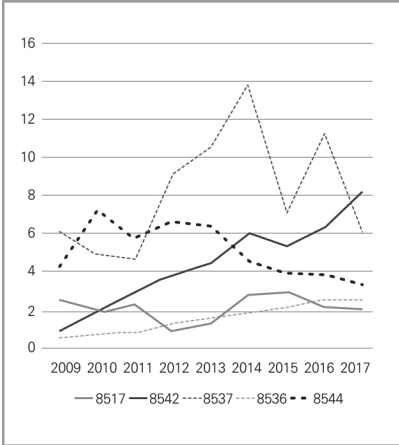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 한국과 주요국의 전기기기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3.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전기기기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주: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8517), 집적회로(8542),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기타의 기반(8537),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8536) 절연 전선·케이블(8544), 제8525-8528호 관련 부분품(8529), 인쇄회로(8534), 제8535-8537호 관련 부분품(8538), 접화용 전기기기(8511), 전동기와 발전기(850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2.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전기기기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17	2017	2010-17
8517	1,443	46.7	10.7
8542	592	19.2	35.3
8537	119	3.8	17.6
8536	113	3.7	28.3
8544	109	3.5	-6.3
8529	89	2.9	-8.5
8534	59	1.9	62.1
8538	57	1.8	16.0
8511	53	1.7	14.3
8501	51	1.6	2.9
전체	1,660	100	8.2

주: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8517), 집적회로(8542),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기타의 기반(8537),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8536) 절연 전선·케이블(8544), 제8525-8528호 관련 부분품(8529), 인쇄회로(8534), 제8535-8537호 관련 부분품(8538), 접화용 전기기기(8511), 전동기와 발전기(850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851770)이 2010년 기준 전체 각각 45.6%와 52.5%로 8517 품목 가운데 98.1%를 차지했으나, 2017년 각각 0.3%와 24.1%로 24.4%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2012년까지 거의 0에 가깝던 기지국(851761) 수출이 확대되어 2017년 기준 8517 품목 수출 가운데 72.5%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8517 품목의 경쟁력 악화는 무선전화기(851712)과 그 부분품(851770)의 대인도 수출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851712의 경우 현지생산 확대, 851770의 경우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인도 851712 수출규모는 2009년 3억 3,600만 달러였으나 2017년 45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851770의 수출규모는 2009년 3억 2,600만 달러 규모였으며 2015년 7억 2,500만 달러까지 확대됐으나 2016년 절반 수준인 3억 8,7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3억 4,800만 달러를 기록

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851712 수출 규모는 2009년 14.5억 달러에서 2017년 2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며, 2009년 7.7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대인도 851770 수출은 2017년 65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반면 8517의 경쟁력 강화는 851761의 수출 증가에서 기인하며, 이는 인도의 4G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³⁸⁾ 이는 삼성전자의 대인도 LTE 네트워크 장비시장 진출과 연관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Reliance) 그룹의 자회사 지오와 지난 2012년 4G LTE 네트워크 장비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전국 4G LTE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했다.³⁹⁾ 인도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사업에는 삼성전자의 30여 개 부품협력사와 중견기업 '에이스테크놀로지'가 동반으로 진출했으며, 무역보험공사의 7.5억 달러 수출금융을 활용했다. 이러한 진출 방식은 우리 제품의 인도 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한편 삼성전자는 2019년 5G 네트워크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관련 경쟁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인도시장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수출에 밀릴 경우 우리의 8517의 품목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⁴¹⁾

전기기기 가운데 반도체(8542)의 MCA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반도체 제품의 세계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인도 반도체의 수출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동기간 인도의 반도체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4%에 불과했다.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기타의 기반(8537),

38) 인도의 851761에 대한 수입은 2010년 3.8억 달러에서 2017년 9.3억 달러로 143% 증가함.

39) 삼성뉴스룸(2017. 2. 28), 삼성전자, 인도 이동통신 시장 지형 바꾼다.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EC%9D%B8%EB%8F%84-%EC%9D%B4%EB%8F%99%ED%86%B5%EC%8B%A0-%EC%8B%9C%EC%9E%A5-%EC%A7%80%ED%98%95-%EB%B0%94%EA%BE%BC%EB%8B%A4>(검색일: 2018. 10. 5).

40)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2015년) 무역보험공사,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인도 최초 전국망 4G LTE 기지국 구축사업에 7.5억 달러 수출금융 제공.

41) Hindustantimes(2018. 10. 27), "Samsung to conduct large-scale 5G trials in Delhi in Q1 2019," <https://www.hindustantimes.com/tech/samsung-to-conduct-large-scale-5g-trials-in-delhi-in-q1-2019/story-1MLPuCwdVQdCRA43cGyEjI.html>(검색일: 2018. 10. 5).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8536), 인쇄회로(8534), 제8535~8537호 관련 부분품(8538), 접화용 전기기기(8511)의 경우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쟁력이 강화된 품목들로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인도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537, 8536, 8538은 한·인도 CEPA의 양허 품목으로 관세 혜택이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있다. 8537의 하위품목인 853710와 853720은 한·인도 RED와 E-8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8536과 8538의 하위 품목 또한 모두 CEPA 혜택(8536: E-0 5개, E-5 1개, E-8 10개, RED 6개, SEN 4개, 8538: E-0 1개, RED 2개)을 받고 있다.⁴²⁾

TV, 라디오 등 부분품(8529)과 절연 전선·케이블(8544)의 경우는 세계경쟁력과 인도시장경쟁력이 함께 하락한 품목으로 이는 제품경쟁력 악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품목들의 경우 휴대전화 부분품(851770)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⁴³⁾

표 3-3. 한국의 주요 전기기기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8517	2.85	0.94	-	2.02	2.07	+
8542	3.54	4.72	+	2.02	8.30	+
8537	0.61	0.74	+	5.05	6.21	+
8536	0.59	0.81	+	0.79	2.59	+
8544	1.11	0.73	-	7.24	3.37	-
8529	4.94	4.43	-	5.61	1.78	-
8534	2.65	3.55	+	0.47	4.07	+
8538	0.94	2.23	+	1.07	2.27	+
8511	0.54	0.83	+	3.31	5.27	+
8501	0.43	0.67	+	2.10	2.03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42) 관련제품에 대한 인도의 CEPA 체결 당시 관세율은 12.5%, 현재 관세율은 7.5~10%임.

43) TV, 라디오 등 부분품(8529)에 대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1억 6,500만 달러에서 2017년 8,900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2억 1,500만 달러에서 2017년 7억 8,200만 달러로 증가함. 절연 전선·케이블(8544)의 경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1억 7,200만 달러에서 1억 900만 달러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경우 3억 6,600만 달러에서 5억 8,100만 달러로 증가함.

전동기와 발전기(8501)의 경우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도 현지생산 확대가 한국의 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정부가 이 품목에 대한 보호 및 현지생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 CEPA 품목(HS 2002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전기기기 제품이 E-0, E-8 등 양허 품목에 포함되는 반면 8501에는 37개 세부품목(8단위 기준) 가운데 미양허 품목이 12개, 민감품목(RED)이 4개가 있으며, 인도정부는 2016년 이 품목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10%로 인상했다.

표 3-4. 전기기기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8517.61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143%)	X	무관세
	8542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95%)		무관세
	8537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144%)		한·인도 CEPA
	8536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68%)		한·인도 CEPA
	8534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229%)		무관세
	8538	세계경쟁력 개선	28%		한·인도 CEPA
	8511	세계경쟁력 개선	55%		미적용
경쟁력 약화	8544	세계경쟁력 약화	31%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3→0.4)	주요수출 품목(854430) 한·인도 CEPA 미적용
	8529	세계경쟁력 약화	63%	(0.1→0.1)	한·인도 CEPA
	8501	-	23%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4→0.5)	주요수출 품목(850131) 한·인도 CEPA 미적용
	* 851770	경쟁 심화(중국)	302%	-	무관세
	* 851712	세계경쟁력 약화	-36%	현지화 도모	무관세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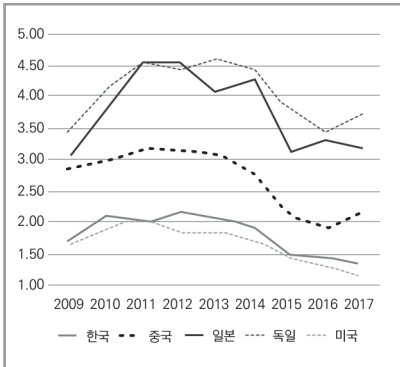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기계류 (HS 84)

한국의 대인도 기계류 경쟁력은 2012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인도의 주요 수입국 MCA 또한 한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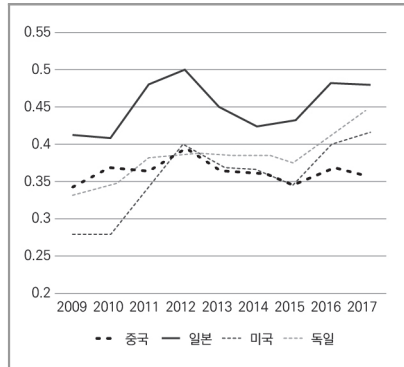
기계류에 대한 인도시장에서의 일본, 미국, 독일과의 경합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09년 당시 일본 다음의 경합관계에 있었던 중국과의 경합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일본과 0.5에 육박한 높은 경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미국, 중국 순으로 경합관계에 놓이게 됐다. 즉, 한국의 기계 품목은 양 위주의 중국과 경쟁이 아닌 질 위주의 국가들과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⁴⁾

그림 3-4. 주요국의 기계류 MCA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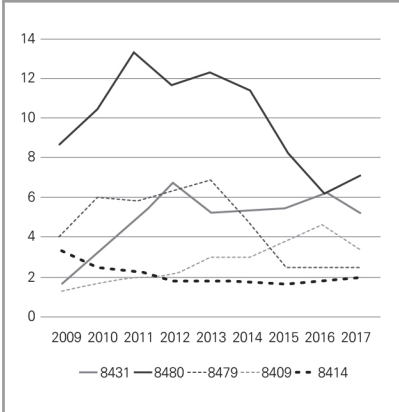
그림 3-5. 한국과 주요국의 기계류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44) 박광순, 이진면, 전혜진(2012. 12, pp. 152~161)은 독일과 일본은 기계류의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질보다 양 위주의 기계산업 성장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품목 위주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함.

그림 3-6. 한국의 대인도 주요 기계류 수출 품목 MCA추이(HS 4단위)



주: 8425-8430의 부분품(8431), 금속주조용 주형틀(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8479), 엔진 부분품(8409) 진공펌프, 후드(8414), 밸브(8481), 불도저 등 건설기계(8429), 베어링(8483), 8456-8465의 부분품(8466), 원심분리기(842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5. 한국의 대인도 주요 기계류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성장률
	2017		2017
8431	199	12.0	10.65
8480	146	8.8	3.22
8479	137	8.2	-7.73
8409	122	7.3	16.55
8414	104	6.3	-0.93
8481	72	4.3	13.35
8429	71	4.3	-2.71
8483	68	4.1	21.87
8466	50	3.0	10.16
8421	49	2.9	14.58
전체	1,661	100.0	-1.80

기계류 주요 세부 품목 가운데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들의 경쟁력 변화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중장비부속품(8431)의 경우 한·인도 CEPA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비부속품(8431)은 한·인도 CEPA의 관세 혜택(E-5 5개, E-8 7개, RED 4개)을 받고 있는데, 2009년 4%에 불과했던 한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은 2017년 15.7%까지 확대됐다. 엔진부분품(8409), 밸브(8481), 베어링(8483), 8456~8465의 부분품(8466), 원심분리기(8421) 경쟁력 증가는 대세계경쟁력 증가와 함께 한·인도 CEPA 양허 혜택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⁴⁵⁾ 한편 엔진부분품(8409) 경쟁력 강화의 경우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를 위한 인도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차량추진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및 그 부분품(840732, 840733, 840734, 840991)의 경우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압축점화식의 차량추진

45) 8409, 8483, 8421의 경우 미양허 품목과 민감품목(RED, SEN), E-5, E-8이 혼재되어 있으며, 8466은 민감품목(RED), E-0, E-5, E-8이 혼재, 8481은 수출비중이 크지 않은 2개 품목(848120, 848130 RED)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E-5 또는 E-8의 CEPA 혜택을 받고 있음.

용 엔진(840820)은 RED, 압축점화식의 기타 피스톤식 엔진(840890)은 EXC 인 반면, 압축점화식의 부분품(840999)의 경우 RED 품목으로 엔진 완제품보다 부분품(8409)으로 수입하는 것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완제품의 대인도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부분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⁶⁾ 불도저 등 건설기계(8429)의 경우 대세계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강화되었는데, 이는 한·인도 CEPA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품목은 현재 한·인도 CEPA로 인해 모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경쟁력이 강화된 위의 품목들 가운데 8431, 8409, 8481, 8421의 경우 2010년 대비 2017년 인도의 수입이 100% 이상 확대된 품목으로, 인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인도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계류 가운데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주요 품목은 금속주조용 주형틀(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8479), 후드(8414)로, 이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세계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인도시장 내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480, 8479, 8414 품목에 대한 2010년 대비 2017년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각각 100%, 207.3%, 59.4%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각각 9.3%, -43.1%, -2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 품목들의 경우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이 증가한 품목으로, 인도의 현지생산 및 조달 확대 또한 우리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8480의 경우 일·인도 CEPA의 양허가 한·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이 또한 한국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8480의 세부품목은 일·

46)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압축점화식엔진(8408)의 MCA가 1 이하로 전환되었으며,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엔진(8407)의 MCA 또한 2015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음. 한편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의 1,000CC 이상의 엔진(840734) 수출이 2015년 377만 달러에서 2016년 8,581만 달러, 2017년 3,812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1,000CC 이하 소형차 위주의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중, 대형차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인도 CEPA에서 모두 B10 품목인 반면, 한국은 848010, 848041, 848060이 민감(RED)품목이다. 8480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대비 2017년 46.3% 증가했다.⁴⁷⁾

표 3-6. 한국의 주요 기계류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 (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 (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8431	1.50	1.24	-	3.33	5.20	+
8480	2.79	2.79	+	10.61	7.05	-
8479	2.05	2.14	+	6.04	2.49	-
8409	0.64	1.11	+	1.78	3.43	+
8414	0.84	1.10	+	2.50	2.03	-
8481	0.54	0.65	+	1.20	1.89	+
8429	2.41	2.19	-	6.13	6.34	+
8483	0.63	0.75	+	0.65	1.97	+
8466	0.76	0.89	+	2.18	3.56	+
8421	0.52	0.67	+	0.98	1.68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47) 한편 8479과 8414의 경우 한·인도 CEPA가 일·인도 CEPA보다 유리하게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에서는 경쟁력이 악화됨. 8479 세부 품목 가운데 일·인도는 1개 품목(847981 양허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B10 양허, 한·인도는 2개의 민감 품목(847981, 847960 RED)이 있으며 나머지는 E-0, E-5, E-8 품목으로 현재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847960은 한국과 일본 모두 대인도 수출이 0인 품목으로 한·인도 CEPA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8414의 경우도 8479와 마찬가지로 일·인도 CEPA와 한·인도 CEPA를 비교하면 한·인도 CEPA의 양허가 보다 유리함(일·인도 CEPA에서 841480은 미양허인 반면, 한·인도 CEPA는 RED 품목으로 관세혜택을 일부 받음).

표 3-7. 기계류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8431	-	119%	X	한·인도 CEPA
	8409	세계경쟁력 개선	109%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제외)
	8481	세계경쟁력 개선	278%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제외)
	8429	-	-31%		한·인도 CEPA
	8483	세계경쟁력 개선	52%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제외)
	8466	세계경쟁력 개선	10%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제외)
	8421	세계경쟁력 개선	129%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제외)
경쟁력 약화	8480	경쟁심화(중국)	59%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3→0.4)	일·인도 CEPA
	8479	경쟁심화(중국)	21%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3→0.5)	한·인도 CEPA(일부품목제외)
	8414	경쟁심화(중국)	-1%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5→0.6)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제외)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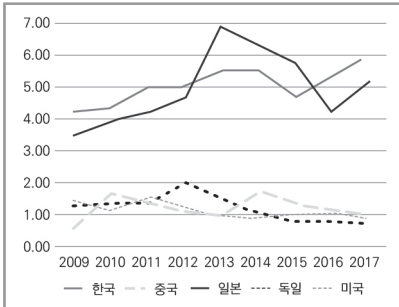
3) 철강(HS 72)

한국은 2017년 기준 인도의 제1의 철강 수입국으로 인도의 철강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2 참고). 이는 MCA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인도 철강시장에 대한 MCA 지수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도철강시장 수출경합도를 보면 일본과 경합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인도 CEPA가 발효된 2011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0.5를 돌파했으며, 2015년 이후 다소 낮아졌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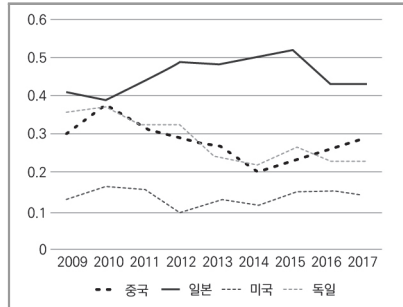
편 중국과 독일과의 경합도는 감소세에 있었으나 중국과의 경합도는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가장 낮은 경합관계에 있으며, 경합도는 0.1과 0.15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림 3-7. 주요국의 철강 M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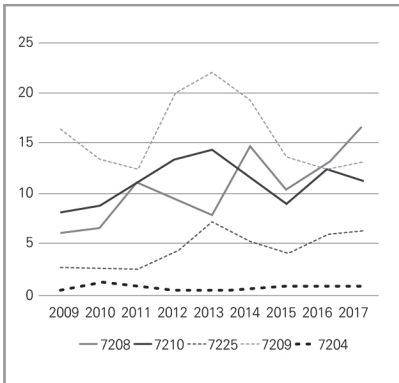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8. 한국과 주요국의 철강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9. 한국의 대인도 주요 철강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주: 열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25),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9),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7204),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19), 합금철(720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7207), 600미터 미만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2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8. 한국의 대인도 주요 철강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17	2017	2010-17
7208	777	38.4	4.11
7210	404	20.0	9.28
7225	322	15.9	16.75
7209	109	5.4	-13.76
7204	86	4.2	1.69
7219	81	4.0	0.57
7202	41	2.0	14.07
7207	34	1.7	-
7220	33	1.6	3.65
7221	20	1.0	-
전체	2,023	100	4.14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열연, 표면처리, 기타 합금강, 냉연 평판압연제품(7208, 7210, 7225, 7209) 4개가 전체 철강 수출의 8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208, 7210, 7225와 같은 주요 철강 수출품의 대인도시장경쟁력은 증가세에 있으며, 점유율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는 8%의 경제 고성장에 따라 자동차, 건설자재로 쓰이는 고급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도의 철강수입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CEPA 체결 이후 한국 제품의 수입액과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인도 CEPA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철강 대부분의 품목은 한·인도 CEPA의 E-5 또는 E-8 품목으로 한·인도 CEPA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금속제품(MTI 1기준)의 대인도수출 CEPA 활용률은 2016년 77.6%, 2017년 72.7%로 전체 품목의 활용률(2016년 65.8%, 2017년 67.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인도 CEPA의 적극적 활용이 철강의 인도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⁸⁾

한편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19), 600미터 미만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20) 품목의 경우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으로 현지생산 및 조달 확대 또한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7209와 7219의 경우는 우리의 대세계경쟁력이 하락하는 품목으로 이 품목에 대한 한국 제품경쟁력 약화가 인도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7220의 경쟁력 약화에는 인도의 비관세조치(반덤핑)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2012년 10월 4일부터 2017년 10월 3일까지 냉간압연한 스텐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2020, 722090)에 대해 한국과 EU, 미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2012년 11%에 달하던 한국의 7220 품목에 대한 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은 2013년 6.7%로 낮아졌으며, 2014~16년에는

48)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이상 비슷한 종류의 HS 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3.3~3.7%에 불과한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7220에 대한 인도 수입시장의 한국 점유율이 14.3%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비관세조치(2017년 7월 7219, 7220 품목에 대한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의 반사이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표 3-9.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 (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 (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7208	2.78	2.92	+	6.61	16.64	+
7210	3.31	3.43	+	8.64	11.05	+
7225	0.98	1.61	+	2.65	6.35	+
7209	4.76	4.00	-	13.40	13.13	-
7204	0.45	0.30	-	1.02	1.03	+
7219	2.52	2.10	-	4.65	4.48	-
7202	0.63	0.67	+	0.98	1.26	+
7207	0.83	0.50	-	0.00	5.21	+
7220	1.50	2.68	+	5.38	4.34	-
7221	2.18	2.27	+	0.05	10.32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한국은 대인도 철강수출 상위 4개 품목 가운데 표면처리 평판압연제품(7210)을 제외한 3개의 품목에 대해 2018년 11월 현재 인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수출 추이를 볼 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⁰⁾ 하지만 인도의 주요 육성산업 가운데 하나인 철강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49) 인도의 철강에 대한 비관세조치는 특히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2014년 이후 제소된 건수는 7건(상계관세 1건, 반덤핑 6건), 조치 건수는 6건에 달한다.

50) 인도의 반덤핑 조치가 톤당 474~594달러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기준가격 이상의 한국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뉴스1(2016. 8. 10), 철강협회 “인도 철강 반덤핑 판정, 한국산은 제한적”, <http://news1.kr/articles/?2743899>, 검색일: 2018. 10. 5)].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대인도 철강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¹⁾

표 3-10. 철강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7208	세계경쟁력 개선	-49%	X	한·인도 CEPA
	7210	세계경쟁력 개선	40%		한·인도 CEPA
	7225	세계경쟁력 개선	19%		한·인도 CEPA
	7204	-	7%		한·인도 CEPA
	7202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증가(89%)		한·인도 CEPA
	7207	-	-24%		한·인도 CEPA
	7221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증가(88%)		한·인도 CEPA
경쟁력 약화	7209	세계경쟁력 약화	인도의 대세계 수입 감소(-65%)	인도의 대세계 경쟁력 증가 (1.6→3.0)	한·인도 CEPA
	7219	세계경쟁력 약화	4%	인도의 대세계 경쟁력 증가 (0.3→1.1)	한·인도 CEPA
	7220	-	54%	인도의 대세계 경쟁력 증가 (1.2→1.3)	*반덤핑 부과 한·인도 CEPA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 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51) 인도는 2010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2014년 이후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현지 산업 보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현지 철강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함[Economic Times(2017. 5. 13), "India's anti-dumping duty impose on steel products to benefit domestic mill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indl-goods/svs/steel/indias-anti-dumping-duty-impose-on-steel-products-to-benefit-domestic-mills/eshow/58658791.cms>(검색일: 2018. 10. 5)].

표 3-11. 인도의 대한국 철강 비관세조치

제소일	조치 시작일	조치 종료일	조치	상품 분류	HS 코드
2010-08-16	2012-10-04	2017-10-03	반덤핑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mm	722020, 722090
2014-03-11	2015-06-05		반덤핑	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304 series	7219, 7220
2016-04-11	2017-05-11		반덤핑	Hot 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in coils of a width up to 2100mm and thickness up to 25mm and Hot 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not in coils of a width up to 4950mm and thickness up to 150mm	7208, 7211, 7225, 7226
2016-04-19	2017-05-12		반덤핑	Cold rolled/cold reduced flat steel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of all widths and thickness, not clad, plated or coated	7209, 7211, 7225, 7226

자료: WTO i-tip(검색일: 2018.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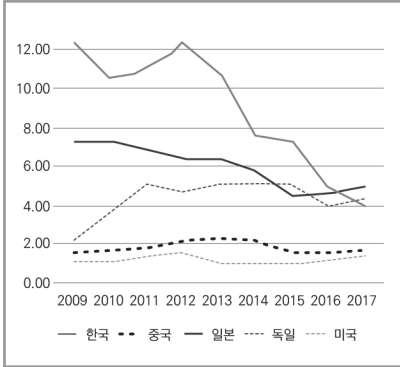
4) 자동차 및 부품(HS 87)

2012년 12.46을 기록한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MCA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MCA가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독일의 MCA는 일본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의 MCA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3-11]을 보면 한국의 자동차 품목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현지화 정책으로 인해 수출 품목의 유사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관세조치 등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한정된 부품만 수입에 의존하면서 각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이 유사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다.⁵²⁾ 한편 자동차 품목의 인도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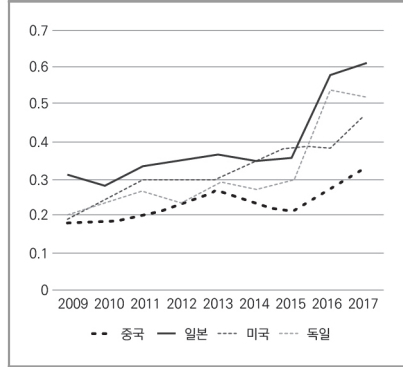
높은 중국(그림 2-12 참고)과의 경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모터사이클 부분품(871419)이기 때문이다.

그림 3-10. 주요국의 자동차 및 부품 MCA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11. 한국과 주요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87) 대인도 수출 99%는 부분품과 부속품(8708)으로, 현대자동차가 1990년대 인도 현지생산을 시작한 이후 자동차 품목의 대인도 수출은 부품 위주가 되었다.⁵³⁾ 이는 인도가 완성 승용차(8703)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으로 완성차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대인도 수출은 CKD(반조립제품)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출로 증가세에 있던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부품수출은 인도정부의 자동차

52) 독일 렉서리 자동차 업체들도 인도 현지 부품 조달을 확대하는 추세로 BMW는 과거 20~30%에 불과했던 인도 부품 조달율을 최근 50%까지 높였으며 벤츠도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다[신아일보(2018.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5)].

53) 인도는 2018년 기준 완성차 125%, 부품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CKD 방식을 채택할 시 완성차에 적용되는 관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CKD(Complete Knock Down)란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CKD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CKD 방식이 자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국은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 및 운임이 싸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OTRA 2011. 3. 17, 자동차 CKD 규정 변경으로 요동치는 인도시장).

부품 현지생산 촉진 정책으로 인해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2011/12년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자동차 CKD 부품에 관해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기존 CKD 부품으로 적용받았던 품목 중 엔진, 기어 박스,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자동차 새시 등의 부품과 하위 조립품이 설치된 부품 등에 대한 CKD 적용을 제외했다. 특히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8708)은 대부분 한·인도 CEPA의 양허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도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8708 품목은 HS 8단위 기준 16개 세부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양허 제외(EXC) 12개, 이행 9년차 기준세율의 50% 관세 적용(SEN) 3개, 이행 7년차 1~5% 관세 적용(RED) 1개로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도정부는 한국, 중국, 태국에 2015년 5월 22일부터 주조 알루미늄 합금 휠(870870)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2015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4% 증가했으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183%와 19% 증가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⁴⁾

8708의 대세계경쟁력과 대인도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2013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한국의 대세계경쟁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인도의 8708 대세계경쟁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8708의 인도시장경쟁력의 변화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현지생산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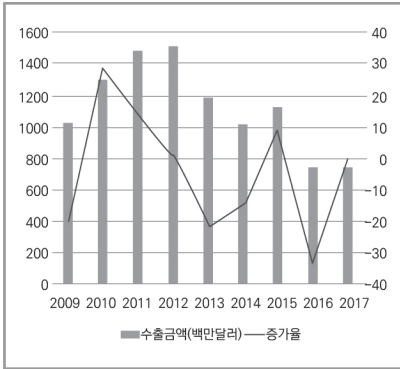
한편 인도정부는 2018/19년 예산안에서 자동차부품 및 CKD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다. 이러한 인도정부의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 촉진 정

54) 2015년 중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은 14%였으며,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1.4%와 -5.4%를 기록함.

55) 이 품목의 인도의 대세계 수입은 2010년 대비 2017년 53%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완성차 수출업체들의 인도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동 기간 완성차(8703)의 수입은 5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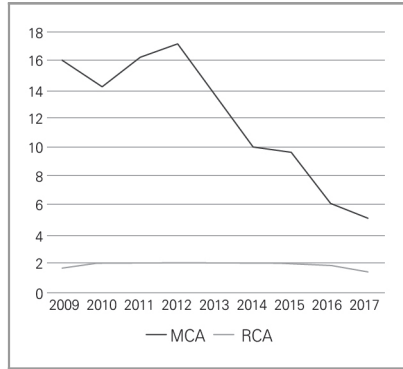
책은 지속 확대될 예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현지생산이 지속 확대되면서 우리의 대인도 자동차 부품의 비교우위는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한국의 자동차부품(8708) 수출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13. 한국의 대세계 vs. 대인도 경쟁력 지수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12. 자동차부품 경쟁력 변동 요인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악화	8708	-	53%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상승 (0.4→0.6)	CKD 적용 제외 및 관세 인상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5)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HS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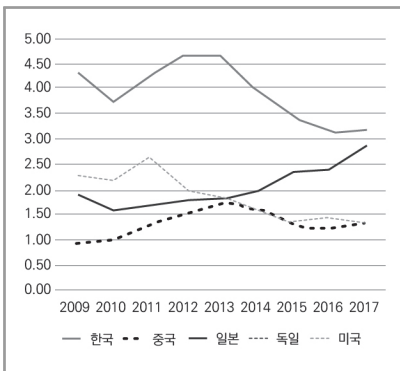
한국의 플라스틱 MCA 지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중국, 독일, 미국의 MCA는 한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MCA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12]의 플라스틱 점유율을 보

면 한국은 일정한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2014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3904)에 대한 일본의 대인도 수출이 2013년 158만 달러에서 2017년 2억 8,000만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경합도 증가는 일·인도 CEPA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4단위 기준의 경쟁력 변화 요인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편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 독일과의 수출경합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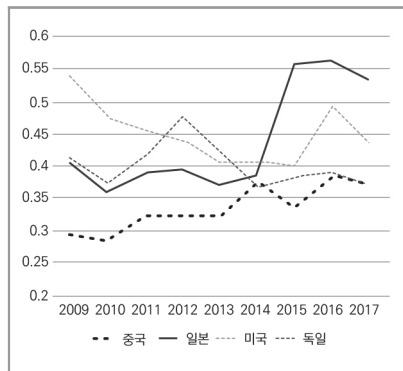
한국의 대인도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 위주로 한국은 인도에 일차제품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은 가운데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шит·필름·박 또는 스트립(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3926) 두 개만 합성수지 제품(석유화학 제품)이 아니다.

그림 3-14. 주요국의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M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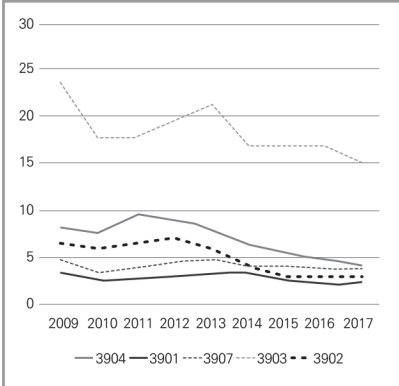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15. 한국과 주요국의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16. 한국의 대인도 주요 플라스틱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주: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3904), 에틸렌의 중합체(3901) 아세탈수지·기타 폴리테트라에틸렌의 에폭시수지 등(3907), 스티렌의 중합체(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3902),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3909), 아크릴의 중합체(390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트립(3920), 폴리이미드(3908).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13. 한국의 대인도 주요 플라스틱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성장률
	2017	2017	2010-17
3904	266	19.1	1.59
3901	192	13.8	2.39
3907	178	12.8	8.70
3903	161	11.6	6.72
3902	108	7.7	-1.22
3909	97	7.0	57.25
3906	73	5.3	14.63
3926	59	4.2	25.45
3920	54	3.9	8.23
3908	48	3.4	17.06
전체	1,395	100	6.71

플라스틱 세부 품목의 MCA 지수를 보면, 주요 플라스틱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플라스틱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3904)의 인도시장경쟁력 하락은 일·인도 CEPA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9 품목 수출의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90410은 한·인도 CEPA에서 양허 제외 품목(EXC)인 반면 일·인도 CEPA에서는 B10 양허 품목인데, 390410의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2010년 2.37억 달러에서 2017년 2.56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700만 달러에서 2017년 2억 8,00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3904 품목과 마찬가지로 에틸렌의 중합체(3901), 스티렌의 중합체(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3902), 아크릴의 중합체(3906)은 일·인도 CEPA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901의 경우 일본은 하위 품목 6개 모두 B10 양허 품목인 반면, 우리는 미양허(EXC) 3개

(39011010, 39011090, 39013000), 민감(RED) 2개(39019010, 39019090), E-5(39013000) 1개로 구성되어 있다. 3903, 3902의 세부 품목들에 있어 일본은 39033000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품목(6단위) 11개가 B10 양허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모두 미양허이며, 3906의 경우 일본은 즉시철폐 품목이 1개(39061010) 있으며 나머지 5개는 B10 양허 품목인 반면 한국은 미양허(EXC) 4개, 민감(RED) 2개로 구성되어 있다.⁵⁶⁾

한편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의 경쟁력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등(3907)의 경우 양허 품목인 390730(E-8), 390740(E-5)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을 볼 때 한·인도 CEPA의 관세 혜택이 이 품목의 인도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본보다 빠른 한·인도 관세 철폐 스케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품목 또한 일본에 양허가 보다 유리하기 때문으로 향후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⁵⁷⁾

한편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3909),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3920), 폴리아미드(3908)의 경우 대세계경쟁력 강화와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품목으로 제품경쟁력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품목들 가운데 3908과 3909, 3926은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으로 한·인도 CEPA가 한국의 인도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3908과 3909 품목은 모두 한·인도 CEPA E-8 양허 품목이며, 3926의 경우 세부 품목 가운데 양허 품목(E-8)인 392690의 수출이 한·인도 CEPA 이후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920 품목은 한·인도 CEPA 양허 제외(EXC) 품목이다.

56) 한·인도, 일·인도 CEPA 협정 당시 HS 코드로 한국은 HS 2002, 일본은 HS 2007 기준임.

57) 이 품목의 경우 한국은 E-8 4개, E-5 4개, EXC 11개, 일본은 즉시철폐 2개, B10 15개, X 3개임.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390720의 경우 우리는 미양허인 반면, 일본은 B-10 양허 품목으로 2013년 이후 이 품목에서의 우리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수출은 증가세에 있음.

표 3-14. 한국의 주요 플라스틱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 (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 (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3904	1.27	0.93	-	7.63	3.99	-
3901	1.76	2.04	+	2.48	2.12	-
3907	2.81	2.79	-	3.36	3.64	+
3903	5.62	5.80	+	17.79	15.35	-
3902	2.96	3.20	+	5.86	2.83	-
3909	0.54	1.53	+	1.04	5.14	+
3906	1.83	2.72	+	4.60	4.27	-
3926	0.42	0.59	+	0.78	1.95	+
3920	1.15	1.52	+	2.13	2.13	+
3908	1.13	1.19	+	2.69	3.30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15. 플라스틱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3907	-	59%	X	한·인도 CEPA
	3909	세계경쟁력 개선	364%		한·인도 CEPA
	3926	세계경쟁력 개선	87%		한·인도 CEPA
	3920	세계경쟁력 개선	67%		미양허
	3908	세계경쟁력 개선	136%		한·인도 CEPA
경쟁력 약화	3904	세계경쟁력 악화	106%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1→0.3)	일·인도 CEPA
	3901	-	33%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1→0.5)	일·인도 CEPA
	3903	-	76%	(0.3→0.3)	일·인도 CEPA
	3902	-	83%	(1.4→0.8)	일·인도 CEPA
	3906	-	170%	(0.3→0.3)	일·인도 CEPA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 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 → 2017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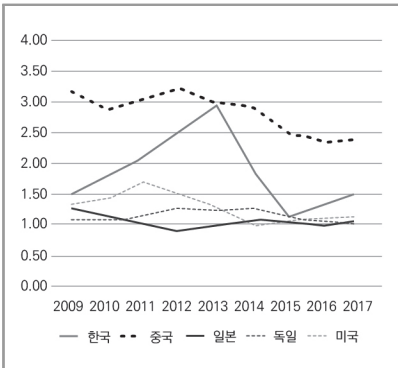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6) 유기화학품(HS 29)

유기화학품(29)에 대한 한국의 인도시장경쟁력은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주요국의 MCA 추이를 보면 중국, 일본은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미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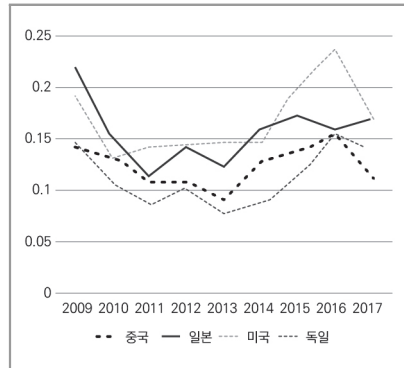
한편 2009년 이후 하락세에 있던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독일)과의 수출경합도는 201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 기준 수출경합도는 0.15 전후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림 3-17. 주요국의 유기화학품 MCA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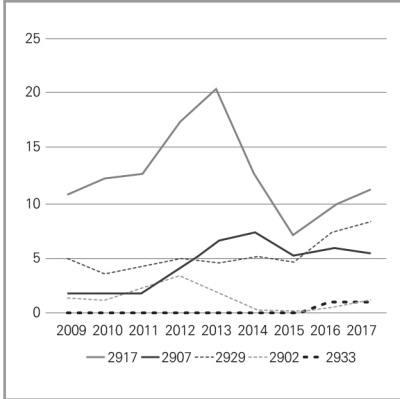
그림 3-18. 한국과 주요국의 유기화학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주요 유기화학 품목은 페놀과 페놀알콜(2907), 기타 질소관능화합물(2929),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니트릴 관능화합물(292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6)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세계시장경쟁력 또한 강화된 품목으로,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인도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3-19. 한국의 대인도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주: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7), 페놀과 페놀알콜(2907), 기타 질소관능화합물(2929), 환식탄화수소(2902),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니트릴관능화합물(292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6), 케톤 및 퀴논(2914), 비환식탄화수소(2901), 비환식알콜(2905).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16. 한국의 대인도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성장률
	2017	2017	2010-17
2917	295	31.7	-4.02
2907	106	11.3	24.40
2929	93	10.0	16.57
2902	88	9.4	6.32
2933	58	6.2	67.03
2926	50	5.4	56.56
2916	39	4.2	8.33
2914	38	4.1	3.82
2901	35	3.7	8.18
2905	33	3.6	7.05
전체	933	100	3.80

이 품목들 모두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으로 한·인도 CEPA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2907의 경우 우리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290711과 290719이 미양허나 양허 품목인 290723를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2916의 주요 수출품목인 291611과 291612이 각각 SEN, RED로 민감품목이며 291613, 291614이 미양허 품목이기는 하나, 일·인도 CEPA에서는 이 4개의 세부 품목이 모두 미양허인 점을 고려할 때, 한·인도 CEPA가 경쟁력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2929, 2933, 2926은 한·인도 CEPA 혜택으로 모두 현재 0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을 보면, 우선 29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7)의 경우 제품경쟁력 하락과 비관세조치, 인도의 경쟁력 강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화학산업은 세계 7위로 인도정부는 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많이 취하고 있으며, 29 품목은 인도가 가장 많은 비관세조치를 취한 품목으로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우리의 2917 수출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291736 품목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조치 이후 한국의 291736 대인도 수출은 2014년 40억 달러에서 2015년 12.4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5.5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2016년 8월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비관세조치를 취했는데, 이 영향 때문인지 2017년에는 수출이 11.5억으로 전년도의 약 2배로 증가했다. 한편 2917품목에 대한 인도의 대세계 수입은 2010년 대비 2017년 21.2% 감소했으며, 인도의 세계 경쟁력은 0.5에서 2.0으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인도시장 진입과 인도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의 케톤 및 퀴논(2914) 품목에 대한 대인도 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291411에 대한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4,000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우리 수출액의 70% 수준인 1.6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 품목에 있어 인도의 RCA 지수는 1.2였으나 3.2까지 상승했다.

비환식탄화수소(2901) 품목의 경우 인도시장에 대한 미국의 경쟁 심화가 경쟁력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901 수출은 2010년 6,200만 달러에서 2억 7,900만 달러로 34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73.35% 증가했다. 비환식알콜(2905)은 인도의 경쟁력 강화와 일·인도 CEPA가 우리의 대인도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905 품목은 한·인도 CEPA에서 모두 미양허인 반면, 일·인도 CEPA의 경우 일부 양허 품목이 존재한다. 특히 수출이 없었던 290542(일·인도 CEPA B10) 품목에 있어 일본의 대인도 수출이 2015년부터 발생하고 있다.⁵⁸⁾

58) 2917과 2914는 민감품목과 E-8 품목으로 한·인도 CEPA 혜택을 받고 있음. 2917의 경우 291719, 291732, 291736, 291737의 경우 SEN이고 나머지는 모두 E-8 양허 품목인 반면 일본은 이 4개의 품목은 미양허, 나머지는 B10 품목이고, 2914 또한 2917과 유사하게 한·인도 CEPA에서는 민감품목이고, 일·인도 CEPA에서는 미양허 품목임.

표 3-17. 인도의 대한국 및 대세계 유기화학품 비관세조치

제소일	조치 시작일	조치 종료일	조치	상품 분류	HS 코드
2013-04-04	2014-05-21	-	반덤핑	Methylene Chloride	29031200
2013-10-08	2015-05-27	-	반덤핑	Purified Terephthalic Acid	29173600
2014-10-15	2016-03-08	-	반덤핑	Phenol	29071110
2014-11-20	2016-03-29	-	반덤핑	2-Ethyl Hexanol	29051620
2016-10-05		-	반덤핑	Toluene Di-isocyanate (TDI)	292910
2017-06-01		-	반덤핑	Dioctyl phthalate (DOP)	291739

자료: WTO i-tip(검색일: 2018. 10. 5).

표 3-18. 한국의 주요 유기화학품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2917	8.26	7.42	-	12.07	11.07	-
2907	2.20	4.06	+	1.68	5.48	+
2929	4.78	5.10	+	3.54	8.31	+
2902	4.25	6.98	+	1.24	1.17	-
2933	0.15	0.24	+	0.09	1.00	+
2926	1.92	2.48	+	0.28	3.95	+
2916	1.02	1.37	+	1.57	1.66	+
2914	0.52	1.41	+	2.78	2.20	-
2901	2.61	4.03	+	1.90	1.46	-
2905	1.03	1.09	+	0.48	0.43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19. 유기화학품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2907	세계경쟁력 개선	36.5%	X	한·인도 CEPA (일부 주요 품목 미양허)
	2929	세계경쟁력 개선	20.2%		한·인도 CEPA
	2933	세계경쟁력 개선	215.1%		한·인도 CEPA
	2926	세계경쟁력 개선	54.7%		한·인도 CEPA
	2916	세계경쟁력 개선	60.2%		주요 품목 한·인도 CEPA 미양허 및 민감품목
경쟁력 약화	2917	세계경쟁력 약화	-21.2%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5→2.0)	*반덤핑조치 한·인도 CEPA
	2902	-	56.4%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2.4→3.1)	한·인도 CEPA (일부품목 제외)
	2914	경쟁심화(중국)	58.7%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1.2→3.2)	한·인도 CEPA (일부 주요 품목 미양허)
	2901	경쟁심화(미국)	117.1%	(0.9→0.7)	한·인도 CEPA
	2905	-	73.2%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5→0.8)	일·인도 CEPA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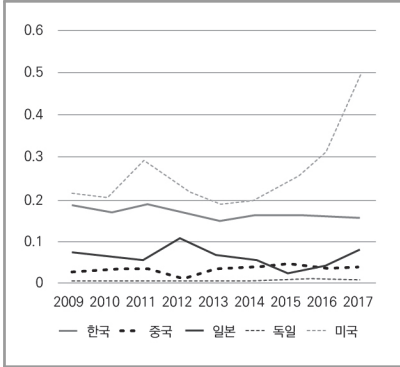
7)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HS 27)

한국을 비롯해 비교 대상인 중국, 일본, 독일, 미국의 27 품목 MCA는 모두 1 미만으로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품목에 대해 이들 국가는 인도시장에서 모두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7 품목에 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한 인도의 주요 수입국에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UAE, 남아공 등 산유국이 있으며, 이들 산유국이 인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 품목에 있어 한국-독일의 경합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인도 27 품목 수출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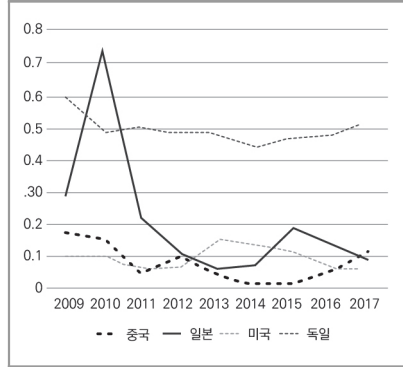
아니한 조제품(2710) 가운데 특히(271019)에 90% 집중되어 있으며, 독일 또한 이 품목에 27 품목의 전체 수출 가운데 50% 내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⁹⁾

그림 3-20. 주요국의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MCA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1. 한국과 주요국의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 수출경합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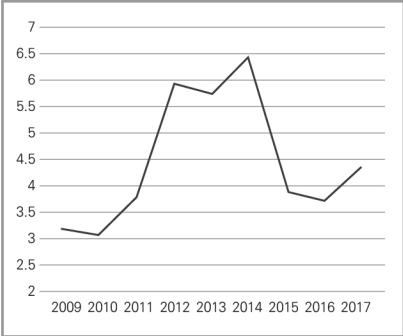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710)의 인도 시장 경쟁력은 2009년 이후 상승세에 있었으나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7년 소폭 상승했다. 한편 이 품목에 대한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0년 9.7%에서 2017년 16%까지 확대되었다.

이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배경에는 한국의 제품 경쟁력 개선과 함께 한·인도 CEPA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271019는 한·인도 CEPA 민감품목(SEN)으로 CEPA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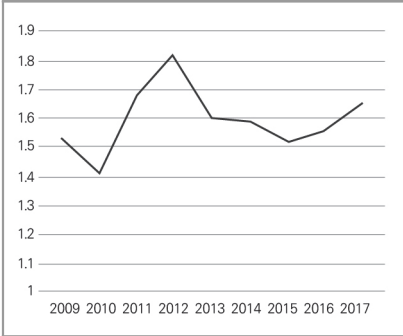
59) 271019는 기타 제품으로 제트 연료유, 등유, 항공기 및 자동차용 기관오일 등을 포함.

그림 3-22. 2710의 한국의 대인도 MCA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3. 2710의 한국의 RCA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2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710) 경쟁력 변동 요인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2710	세계경쟁력 개선	-33.7%	X	한·인도 C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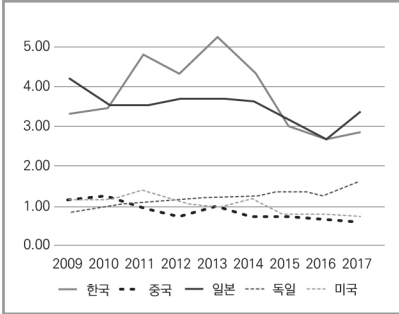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산업 수요/구조의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임.
 자료: 저자 작성.

8) 고무 및 관련제품(HS 40)

한국의 인도시장에 대한 고무 및 관련제품 MCA 지수는 2013년 5.2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7년 2.9까지 하락했다. 반면 2016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던 일본의 MCA 지수는 2017년 크게 증가했다. 한편 독일의 MCA 지수는 증가세에 있으며, 중국과 미국은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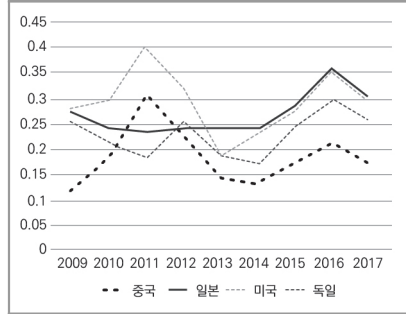
한국은 2017년 기준 고무 및 관련제품에 대해 인도시장에서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경합관계에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국가와의 경합도는 0.1과 0.4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4. 주요국의 고무 및 관련제품 M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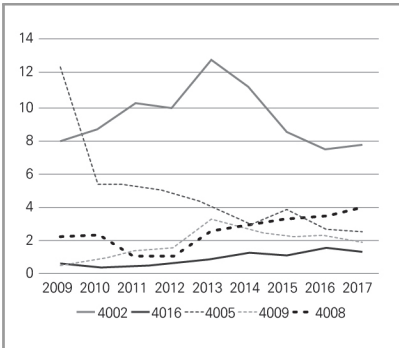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5. 한국과 주요국의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6. 한국의 대인도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주: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4002),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4016),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4005), 관·파이프 및 호스(4009), 판·시트·스트립·봉 및 형재(4008),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4010), 공기타이어(401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21. 한국의 대인도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성장률
	2017	2017	2010-17
4002	262	82.7	-0.97
4016	26	8.1	23.25
4005	10	3.0	8.49
4009	9	2.7	17.42
4008	4	1.1	15.50
4010	4	1.1	-0.84
4011	4	1.1	-3.51
전체	317	100	0.53

우리의 고무 및 관련품목의 대인도 수출은 82%가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4002)로 이 품목의 경쟁력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4002는 인도의 대세계 수입이 둔화된 품목이자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은 증가한 품목이다. 한편 인도는 이 품목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4005)와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4010), 공기타이어(4011)는 한국의 제품경쟁력 악화와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강화가 한국의 대인도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05에 대한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은 0.1에서 0.3으로 증가했으며, 4010과 4011의 2010년 인도의 RCA 지수는 각각 0.9, 0.9로 비교열위 품목이었으나 2017년 RCA 지수는 각각 1.2와 1.3으로 비교우위 품목으로 경쟁력이 강화됐다. 한편 4005의 품목 경우 태국과의 경쟁 심화 또한 한국의 인도시장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400510에 대한 태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은 2010년 7%에서 2017년 35.8%까지 확대되었다. 4011의 경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장벽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인도의 기술 규제(TBT) 사례인 타이어 인증 문제가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타이어(401110, 401120)의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표 3-22. 인도의 대한민국 고무 및 관련제품 비관세조치

제소일	조치 시작일	조치 종료일	조치	상품 분류	HS 코드
2016-01-14	2017-08-30	-	반덤핑	Styrene butadiene rubber	400219
2016-09-16	-	2017-12-11	반덤핑	Polybutadiene rubber	400220

자료: WTO i-tip(검색일: 2018. 10. 5).

60) 2011년 5월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마크를 타이어에 각 인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 타이어 업계의 수출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음. 이에 한국은 일본, EU와 함께 인도의 타이어 인증 규제 관련 사안을 STC로 제기하여 BIS의 해외 제조업체 인증제도(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의 개정 내용 중 ① 인도 BIS 인증마크 각인 제품의 인도 외 지역 판매금지 ② 인증 비용 이외에도 생산량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③ 1년 인증 유효기간 폐지 혹은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BIS 인증 마크 각인 제품의 인도 외 지역 판매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ISI 마크가 새겨진 타이어를 인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던 내용을 철회하고 해외 지역 판매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의 규제를 수용·이행하는 상황임(이웅 외 2016, pp. 73~74).

표 3-23. 한국의 주요 고무 및 관련제품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4002	3.73	3.98	+	8.57	7.70	-
4016	0.36	0.71	+	0.48	1.41	+
4005	0.36	0.68	+	5.39	2.51	-
4009	0.45	0.68	+	0.89	1.84	+
4008	0.35	0.32	+	2.35	3.90	+
4010	0.33	0.33	-	1.88	1.29	-
4011	1.50	1.37	-	0.32	0.23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24. 고무 및 관련제품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4016	세계경쟁력 개선	41%	X	한·인도 CEPA 양허 (일부 제외)
	4009	세계경쟁력 개선	43%		주요수출품목 한·인도 CEPA 미양허 (400931, 400941)
	4008	세계경쟁력 개선	59%		한·인도 CEPA 양허 (일부 제외)
경쟁력 약화	4002	-	인도의 대세계 수입 둔화 0%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1→0.2)	*반덤핑 주요수출품목 한·인도 CEPA 양허 제외
	4005	경쟁심화(태국)	265%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1→0.3)	한·인도 CEPA 양허
	4010	세계경쟁력 약화	32%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9→1.2)	한·인도 CEPA 양허 (일부 제외)
	4011	세계경쟁력 약화	6%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9→1.3)	*TBT 규제 주요 수출 품목 한·인도 CEPA 미양허(401110, 401120)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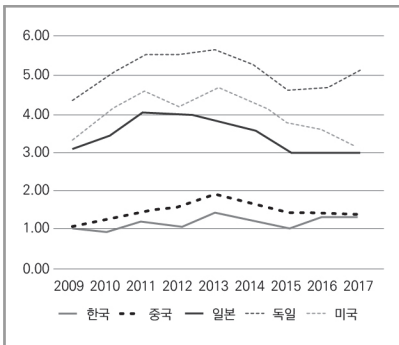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고무 및 관련제품 가운데 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은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4016), 관·파이프 및 호스(4009),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4008)로 이 품목들은 모두 한국의 대세계경쟁력이 개선된 품목들이다. 또한 이 가운데 4016와 4008은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으로 한·인도 CEPA 관세 혜택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9) 정밀기기(HS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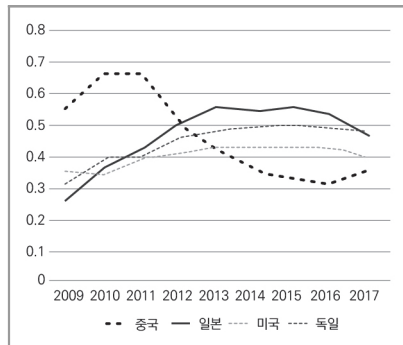
한국의 정밀기기에 대한 대인도경쟁력 추이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한편 기존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과 주요국의 경합도를 보면 중국과의 경합도는 낮아진 반면 독일, 미국, 일본과의 경합도가 상승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대인도 정밀기기 수출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기술 품목에서 고기술 품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7. 주요국의 정밀기기 MC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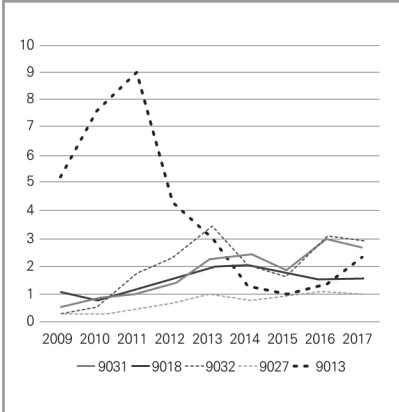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8. 한국과 주요국의 정밀기기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그림 3-29.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정밀기기 수출 품목 MCA 추이(HS 4단위)



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31),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9018),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9032),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9027), 액정 디바이스(9013), 방사선 기기(9022), 정형외과용의 기기(9021),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26), 광섬유와 광섬유다발(9001), 속도계와 회전속도계(9029).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표 3-25. 한국의 대인도 주요 정밀기기 수출 현황(HS 4단위)

품목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17	2017	2010-17
9031	91.05	24.0	26.6
9018	79.79	21.1	17.6
9032	79.73	21.0	41.8
9027	38.33	10.1	27.3
9013	33.92	9.0	-11.4
9022	16.14	4.3	18.6
9021	11.37	3.0	21.9
9026	10.50	2.8	18.3
9001	3.69	1.0	-3.1
9029	3.45	0.9	13.0
전체	2.49	100	12.6

인도의 정밀기기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31),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9018),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9032),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9027), 방사선 기기(9022), 정형외과용의 기기(9021),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26)로 이 품목들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인도의 기준세율이 0인 9027과 9026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으로 한·인도 CEPA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9031, 9018, 9032, 9022, 9021의 품목은 한·인도 CEPA E-0, E-5, E-8 양허 품목으로 현재 한·인도 CEPA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속도계와 회전속도계(9029)의 경우 대세계경쟁력은 악화되었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강화된 품목으로 인도시장경쟁력 강화는 한·인도 CEPA의 영향으로 보인다.

9029의 하위 품목인 택시미터, 속도계등의 완제품(902910, 902920)은 한·인도 CEPA의 미양허 품목인 반면 그 부분품(902990)은 E-8 품목으로 양허 혜택을 받고 있는데, 9029 품목의 대인도 수출은 902990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9029가 자동차 부품인 속도센서, 회전센서 등을 포함한 부분품과 부속품(902990)의 수출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자동차부품의 현지 생산 확대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⁶¹⁾

주요 정밀기기 품목 가운데 경쟁력이 악화된 품목은 액정 디바이스(9013)와 광섬유와 광섬유다발(9001)로 이들 품목은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이자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품목이다.⁶²⁾ 9001은 또한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인도 시장에 대한 한국 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6. 한국의 주요 정밀기기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9031	0.88	1.94	+	0.84	2.68	+
9018	0.36	0.42	+	0.74	1.57	+
9032	0.33	0.69	+	0.51	2.91	+
9027	0.24	0.51	+	0.30	0.95	+
9013	10.09	6.51	-	7.60	2.32	-
9022	0.40	0.76	+	0.42	0.74	+
9021	0.12	0.22	+	0.31	0.68	+
9026	0.15	0.23	+	0.60	1.65	+
9001	3.88	3.62	-	1.30	0.53	-
9029	0.48	0.17	-	1.24	1.79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61) 902990의 경우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으로 분류됨. 미상무부 Revised(2018. 7. 26), <https://www.trade.gov/td/otm/assets/auto/APcodes.pdf>(검색일: 2018. 10. 5).

62) 9001와 9013의 2010년 대비 2017년 우리의 대인도 수출은 각각 -19.9%, -57%,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각각 187%, 126%의 증가율을 기록함.

표 3-27. 정밀기기 세부 품목별 경쟁력 변동 요인(주력품목)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9031	세계경쟁력 개선	58%	X	한·인도 CEPA
	9018	세계경쟁력 개선	42%		한·인도 CEPA
	9032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증가(93%)		한·인도 CEPA
	9027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증가(66%)		무관세
	9022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증가(79%)		한·인도 CEPA
	9021	세계경쟁력 개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증가(75%)		한·인도 CEPA
	9026	세계경쟁력 개선	14%		무관세
	9029	세계경쟁력 악화	57%		한·인도 CEPA
경쟁력 악화	9013	경쟁심화(중국)	35%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강화 (0.1→0.2)	주요 수출 품목(90138010) 무관세
	9001	세계경쟁력 악화	89%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강화 (0.4→0.8)	한·인도 CEPA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나. 수출잠재 품목

제2장 [표 2-18] 한국의 대인도 잠재품목(비주력품목 한정) 12개의 인도시장 내 경쟁력을 보면, 잠재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인도의 대세계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율보다 큰 품목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잠재품목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품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에 코크스 및 레토르트카본(2704)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경쟁력이 모두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잠재품목의 수출경쟁력 변화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³⁾

우선 인혈, 치료용 동물 피, 면역혈청 등(3002),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등(4001), 불꽃점화식의 왕복식·로터리식 피스톤식 내연기관(8407), 고무·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 기계(8477), 방적준비기계 등(8445), 의자 외 가구 및 부분품(9403)의 경우 인도의 대세계경쟁력이 개선된 품목들로 인도 현지생산 확대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8407과 8445의 경우 인도의 RCA는 2010년 1미만으로 세계시장에서 비교열위 품목이었으나, 2017년 비교우위 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으로 인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 이 품목의 인도 현지생산 확대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리의 선(7408)의 경우 우리 주요수출품목 740811과 740819는 미양허인 반면 일본은 B10 양허 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으로 일·인도 CEPA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구리의 선(7408), 불꽃점화식의 왕복식·로터리식 피스톤식 내연기관(8407), 사무용기계 부분품과 부속품(8473), 고무·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 기계(8477), 의자 외 가구 및 부분품(9403) 등의 경우 한국의 대세계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품목으로 대세계경쟁력 악화가 인도시장 내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수 지·판지(4707), 귀석 및 반귀석(7103), 방적준비기계 등(8445), 자동자료처리기계 등(8471)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세계경쟁력은 상승했지만,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대상국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품목들은 RCA 1미만의 비교열위 품목들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63) 2704 품목의 경우 제2장과 본 장의 비교기준이 달라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제2장에서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반면 제3장에서는 2010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경쟁력지수를 비교함. 한국은 2704 품목에 대해 인도에 2011년, 2013년, 2017년에만 수출을 하였으며, 이에 수출이 0이었던 2010년보다 수출이 존재하는 2017년의 MCA 지수가 크게 나타남.

을 갖고 있지 않아 인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장에서 도출한 수출 잠재품목 12개 가운데 10개는大世界 수출 비교열위 품목이며,大世界 수출 비교우위에 있는 2개 품목의 경우 경쟁력이 감소한 품목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도출한 잠재품목은 코크스 및 레토르트카본(2704), 인혈, 치료용 동물 피, 면역혈청 등(3002), 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등(4001) 등 RCA 1미만 제품들이 대다수이며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특히 2704, 7103 등 품목은 우리나라의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큰 수입특화 품목으로 이 품목이 인도시장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12개 품목 가운데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RCA 1이상)를 가

표 3-28. 한국의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 수출경쟁력 변화(HS 4단위, 2010 vs. 2017)

품목	세계시장경쟁력(RCA 지수)			인도시장경쟁력(MCA 지수)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2704	0.01	0.06	+	0.00	0.13	+
3002	0.12	0.32	+	1.46	0.61	-
4001	0.02	0.02	+	0.01	0.00	-
4707	0.15	0.29	+	0.01	0.00	-
7103	0.05	0.06	+	0.00	0.00	-
7408	1.97	1.25	-	9.57	0.29	-
8407	0.61	0.60	-	3.40	1.60	-
8445	0.48	0.49	+	0.65	0.29	-
8471	0.33	0.57	+	0.24	0.14	-
8473	2.19	2.03	-	0.36	0.25	-
8477	0.83	0.74	-	1.15	0.92	-
9403	0.06	0.06	-	0.24	0.07	-

주: (반성)코크스 및 레토르트카본(2704), 인혈, 치료용 동물 피, 면역혈청 등(3002),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 등(4001), 화수 지·판지(4707), 귀석 및 반귀석(7103), 구리의 선(7408), 불꽃점화식의 왕복식·로터리식 피스톤식 내연기관(8407), 방적준비기계 등(8445), 자동자료처리기계 등(8471), 사무용기계 부분품과 부속품(8473), 고무·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 기계(8477), 의자 외 가구 및 부분품(9403).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5).

지고 있는 품목은 구리의 선(7408)과 사무용기계 부분품과 부속품(8473)에 불과한데 이 두 품목의 세계시장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 품목 또한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3-29. 한국의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 경쟁력 변동 요인

	품목	경쟁우위 변화	산업/수요 구조요인	로컬생산/조달	관세 및 비관세
경쟁력 강화	2704	세계경쟁력 개선	90.9%		한·인도 CEPA
경쟁력 약화	3002	-	101.3%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2→0.3)	한·인도 CEPA
	4001	-	18.4%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1→0.3)	주요수출품목 미양허
	4707	경쟁심화(미국, 독일)	56.5%	(0→0)	한·인도 CEPA
	7103	경쟁심화(미국, 일본)	611.6%	(4.3→3.6)	한·인도 CEPA (일부 품목 무관세)
	7408	세계경쟁력 악화	328.3%	(1.6→0.7)	일·인도 CEPA
	8407	세계경쟁력 악화	43.2%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2→1)	주요수출품목 미양허
	8445	경쟁심화(중국)	1.6%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6→3.9)	한·인도 CEPA
	8471	경쟁심화(중국)	111.4%	(0.1→0)	무관세
	8473	세계경쟁력 악화	1.0%	(0.1→0.1)	무관세
	8477	세계경쟁력 악화	20.2%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5→0.6)	한·인도 CEPA
9403	세계경쟁력 악화	56.8%	인도의 대세계경쟁력 증가 (0.3→0.5)	한·인도 CEPA	

주: 1) 음영 항목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2) %는 인도의 2010년 대비 2017년 대세계 수입변화율이며, ()는 인도의 RCA 지수로 2010→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품목에 대해 HS 2단위 기준 수출경쟁력(MCA)과 수출경합도(ESI)를 살펴보았으며, HS 4단위 기준으로 수출경쟁력 변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HS 4단위 기준으로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수는 한국제품의 세계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경쟁력은 하락한 품목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의 인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품목들에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기기, 기계, 정밀기기 주요 품목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줄었으며, 그 결과 전기기기(85)와 기계(84), 정밀기기(90) 등 품목의 인도시장 내 한·중 경합도가 하락하는 반면 독일, 일본, 미국 등 품질위주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들과 한국의 경합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관련 품목(87)은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인도 현지생산 확대와 연관이 있는데,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 대부분 한·인도 CEPA 미양허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관세 인상 등과 같은 조치가 확대되면서 한국기업은 수출보다 인도 현지생산 및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플라스틱 품목(39)의 대인도경쟁력 하락은 일·인도 CEPA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플라스틱 품목 대부분은 한국의 대세계경쟁력이 개선된 품목들로, 이들 품목은 모두 일·인도 CEPA 양허가 한·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화학(29) 및 고무(40), 철강(72)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우리

제품의 인도시장경쟁력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관세 부과, 타이어 제품에 대한 TBT 조치 등의 비관세조치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관세조치는 산업육성을 위한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현지생산 확대와 연관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29, 39, 40 등) 및 철강의 현지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비관세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표 3-30. 한국의 대인도경쟁력 하락 요인과 대표 품목

요인	주요 품목	HS 4단위 품목
중국과의 경쟁 심화	전기기기(85)	TV, 라디오 등 부품(8529) 절연전선, 케이블(8544) 무선전화기 부품(851770)
	기계(84)	금속주조용 주형틀(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8479) 진공펌프, 후드(8414)
	정밀기기(90)	액정 디바이스(9013)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9001)
일·인도 CEPA	플라스틱(39)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3904) 에틸렌의 중합체(3901) 스티렌의 중합체(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3902) 아크릴의 중합체(3906)
비관세조치	철강(72)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9)
	유기화학품(29)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7)
	고무(40)	공기타이어(4011)
현지화	자동차 부품(87)	부분품과 부속품(8708)
	철강(72)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9)
	유기화학품(29)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2917)
	고무(40)	공기타이어(4011)

자료: 저자 작성.

수출경쟁력 강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세계경쟁력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세계경쟁력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일부 품목의 경우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으로 CEP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장에서 도출한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2장에서 도출한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으로 대인도 수출 잠재품목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K

PM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3.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3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애로요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설문조사 분석은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정성적으로 추정했거나 추정이 어려웠던 품목별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을 설문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더불어 품목별 분석 시 인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애로사항과 사례를 함께 제시해 설문조사를 보완했다. 본 장의 1절 개요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정보와 특징을 제시하고, 대인도 수출에 대한 기업 평가(감소 및 정체, 증가)에 따라 분류해 분석대상을 명시했다. 2절에서는 앞서 분류한 대인도 수출이 감소했거나 정체되었다고 평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적, 내부적 요인을 분석했으며, 특히 품목별로 세분화해 요인의 이질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3절은 소결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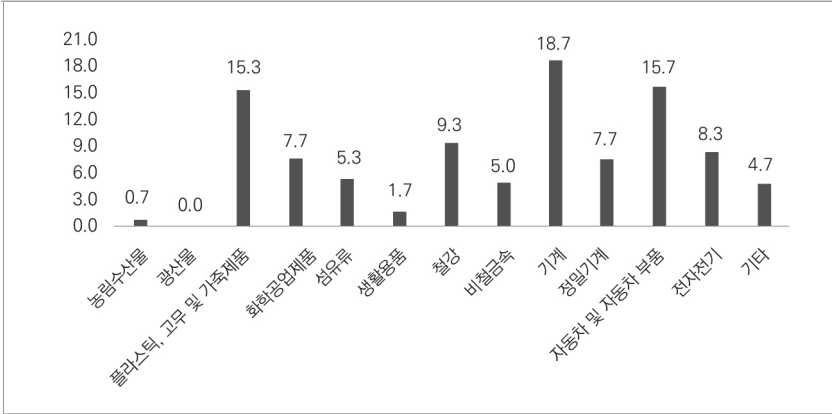
1. 설문조사 개요

가. 응답기업 특성

먼저 응답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계 및 정밀기계 분야 응답률이 26.4%(79개)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자동차 부품 15.7%(47개), 화학공업제품 15.3%(46개), 철강 9.3%(28개), 전기기기 8.3%(25개), 플라스틱 7.7%(23개), 섬유 5.3%(16개), 비철금속 5%(15개)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외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타 분야에 속한 기업이 있었지만 응답 비율은 전체 7%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주력 산업에 속하지 않는 분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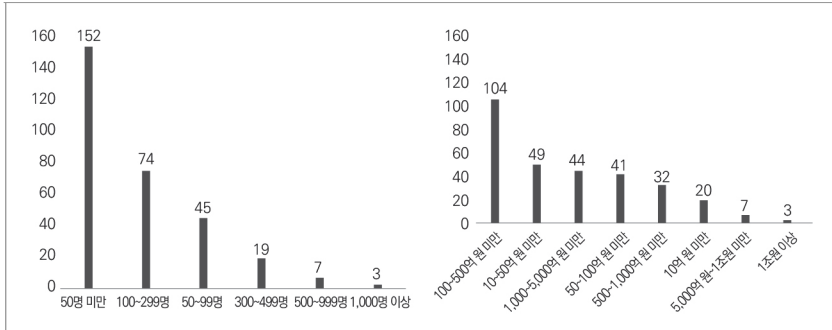
그림 4-1. 설문응답기업 산업별 분포

(단위: %)



주: 30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2. 응답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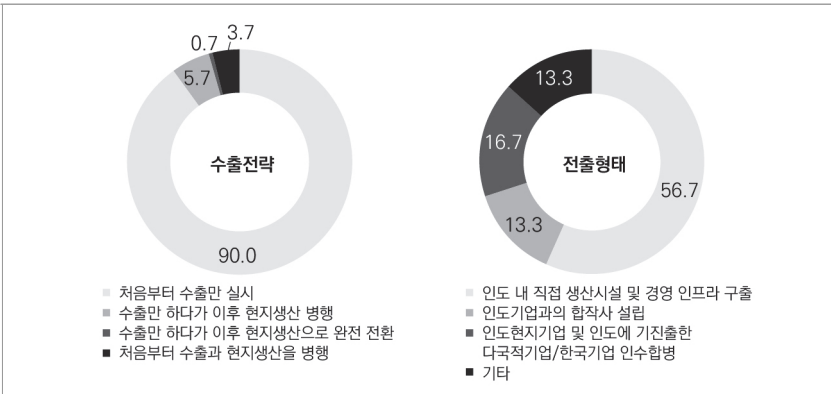
주: 30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기업 규모의 경우, 고용 기준으로 총 300개 응답기업 중 절반가량인 152개 기업이 고용인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었으며, 50명 이상~300명 미만 기업이 119개, 나머지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연매출 50억 원 미만이 69개, 50~500억 원 미만 145개, 나머지는 5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에 응답한 대인도 수출기업은 고용인원 300명 미만,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270개 업체는 순수 수출만 하는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0개 기업은 인도 현지에 직접 생산시설 및 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진출(56.7%)했거나, 인도기업과의 합작사 설립(13.3%), 또는 인도 로컬기업 및 인도 진출 한국기업과의 인수합병(16.7%)을 통해 진출했다. 한편 30개 기업 중 18개 기업은 수출만 하다가 이후 현지생산으로 전환, 병행하고 있으며 10개 기업은 진출 초기부터 수출과 현지생산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90%는 인도에 수출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인 30개 기업만 현지에 진출해 수출과 현지생산을 병행하거나 완전히 현지화로 전환했다. 진출기업의 56.7%는 그린필드 형태로 인도에 직접 생산시설 및 경영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16.7%는 인도 로컬기업이나 현지진출 한국기업, 다국적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수출전략 변화 및 진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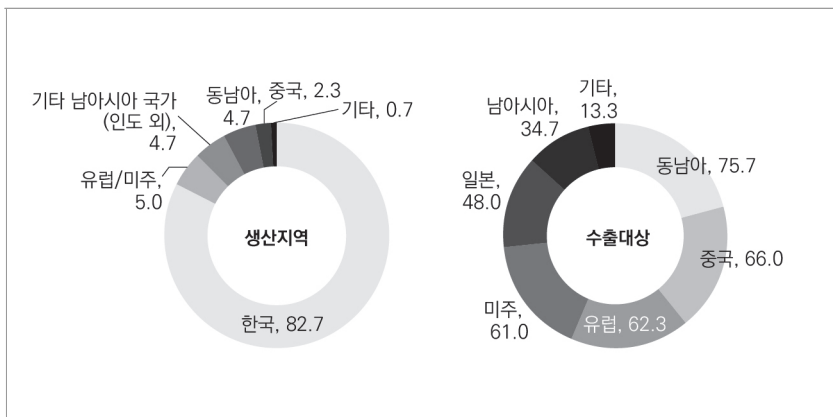


주: 30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82.7%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 인도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를 제외한 해외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약 17%에 불과했다. 우리 기업들은 인도와 함께 동남아, 중국, 유럽, 미주, 일본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동남아의 비중이 75.7%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66%, 유럽 62.3%, 미주 61%, 일본 48%가 뒤를 이었다.

그림 4-4. 생산지역 및 수출대상



주: 30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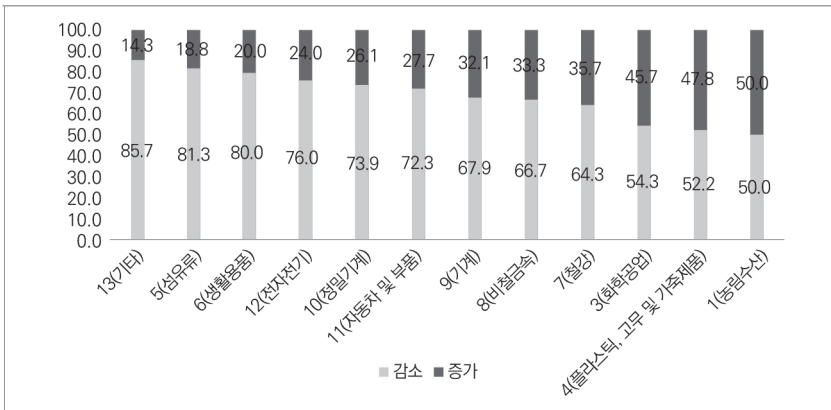
나. 대인도 수출 평가 및 분류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개 기업 중 최근 대인도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기업과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그룹화하고 각각 해당 현상에 대한 요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수출정체 또는 수출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총 300개 응답기업 중 67.6%에 이르는 203개 기업이 최근 대인도 수출이 감소했거나 정체되었다고 응답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

쟁력이 어떤 이유에서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현상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SIC 기준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 전기기기, 정밀기계,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비철금속, 철강 분야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반면 화학공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분야에서는 응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⁶⁴⁾

그림 4-5. 산업별 대인도 수출평가 응답률

(단위: %)



주: 산업분류는 SIC 기준(SIC번호).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흥미로운 점은 대인도 수출이 정체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 대부분이 인도의 주력 수입 품목이자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2장,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도 전체 수출의 약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 품목들의 대인도 수출 감소 및 정체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인도 수출경쟁력 저하를 견인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

64) 응답 샘플수가 적은 농림수산, 생활용품 분야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출경쟁력의 내·외부 요인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해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⁶⁵⁾ 또한 대인도 수출 감소 및 정체 요인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 요인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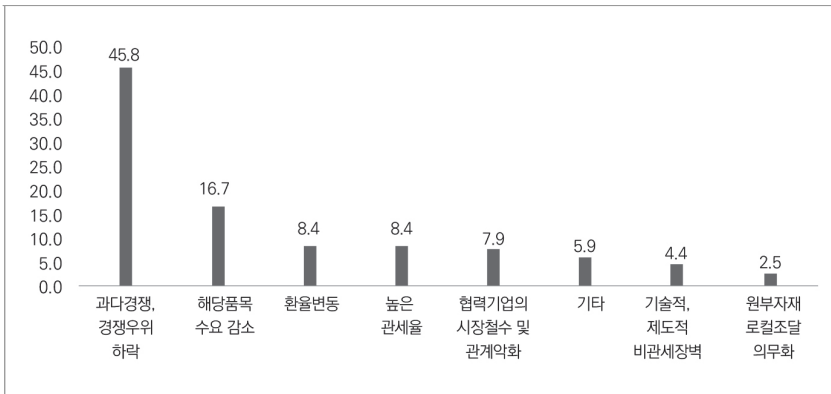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가.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인도 수입시장 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우위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저하가 경

그림 4-6.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단위: %)



주: 총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65) 제2장과 제3장에서 도출한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 중 주력 산업군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설문조사 참여 샘플이 적어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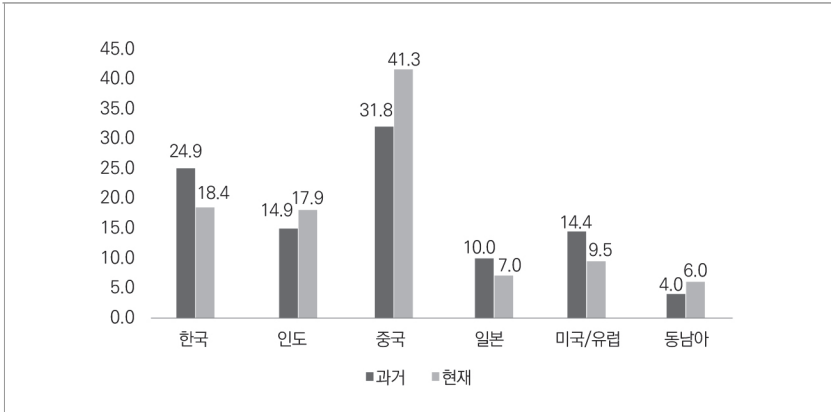
기 순환적, 또는 통상환경 변화, 제도적 요인보다는 인도의 산업구조 및 수입수요 변화에 따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져 가격, 품질 경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경쟁요인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기업의 최대 경쟁상대는 중국기업이다. 중국기업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응답률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약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과거에 비해 비중은 높지 않지만 동남아기업과의 경쟁 역시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반면 한국, 일본, 미국/유럽 기업과의 경쟁은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다. 이는 일본 및 미국/유럽 기업들의 경우 수출품목의 고부부가치화나 현지화로 인도 수입시장 내 우리 기업과의 경합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4-7. 인도시장 내 경쟁구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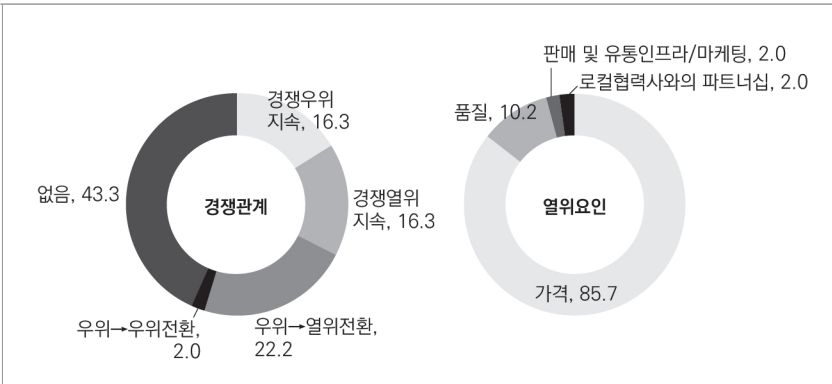


주: 각각 191개, 20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38.5%는 현재 인도 수입시장에서 자신들이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22.2%가 과거 경쟁우위에서 열위로 전환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최근 인도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응답기업의 85.7%가 열위 요인으로 가격 부분을 지적해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전체 응답의 10.2%는 열위 전환 요인으로 품질 부분을 지적했다.

그림 4-8. 경쟁관계 변화 및 열위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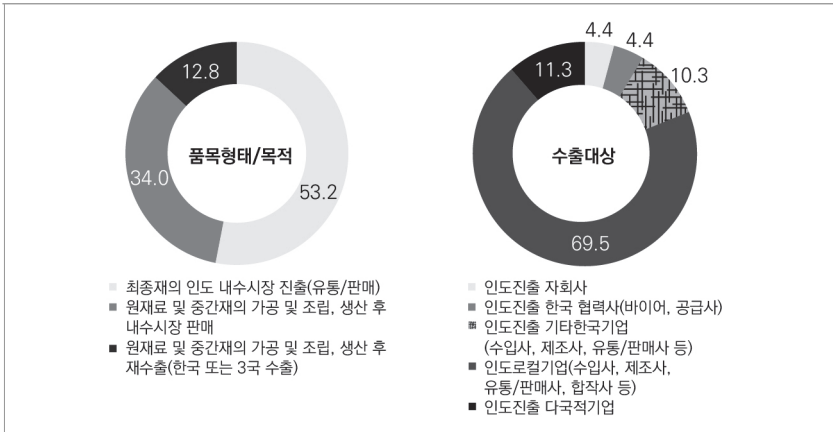
주: 각각 203개, 49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53.2%)은 인도 내수시장을 목표로 최종재(소비재, 자본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인도 내 생산 후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원재료 및 중간재를 가공, 조립하기 위한 목적은 34%, 재수출을 위한 목적은 12.8%였다. 최종재 수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던 만큼, 앞서 열위 요인으로 지적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부분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생산 후 수출한 최종재는 인도 소비시장에서 가격은 중국, 품질은 일본이나 미국/유럽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66) 특히 응답기업의 약 80%가 수출대상이 인도 로컬기업이나 인도 진출 다국적 기업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품목 형태와 상관없이 경쟁열위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둔화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67)

그림 4-9. 수출품목 형태 및 대상

(단위: %)



주: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2) 통상환경 및 제도적 요인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양허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응답기업의 91%가 인도의 관세율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56%)이거나 오히려 인도가 더 높다고(35%) 지적했다.68) 이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113개)이 CEPA 양허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 관세인하 효

66) 중국기업은 중국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미국/유럽 기업은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가격은 물론, 품질경쟁력까지 한국기업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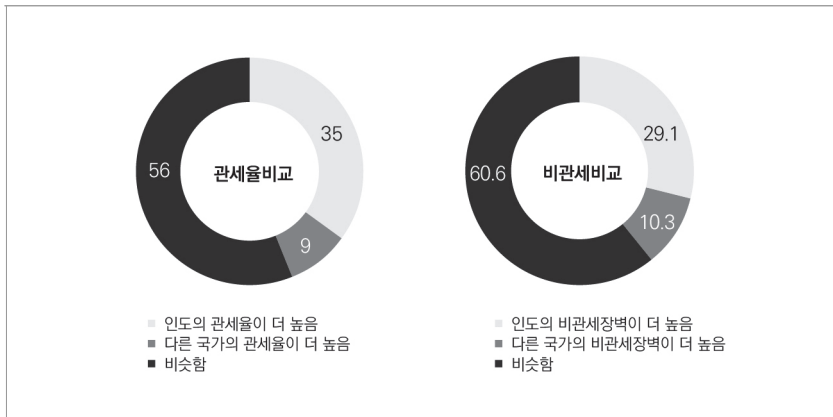
67) 원재료 및 중간재 수출 응답기업의 72%, 최종재 수출 응답기업의 92%가 인도 로컬기업 및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에 수출한다고 응답함.

68) 비교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유럽 등임.

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출 품목이 CEPA 양허 대상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관세철폐,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체감하는 현상일 수 있다.⁶⁹⁾

그림 4-10. 인도 수입 관세 및 비관세 평가

(단위: %)



주: 각각 203개, 16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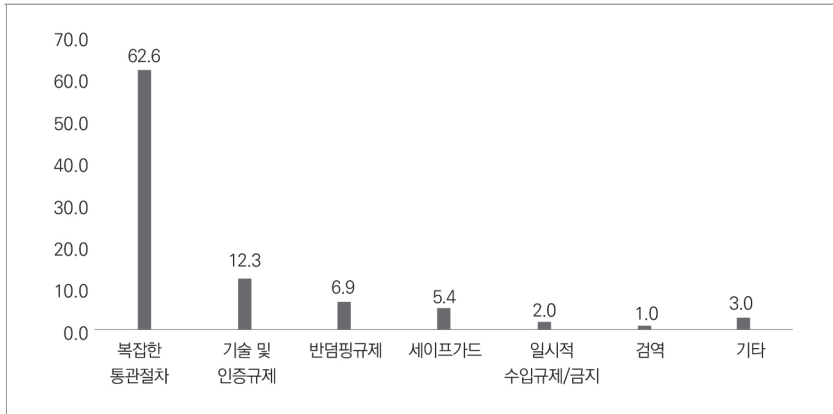
한편 우리수출기업들의 인도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거나(29.1%) 비슷하다는 응답률(60.6%)이 높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관세장벽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소요되는 비관세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⁷⁰⁾ 우리수출기업들이 경험한 비관세장벽으로는 인도의 복잡한 통관환경(62.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련한 구체적 사례로는 통관 지연, 복잡한 서류 절

69) 실제 전체 203개 기업 중 89개 기업이 CEPA 양허 대상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이 CEP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제5장에서 다룬다.

70)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갈수록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차, 불필요한 증빙서류 중복 요구(원산지 증빙), 금전 요구, 임의적인 HS 코드 분류, 통관심사의 비밀관성, 제품인증시간 소요, 물류시간 소요 등이 지적되었다.

그림 4-11. 비관세장벽 종류



주: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글상자 4-1. 인도의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현황

□ 인도정부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요 조치 사례

- 통관절차 지연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인 과도한 물류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을 도입
-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통관 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발생
-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가격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본 조치가 해당되는 분야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혜택이 한정되어 있음.
-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범위는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0, 인도 델리,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KIEP 2명 참석).

□ 현지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 인도 델리에 사업부를 둔 국내 섬유사업 법인은 스판덱스 원자재를 베트남에서 대부분 수입해 인도에서 판매하고 있음.
- 하지만 2017년 인도정부에서 kg당 36센트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이에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 현재 오랑가바드 지역에 섬유생산시설(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완공 시 비용절감 이점을 통해 연간 1억 5,000만 달러 매출이 기대됨.
- 최근 인도에서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과도한 비관세장벽을 통해 해외조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인도로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방법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방법임.
- 현지화나 우회생산 및 조달방법 중 무엇이 이득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기업들의 개별 상황에 맞춰 전략을 취해야 하는 상황임.
- 다만, 인도의 내수시장 진출이 보다 큰 목적이라면 현지화가 적합하겠으나 단순 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이 목적이라면 베트남이 더 경쟁력이 있음. 인도의 경우 원자재, 기타 비용 등에서 베트남보다 딱히 이득은 없음.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0, 인도 델리,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KIEP 2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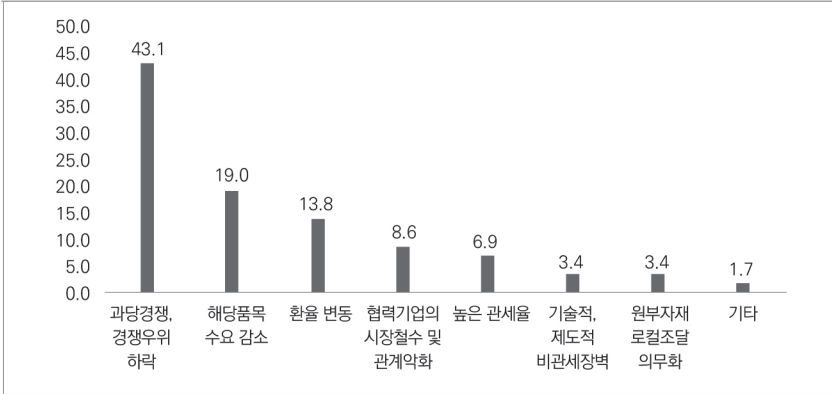
3) 품목별 요인

□ 기계류(HS 84) 품목

대인도 기계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3.1%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다. 이밖에 해당품목의 수요 감소(19%), 환율변동(13.8%), 협력기업의 시장철수 및 관계악화(8.6%) 등이 뒤를 이었다. 샘플수가 다소 부족하지만 과당경쟁을 지적한 기업 중 세부 수출 품목이 HS 8479(부품기계, 금속공작, 제지인쇄기계, 하역기계 등)와 HS 8480(금형기계)인 기업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위 품목들은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한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 중 최근 경쟁열위(인도 수입증가율 > 우리의 대인도 수출증가율)로 분류된 품목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인도시장 내 경쟁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기계류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4-12. 대인도 기계류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단위: %)



주: 총 58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관련하여 위 세부 품목 포함, 우리나라의 대인도 기계류 수출기업들은 인도 시장 내 중국(39.7%)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다. 이로 미루어볼 때 기계류 중 주로 비교적 저부가 또는 저기술집약적 품목에서 중국과의 가격경쟁에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⁷¹⁾ 다만 과거에 비해 한국 및 인도 로컬기업, 그리고 선진국기업과의 경쟁은 소폭 감소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앞서 언급한 HS 8479와 HS 8480 품목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한국기업과, 미국/유럽 기업을 경쟁상대로 지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내 경쟁이 비단 중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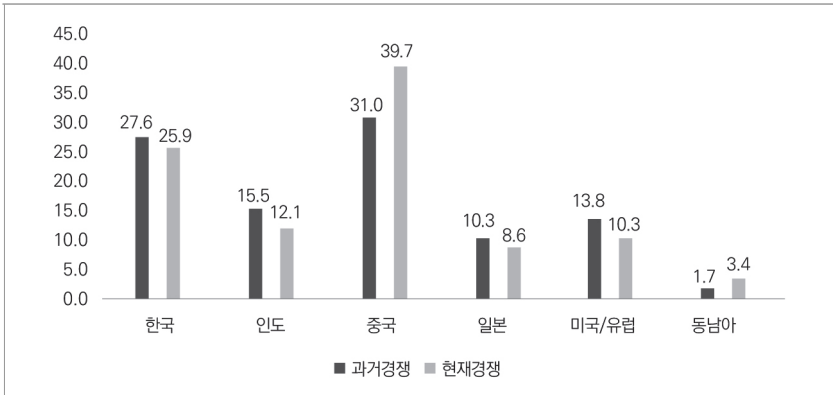
한편 응답기업 중 91.4%는 대인도 수출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하거나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전체 기계류 수출기업의 44.8%가 CEPA 양허 대상 품목을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1%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CEPA 세율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체감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또는 실제 CEPA 양허 대상이 아니

71) 응답기업 중 대부분(94%)이 열위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하락을 지적했음.

거나(13.8%), 양허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55.2%). 특히 앞서 언급한 HS 8479 품목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해당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CEPA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대인도 기계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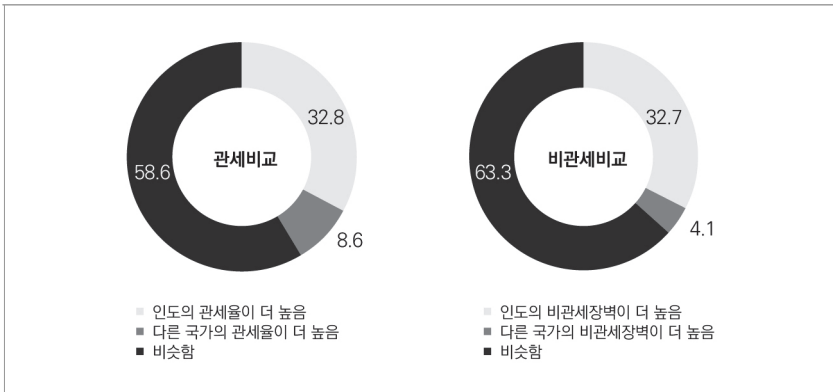
(단위: %)



주: 총 58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4. 기계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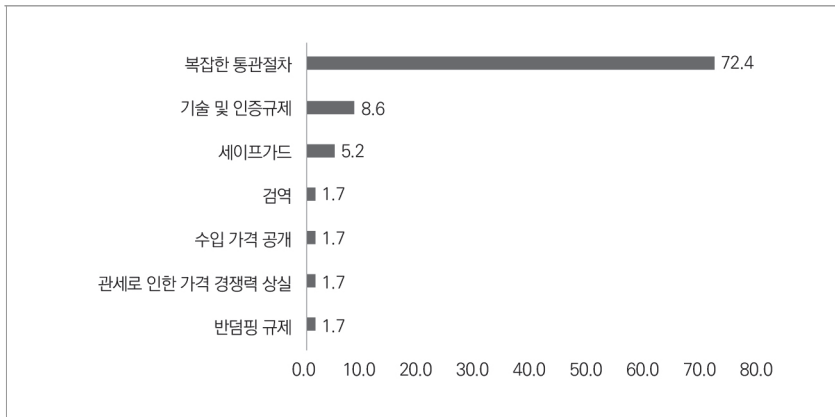


주: 각각 58개, 49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비관세의 경우 응답기업 중 32.7%가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72.4%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대표적인 인도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으며, 이밖에 기술 및 인증규제(8.6%), 세이프가드(5.2%) 등이 지적되었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다. 구체적인 통관절차 문제 사례로는 불명확한 HS 코드 분류, 통관 지연, 복잡한 서류, 수입물량 제한, 까다로운 원산지 심사 등이 있다.

그림 4-15. 기계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단위: %)



주: 각각 49개.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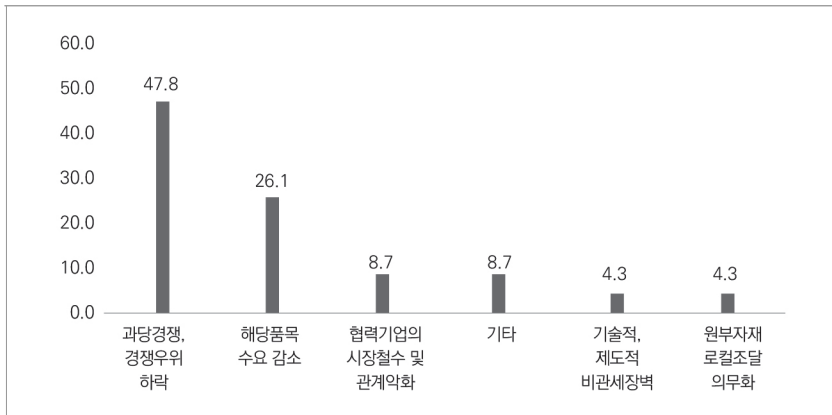
□ 전기기기(HS 85) 품목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7.8%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다. 이밖에 해당품목의 수요 감소(26.1%), 협력기업의 시장철수 및 관계악화(8.7%) 등이 뒤를 이었다. 마찬가지로 샘플수가 23개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과당경쟁을 지적한 기업 중 세부 수출 품목이 HS 8544(전선, 케이블 등)와 HS 8536(전기회로 및 관련 부품 등 산업용 전기기기)인 기업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위 품목 중

HS 8544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한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 중 최근 경쟁열위(인도 수입증가율 > 우리의 대인도 수출증가율)로 분류된 품목으로 실제 인도시장 내 경쟁심화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6.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 감소, 정체외의 외부적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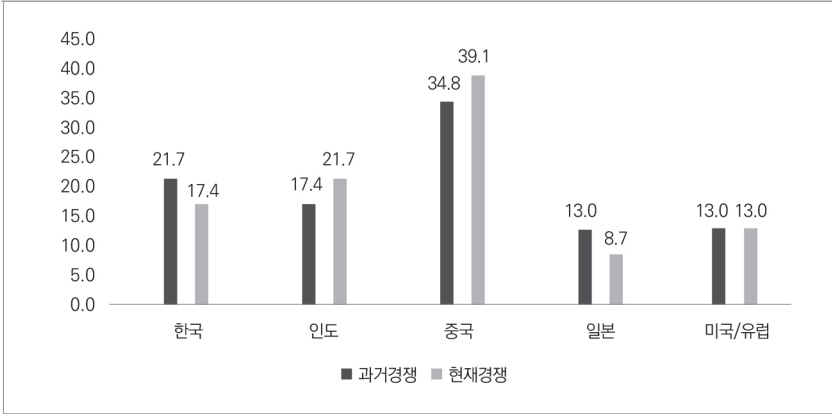


주: 총 2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관련하여 위 세부 품목 포함, 우리나라의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기업들은 인도시장 내 중국(39.1%)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다. HS 8544(전선, 케이블 등)와 HS 8536(전기회로 및 관련 부품 등 산업용 전기기기)의 경우 비교적 저부가 또는 저기술집약적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의 가격경쟁에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 역시 심화되었다는 응답이 21.7%로 과거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인도 로컬기업이 과거에 비해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 HS 8544, HS 8536 품목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인도, 중국 기업을 경쟁상대로 지적했다.

그림 4-17.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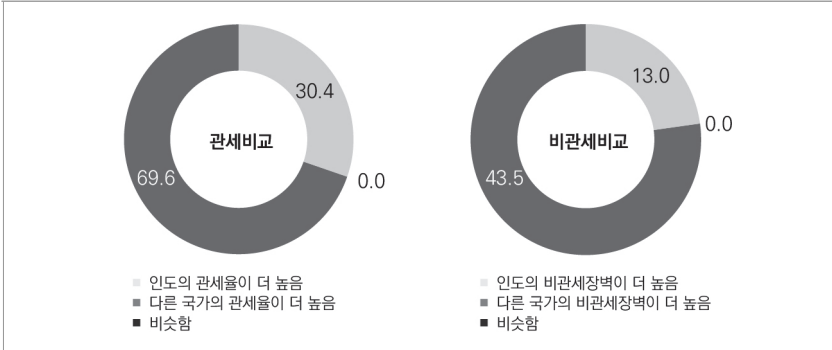


주: 각각 23개, 1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응답기업 중 69.6%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30.4%는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무했는데 이는 여전히 CEPA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활용도, 또는 실제 수출 제품이 미양허 품목이거나 여전히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중 대인도 수출 품목이 CEPA 양허 대상이고 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는 기업이 전체 77%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경쟁열위에 있다고 분류한 HS 8544 중 HS 854449(절연전선), HS 854420(동축케이블)은 양허 대상이지만 여전히 5%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HS 854430(점화용 와이어링), HS 854411(구리전선) 등은 미양허 품목이다. 이밖에 경쟁열위로 분류된 HS 850131(직류발전기) 역시 5%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림 4-18. 전기기기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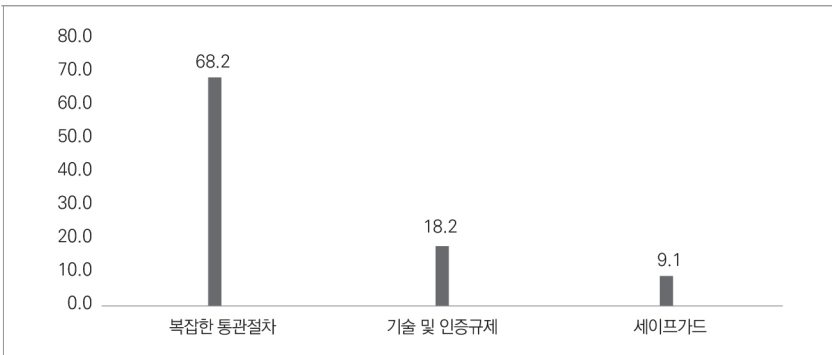


주: 각각 23개, 1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비관세의 경우 응답기업 중 약 13%가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68.2%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대표적인 인도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으며, 이밖에 기술 및 인증규제(18.2%), 세이프가드(9.1%) 등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사례로는 통관 지연, 까다로운 원산지 심사, 매 선적시 서류 요구 등이 있다.

그림 4-19. 전기기기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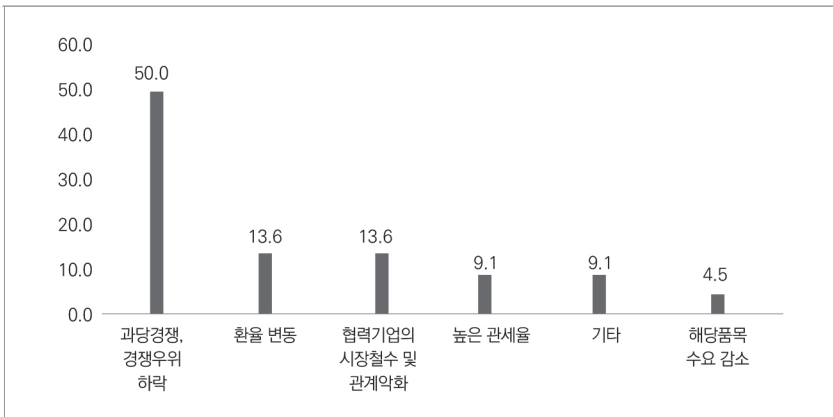
주: 총 1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 화학(HS 29), 플라스틱(HS 39)

대인도 화학/플라스틱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다. 이밖에 환율변동(13.6%), 협력기업의 시장철수 및 관계악화(13.6%) 등이 뒤를 이었다. 샘플수가 22개에 불과하고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과당경쟁과 협력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HS 3910~3920(실리콘, 셀룰로오스, 폴리에스테르 등 관련 제품)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수가 비교적 많았다. 이는 위 품목들이 수출경쟁우위(인도 수입증가율 < 우리의 대인도 수출증가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향후 점차 심화되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앞으로 열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0. 대인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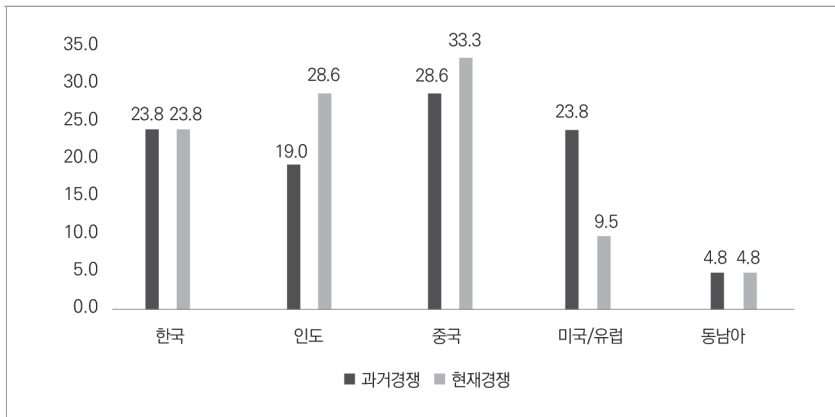
주: 총 2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화학/플라스틱류 수출기업들은 인도시장 내 중국(33.3%)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으며, 인도 로컬기업이 28.6%로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며 중국의 뒤를 이었다. 특히 HS 392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응답기업

중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지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인도 로컬기업이 과거에 비해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기업과의 경쟁을 지적인 기업 비중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유럽과의 경쟁은 완화(23.8% → 9.5%)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1. 대인도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단위: %)



주: 21개 기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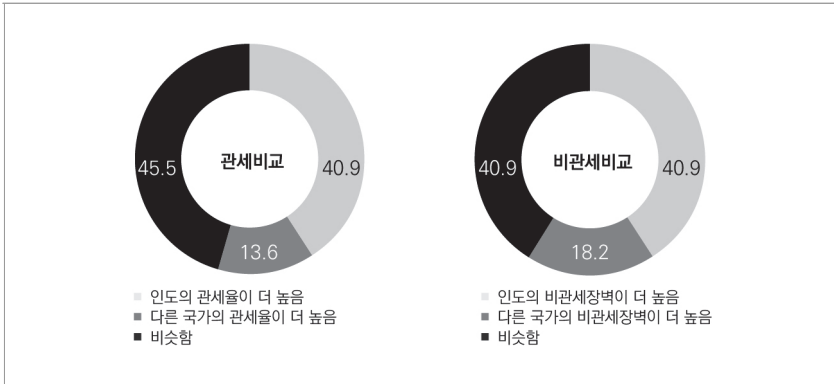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응답기업 중 45.5%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40.9%는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인도의 관세가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품목에 비해 다소 높았는데, 이는 이들 기업들이 앞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9.1%) 대인도 수출 감소 및 정체 외부요인으로 높은 관세를 지적한 것과 상통한다. 특히 인도의 관세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 중 HS 3910~ HS 3920 대 품목이 비교적 많았으며, 인도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실제 응답기업의 수출 품목을 6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CEPA 미양허, 또는 5%~6%대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다.⁷²⁾ 이는 CEPA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률이 낮기보다는 애초에 수출품목 중 CEPA 미적용 품목이 존재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73)

그림 4-22.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단위: %)



주: 2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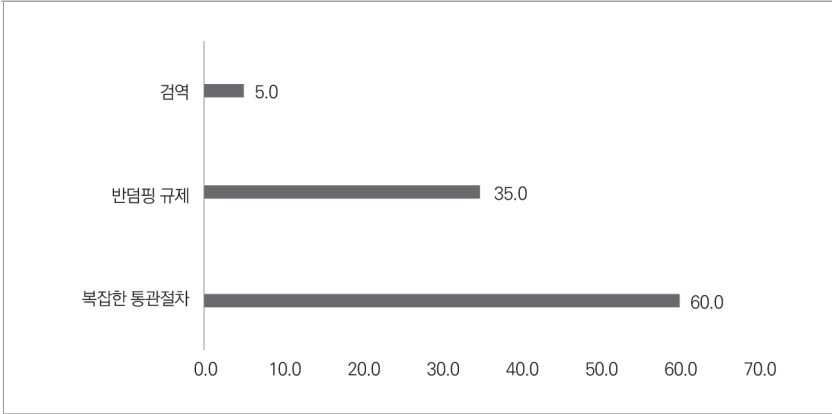
비관세의 경우 응답기업 중 약 40.9%가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60%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대표적인 인도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으며, 이밖에 기술 및 반덤핑(35%), 검역(5%) 등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사례로는 반덤핑으로 인한 수출가격협상 한계, 컨테이너 검열 시간 지연, 복잡한 서류 요구 등이 있다.

72) 미양허 품목은 HS 290532, HS 290711, HS 390410, HS 390720, HS 391990, HS 392061, HS 392190, HS 392329, HS 400921이고, 관세 5%~6% 적용 품목은 HS 291612, HS 291737, HS 291732, HS 391793임. 이 중 HS 390410는 HS 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플라스틱 품목 수출 중 비중이 가장 크지만, 최근 증가율 기준으로는 경쟁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됨.

73) 다만 HS 4단위 비중 기준 상위 5위 이내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응답률이 높지 않아 샘플의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3. 화학/플라스틱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단위: %)



주: 총 2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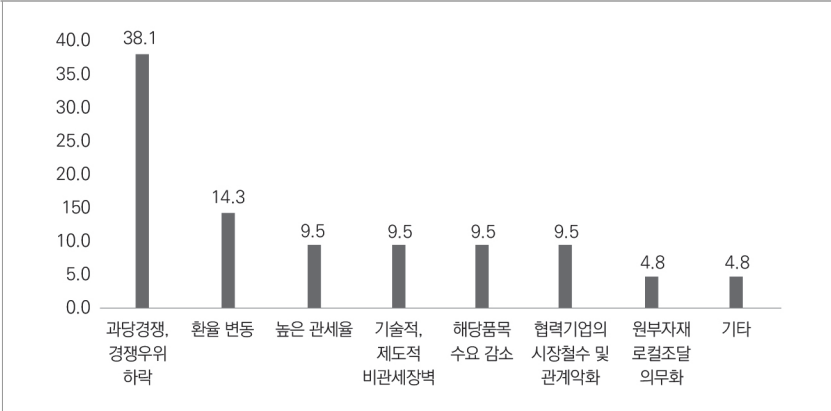
□ 철강(HS 72), 철강제품(HS 73)

대인도 철강/철강제품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8.1%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다. 이밖에 환율변동(14.3%), 높은 관세율(9.5%) 등이 뒤를 이었다. 샘플수가 21개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 요인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며, 수출품목의 특성에 따라 응답률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먼저 수출품목이 HS 7204~7223(철강선, 철강판 등)에 해당하는 응답기업의 경우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보다는 환율,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지적이 더 많았다. 반면, 수출품목이 HS 7304~7323(철강관, 철강파이프, 스테인리스 제품, 주방용 주철 제품)에 해당하는 응답기업의 경우 대부분은 다른 요인보다는 과당경쟁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 품목 중 HS 7210, HS 7204, HS 7219는 우리의 대인도 주력수출 품목이며 수출경쟁우위(인도 수입증가율 < 우리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에 있다. HS 7318 역시 주력은 아니지만 경쟁우위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를 체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쟁열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24. 대인도 철강, 철강제품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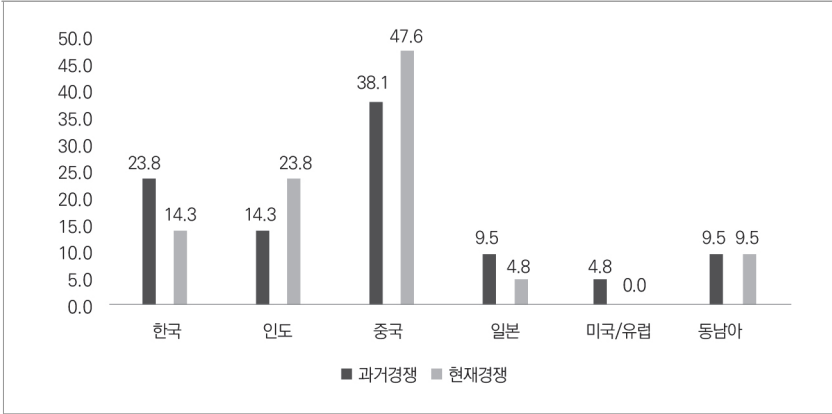


주: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기업들은 인도시장 내 중국(47.6%)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으며, 인도 로컬기업과 한국기업이 23.8%로 중국의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기업이 경쟁상대라는 응답 비율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인도 로컬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해 최근 인도 로컬기업이 과거에 비해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경쟁상대에 대한 응답 역시 품목의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HS 72 품목의 경우 다양한 경쟁상대를 지적한 반면, 앞서 높은 비율로 과당경쟁을 지적한 HS 73(7307, 7312, 7318, 7323) 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을 지적한 응답이 훨씬 많았다. 이는 인도시장 내 철강보다는 철강제품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기업 간 경쟁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4-25. 대인도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경쟁관계 변화

(단위: %)



주: 21개 기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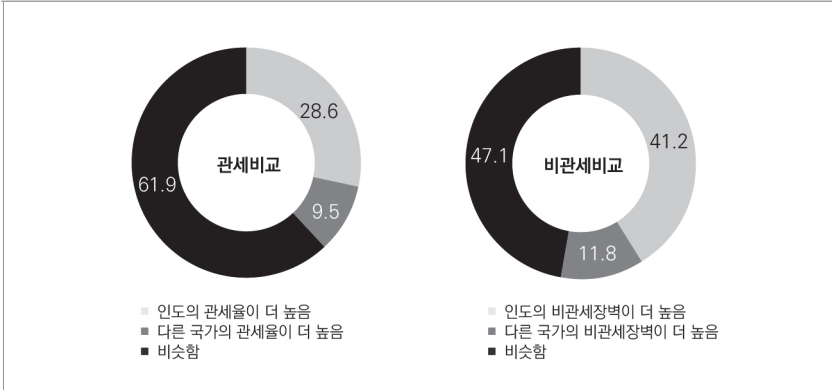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응답기업 중 61.9%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28.6%는 인도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CEPA 양허 대상이지만, 관세문제를 지적한 기업 중 대부분이 실제 미양허 품목을 수출하거나 5%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미양허 품목은 HS 731815이고 HS 721933, HS 720421은 5% 미만의 관세부과 대상이다. 4단위 기준 HS 7318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비주력 품목(비중 0.3% 미만)이지만 수출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CEPA 양허혜택을 받을 경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철강제품류의 경우 대부분 CEPA 양허 대상인 만큼, 관세보다는 비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 중 41.2%가 다른 국가보다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복잡한 통관절차와 반덤핑 규제가 각각 40%, 기술 및 인증규제가 15%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시적 수입규제, BIS인증 절차 시간 소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등을 지적했다.

그림 4-26.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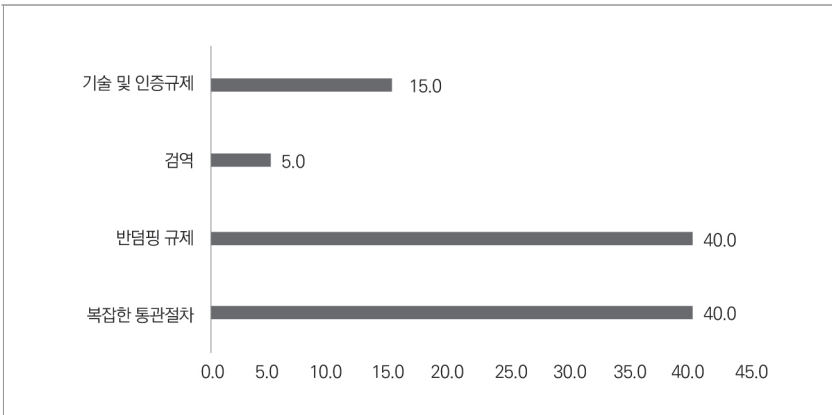


주: 2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27. 철강/철강제품류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단위: %)



주: 2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인도 진출 한국의 철강제품 1, 2차 벤더 업체 사례
- 본 기업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에 현지지사를 설립, 한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거나 로컬기업으로부터 조달해 제품을 가공 및 판매하고 있음.
 - 지난 20년 간 실적이 양호해 인도정부로부터 DPD 혜택을 받고 있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정기적으로 수입량이 유지되고 있고 그간 위법사항이 없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
 - CEPA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관세 혜택도 받고 있음. 다만 일부 품목은 로컬조달을 하고 있으며, 로컬조달이 어려운 제품만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 수입 시 각종 통관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 경비문제, 시간소요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함.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참석).

□ 자동차부품(HS 87), 정밀기계(HS 90)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계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6%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을 지적했다. 이밖에 수요감소(16%), 기술적, 제도적 비관세장벽(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시장 내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고, 정밀기계 분야는 과당경쟁을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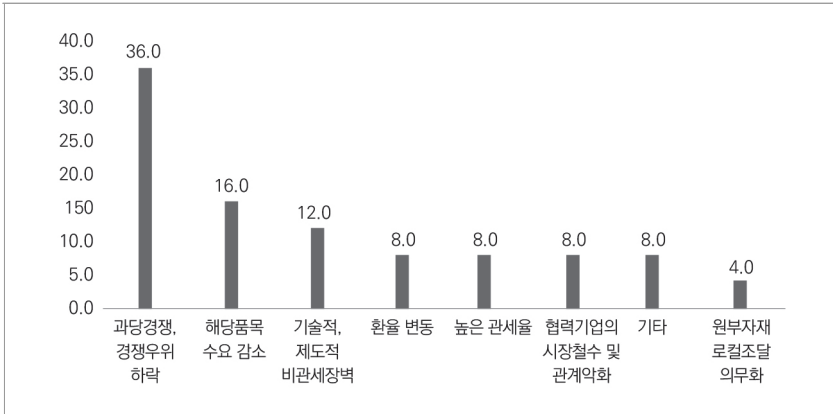
실제 HS 8708(자동차부품)은 우리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으로 분류되지만(수출 비중 0.3% 이상), 최근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수출경쟁 열위로 분류되었는데(인도 수입증가율 > 우리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이는 인도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하락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쟁우위에 있거나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HS9031~9032(계측제어분석기계류) 품목의 경우 실제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이면서도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어(인도 수입증가율[우리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인도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

74)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50% 이상이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정밀기계류 수출기업은 79%가 경쟁우위에 있다고 응답함.

당경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높아 잠재적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28. 대인도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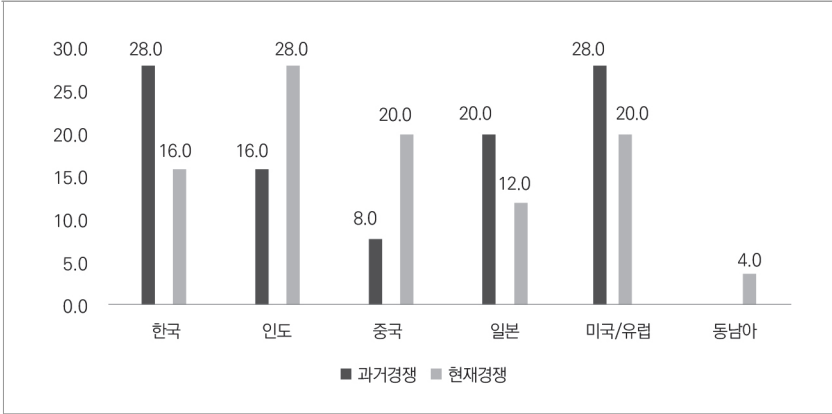


주: 총 2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기업들은 현재 인도 시장내 인도로컬 기업(28%)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으며, 중국과 미국/유럽(20%)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중국과 인도가 경쟁상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유럽 기업에 대한 응답률은 비교적 높았지만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한편 품목별로 구분했을 시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밀기계는 여전히 유럽/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더 높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비교적 기술집약적이고 전후방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높은 가격경쟁력과 어느 정도 기술진보를 이룬 중국, 인도 로컬기업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29. 대인도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경쟁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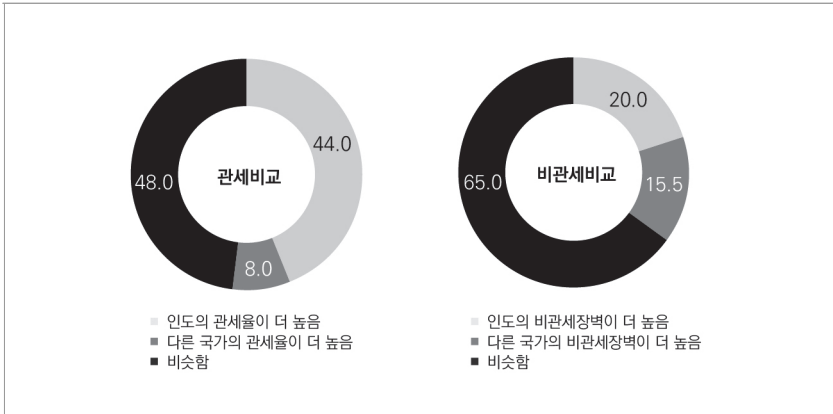
주: 2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응답기업 중 44%는 인도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인도의 관세문제를 지적한 것은 수출품목이 CEPA 미양허, 또는 일부 양허이거나, 양허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 자체가 낮아 인도의 관세율이 높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 결과 응답기업이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품목 모두 미양허 품목(HS 870850, HS 870880, HS 870893)이거나 5%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HS 870840, HS 870870, HS 870893, HS 870895, HS 870899)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밀기계 품목의 경우 응답기업의 수출품목 모두 CEPA 양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양허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CEP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정밀기계류의 경우 비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응답기업 중 20%만 다른 국가보다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복잡한 통관절차와 세이프가드, 인증규제를 지적한 비율이 각각 60%, 20%, 16%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통관 지연,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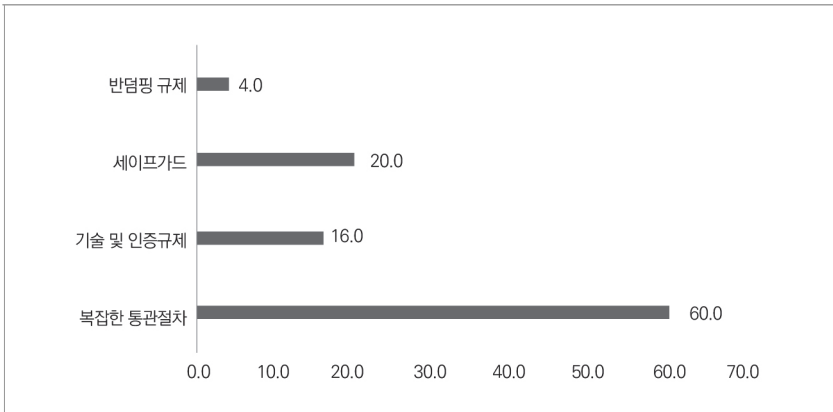
다로운 서류심사, 서류 중복 요청(원산지 증빙) 및 시간 소요, 인증서 요구 등이 있다.

그림 4-30.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관세 및 비관세 비교



주: 2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31. 자동차부품/정밀기계 수출 비관세장벽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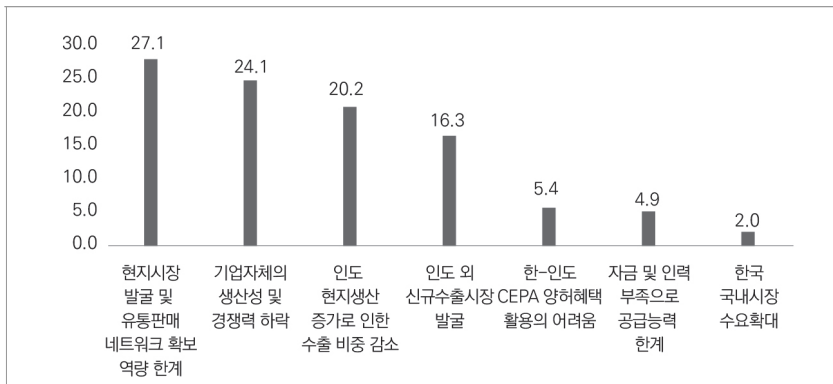


주: 2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요인(27.1%)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24.1%, 현지화 20.2%, 신규수출시장 발굴 및 대체 16.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CEPA 활용과 관련한 어려움은 비교적 낮은 5.4%의 응답률을 보여 CEPA가 기업의 대인도 수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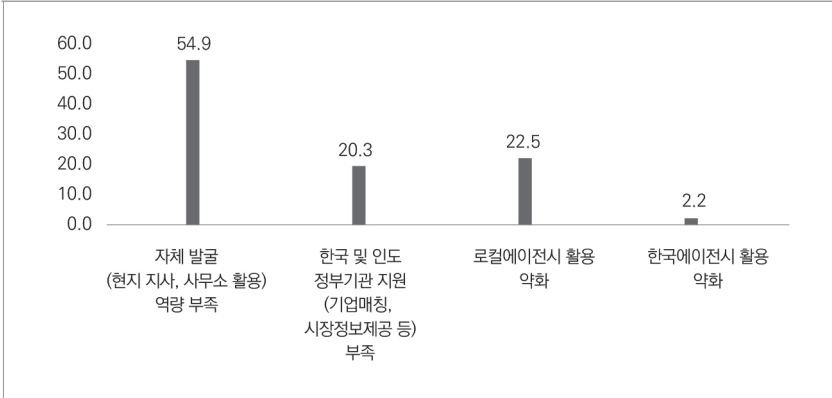
주: 총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1) 기업역량 요인

응답기업의 54.9%는 인도 현지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지 지사 및 사무소 부재 등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 자체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이밖에 인도 로컬 에이전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시장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2.5%, 한국 및 인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0.3%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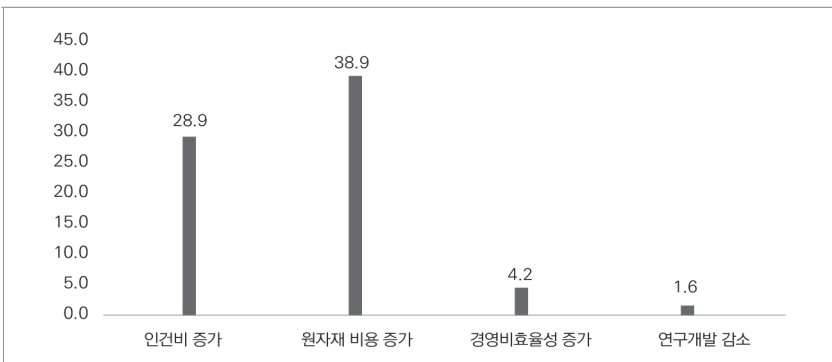
그림 4-33.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주: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8.9%는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원자재비용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인건비 증가가 28.9%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경영비효율성, 연구개발 감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원료 수급의 어려움 등을 지적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많지 않았다.

그림 4-34.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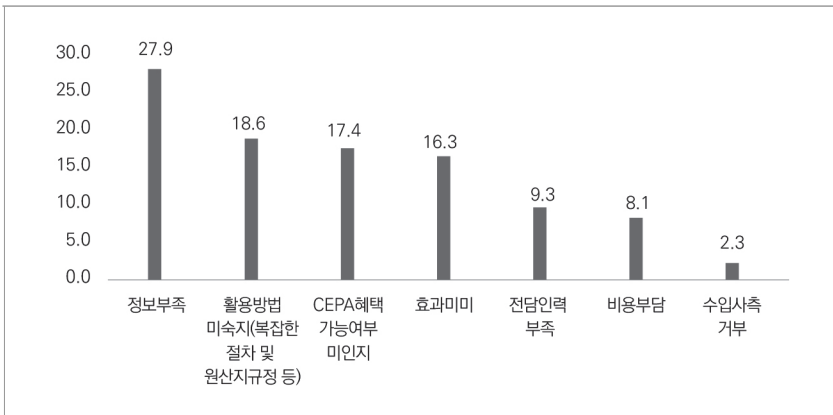


주: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2) 기타 제도 및 환경요인

CEPA 양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기업의 27.9%가 정보부족을 지적했다. 이밖에 활용방법 미숙지, CEPA 혜택 가능 여부 미인지가 각각 18.6%, 17.4%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16.3%는 CEPA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전담인력 부족과 비용부담을 이유로 CEP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각각 9.3%, 8.1%를 차지했다.

그림 4-35. CEPA 미활용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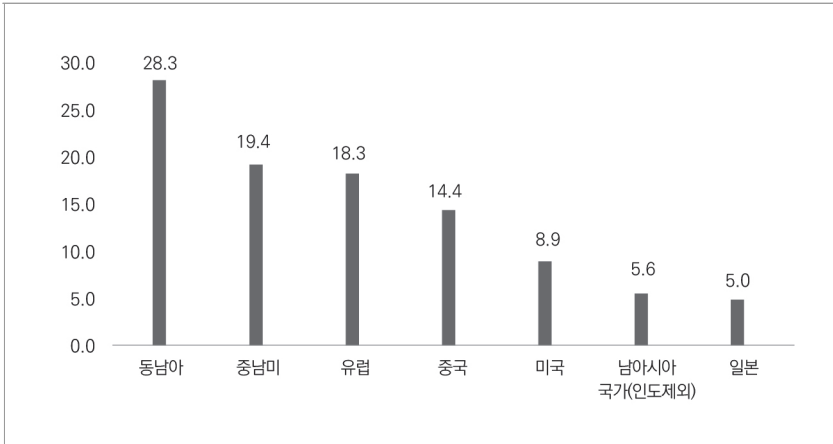
주: 9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대인도 수출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시장으로 동남아를 지적한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중남이 19.4%, 유럽 18.3%, 중국 14.4% 등이 뒤를 이었으며, 미국(8.9%)과 남아시아(5.6%), 일본(5%)은 비교적 비중이 낮았다. 동남아와 중국의 경우 인도와 비슷한 경제수준, 지리적 인접성 등의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 품질의 품목을 인도의 대체, 보완 시장으로서 동남아에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대인도 수출 환경이 여의치 않을 시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4-36. 수출 대체 지역(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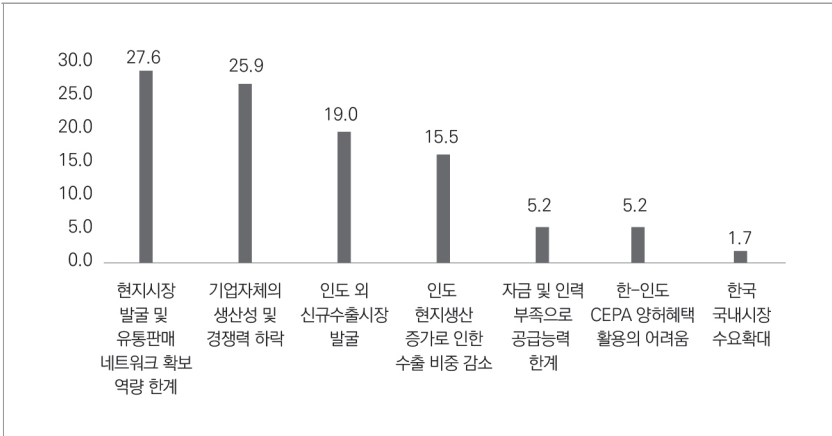
주: 20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3) 품목별 요인

□ 기계류(HS 84) 품목

대인도 기계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7.6%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 자체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25.9%), 대체 및 보완시장 발굴(19%), 현지화(15.5%) 등이 뒤를 이었다. HS 4단위 기준 세부 품목에 상관없이 대체로 인도시장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현지화 요인 응답 비율도 품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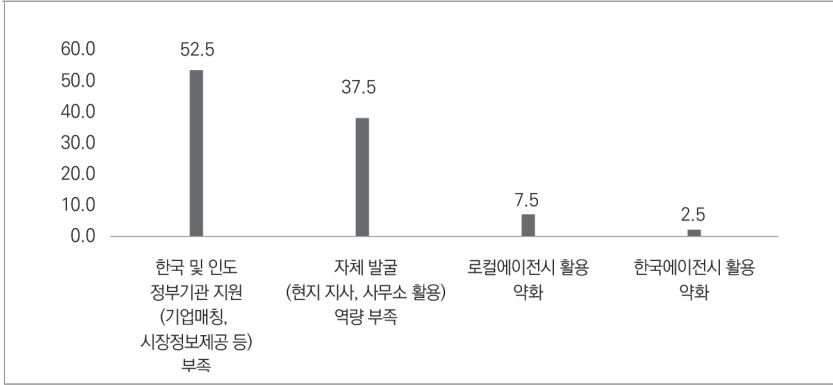
그림 4-37. 대인도 기계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주: 총 58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기계류 응답기업의 52.5%가 한국 및 인도 정부기관의 지원 부족을 대인도 수출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37.5%가 인도 현지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현지 지사 및 사무소 부재 등 기업 자체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기타 인도 및 한국 로컬에이전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시장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7.5%, 2.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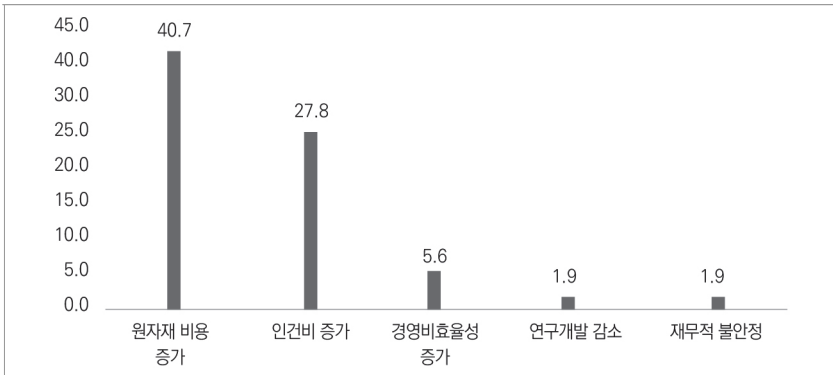
그림 4-38. 기계류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주: 총 40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0.7%는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인건비 증가가 27.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영비효율성(5.6%), 연구개발 감소(1.9%), 재무적 불안정(1.9%)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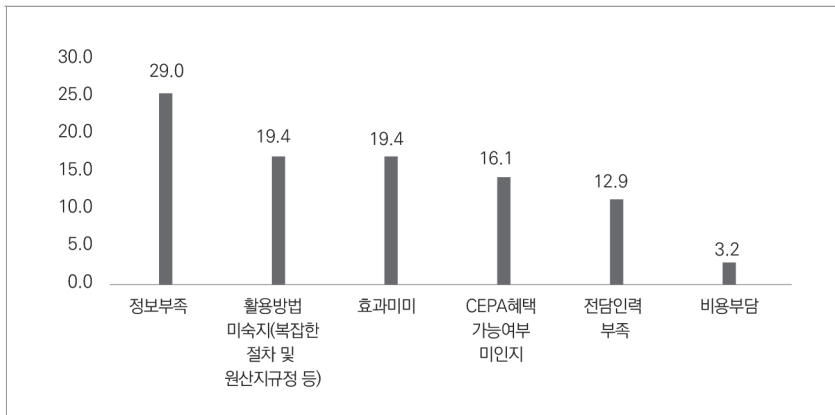
그림 4-39. 기계류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주: 총 47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기계류 수출기업 중 29%가 CEPA 양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을 지적했다. 이밖에 CEPA 활용방법 미숙지가 19.4%, 낮은 기대효과 19.4%, CEPA 혜택 가능 여부 미인지가 16.1%를 차지했다. 기타 전담인력 부족과 비용부담을 이유로 CEP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각각 12.9%, 3.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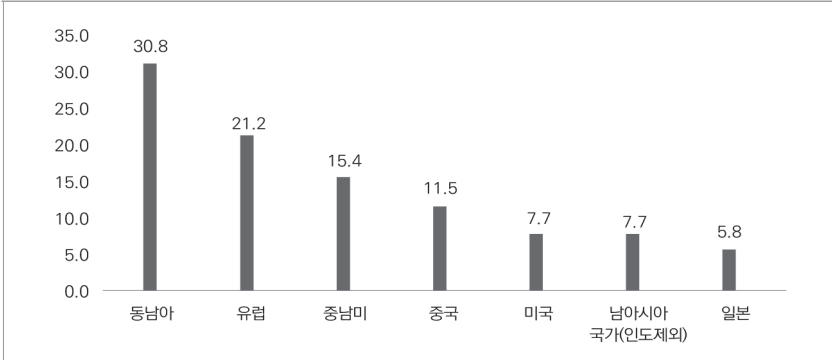
그림 4-40. 기계류 품목 수출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



주: 3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기계류 수출 응답기업 중 대인도 수출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시장으로 동남아를 지정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유럽 21.2%, 중남미 15.4%, 중국 11.5% 등이 뒤를 이었으며, 미국(7.7%)과 남아시아(7.7%), 일본(5.8%)은 비교적 비중이 낮았다. 기계류의 경우 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본재 형태로 수출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남아 수출 응답기업 중 상당수가 섬유 및 화학기계, 제지인쇄기계, 금속공작 기계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1. 기계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주: 5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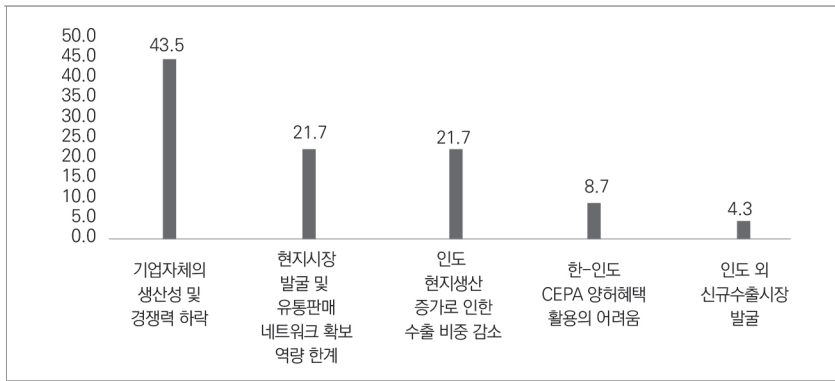
□ 전기기기류(HS 85) 품목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3.5%가 내부적 요인으로 기업 자체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을 지적했다. 이밖에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와 현지화가 각각 21.7%로 뒤를 이었다. CEPA 활용의 어려움이나 인도를 대체, 보완할 신규시장 진출은 각각 8.7%, 4.3%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샘플수가 많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HS 4단위 기준 HS 8501, HS 8536, HS 8544 중 자동차부품과 관련 있는 전기기기 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다수 있어 현지화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기기류 수출 응답기업의 60.9%는 인도 현지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지 지사 및 사무소 등의 부재 등 기업 자체 역량 부족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26.1%가 한국 및 인도정부기관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기타 인도 및 한국 에이전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시장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각각 8.7%, 4.3%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HS 8544(전선, 케이블 등)와 HS 8536(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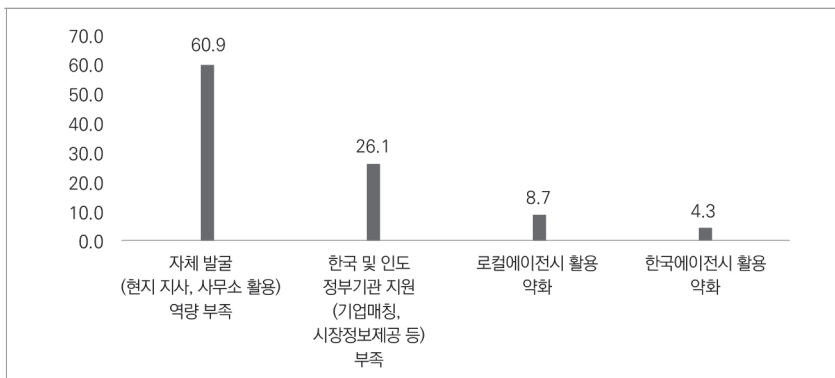
회로 및 관련 부품 등 산업용 전기기기)을 수출하는 응답기업 중 상당수가 기업 자체 역량 부족을 지적한 비중이 높았으며, 이 중 HS 8544는 경쟁열위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자체 역량 부족이 인도 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2. 대인도 전기기기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주: 총 2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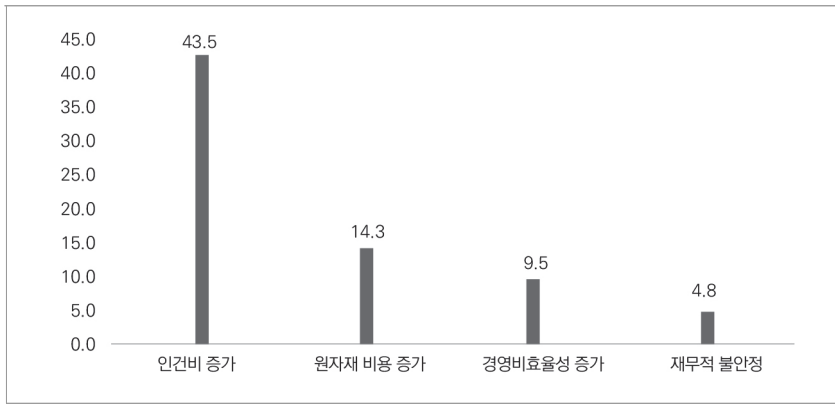
그림 4-43. 전기기기류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주: 총 23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2.9%는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원자재 비용 증가가 14.3%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영비효율성(9.5%), 재무적 불안정(4.8%)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림 4-44. 전기기기류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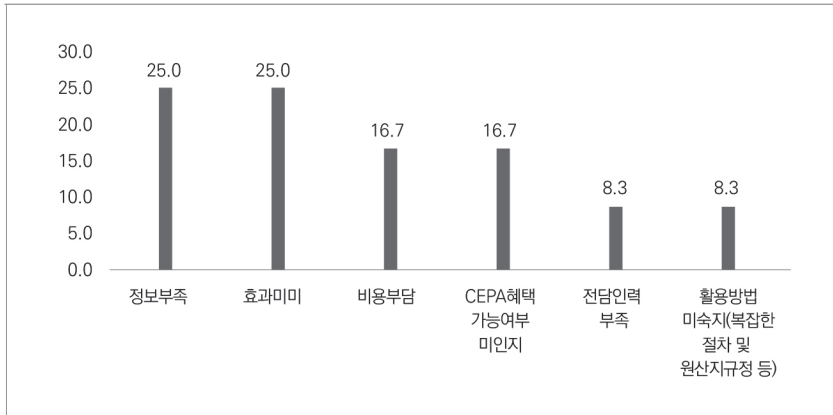
주: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자사의 대인도 수출품목이 CEPA 양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과 미미한 효과를 지적한 응답이 각각 2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비용부담과 CEPA 혜택 가능 여부 미인지가 각각 16.7%를 차지했다. 기타 전담인력 부족과 활용방법 미숙지를 이유로 CEPA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8.3%를 차지했다.

응답기업 중 대인도 수출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시장으로 동남아를 지적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중남미 27.3%, 중국 18.2%, 유럽 1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 남아시아, 일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전기기기류 품목의 경우 동남아 내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남아 수출 응답기업 중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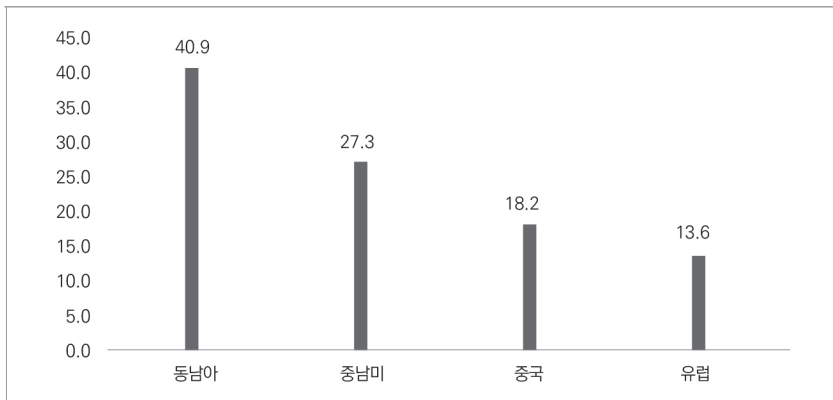
수가 전기기기부품, 통신기기부품, 케이블, 점화플러그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5. 전기기기류 품목 수출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



주: 1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46. 전기기기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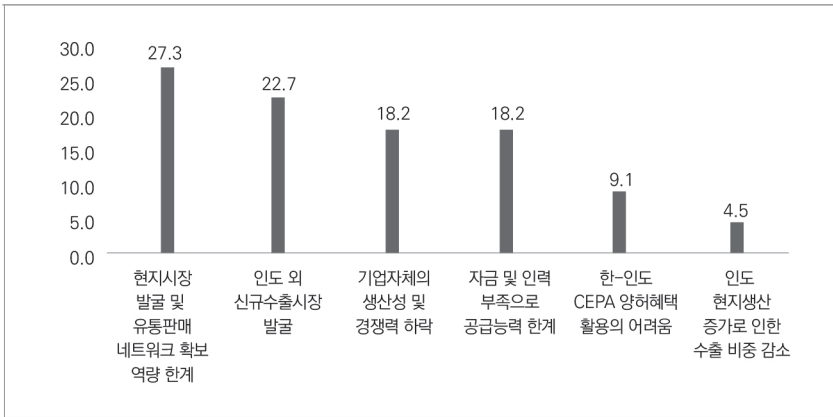


주: 2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 화학(HS 29), 플라스틱(HS 39)

대인도 화학/플라스틱류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7.3%가 내부적 요인으로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지적했다. 이밖에 인도를 대체, 보완할 신규시장 진출이 22.7%, 기업 자체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과 공급능력 한계가 각각 18.2%를 차지했다. 한편 CEPA 활용의 어려움과 현지화로 인한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은 각각 9.1%, 4.5%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는 응답기업의 상당수가 CEPA 양허 대상이 아니거나, 양허 대상 여부를 몰라 CEPA 활용률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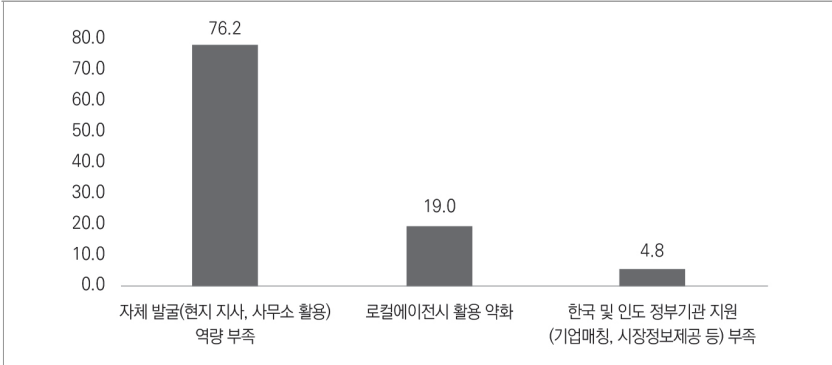
그림 4-47. 대인도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주: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 응답기업의 76.2%는 인도 현지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지 지사 및 사무소 등의 부재 등 기업 자체 역량 부족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로컬 에이전시 활용과 한국 및 인도정부기관 지원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9%, 4.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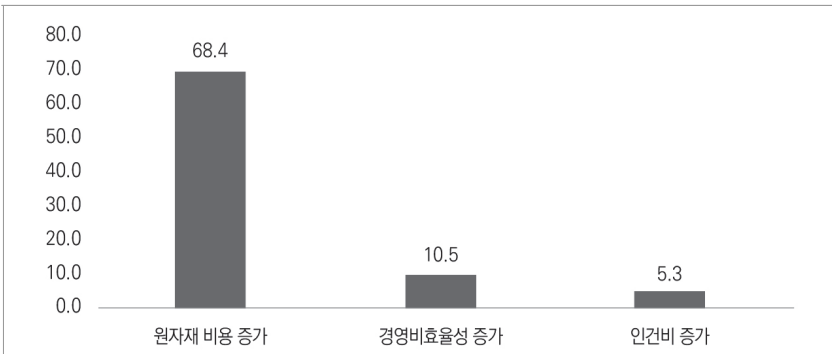
그림 4-48. 화학, 플라스틱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주: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8.4%는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영비효율성(10.5%), 인건비 증가(5.3%)는 응답비중이 크지 않았다. 품목의 특성상 화학과 플라스틱류 모두 국제원유 가격 변동성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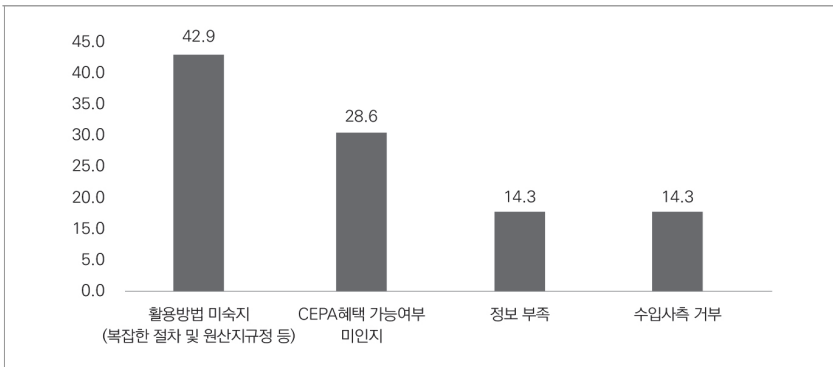
그림 4-49.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주: 총 19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화학, 플라스틱류 응답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의 경우 응답 샘플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애초 해당 품목 수출기업의 CEPA 양허 대상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응답기업 총 7개 중 3개 기업이 CEPA 활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CEP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개 기업은 CEPA 양허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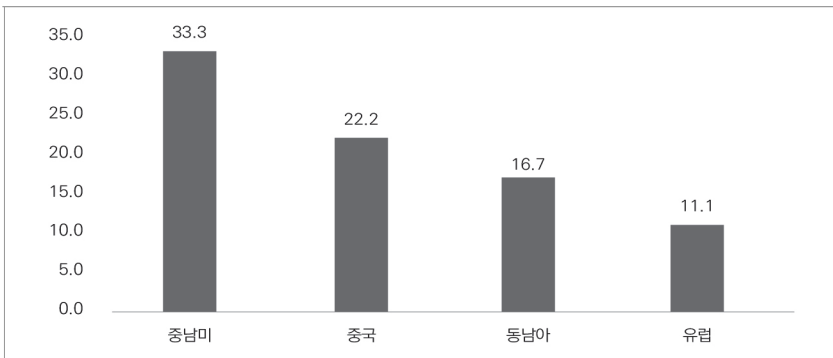
그림 4-50. 화학, 플라스틱류 품목 수출기업의 CEPA 미활용 요인



주: 7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51. 화학, 플라스틱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주: 18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대인도 수출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시장으로 중남미를 지정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중국 22.2%, 동남아 16.7%, 유럽 11.1%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 남아시아, 일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글상자 4-4. 국내 윤활유 수출기업의 현지화 추진

□ 국내 윤활유 수출기업의 현지화 전략 추진

- 본 기업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에 현지지사를 설립, 한국으로부터 윤활유를 전량 수입해 인도에 판매하고 있음.
- 당초 인도 내 프리미엄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인도에서는 여전히 저가의 미네랄제품 수요가 많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에서 윤활유를 전량 수입할 경우 인도 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현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현지화 전략을 준비 중에 있지만, 현지 투자여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주시 중임.
- 현지화를 통해 시장조사, 수요예측, 시장 발굴 및 확대에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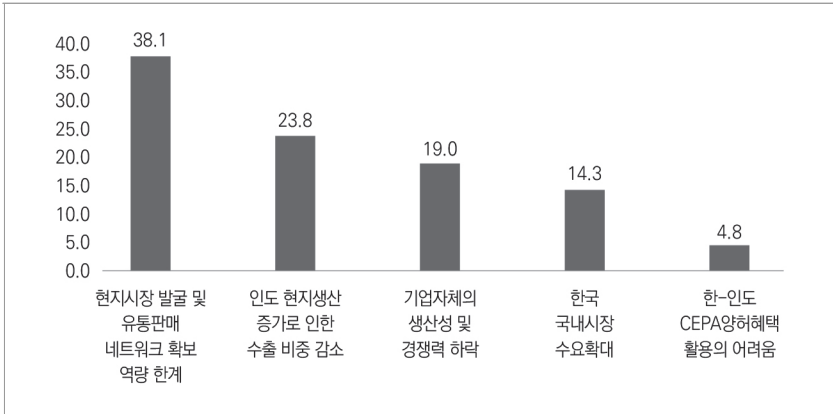
□ 철강(HS 72), 철강제품(HS 73)

대인도 철강,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8.1%가 내부적 요인으로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를 지적했다. 이밖에 현지화 23.8%,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19%, 한국시장 수요확대 14.3%가 뒤를 이었다. CEPA 활용의 어려움은 4.8%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는 응답기업 대부분이 CEPA 혜택 대상이며,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관세철폐 및 인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⁵⁾ 한편 현지화 요인 응답은 HS 7210을 중심으로 철강 수출기업에서 두드러졌으며, 반면 HS

75) 철강, 철강제품 수출 CEPA 혜택 대상 응답기업 중 약 73%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7307을 중심으로 한 철강제품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의 한계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4-52. 대인도 철강, 철강제품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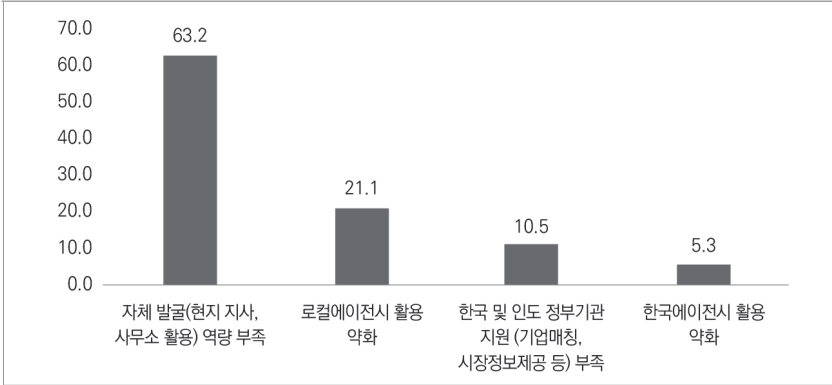


주: 총 21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철강, 철강제품 수출 응답기업의 63.2%는 인도 현지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지 지사 및 사무소 부재 등 기업 자체 역량 부족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로컬에이전시 활용 문제, 한국 및 인도정부기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각각 21.1%, 10.5%를 차지했다. 특히 철강(HS 72)보다는 철강제품(HS 7304, HS 7307, HS 7312, HS 7318)에서 기업 자체 발굴 역량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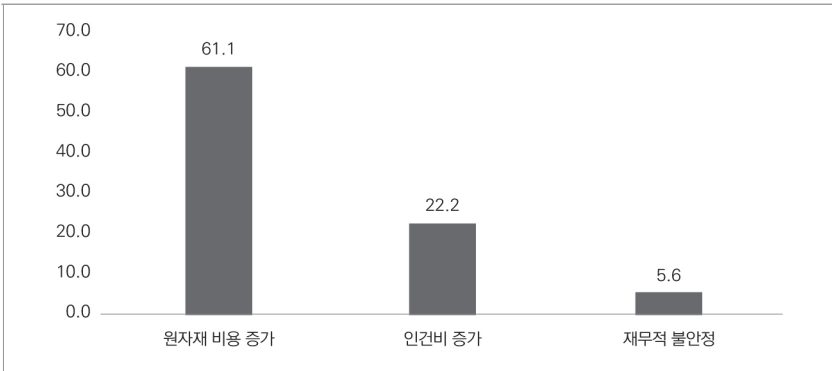
응답기업의 61.1%는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인건비 증가가 22.2%로 뒤를 이었다. 이는 품목의 특성상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4-53. 철강, 철강제품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주: 총 19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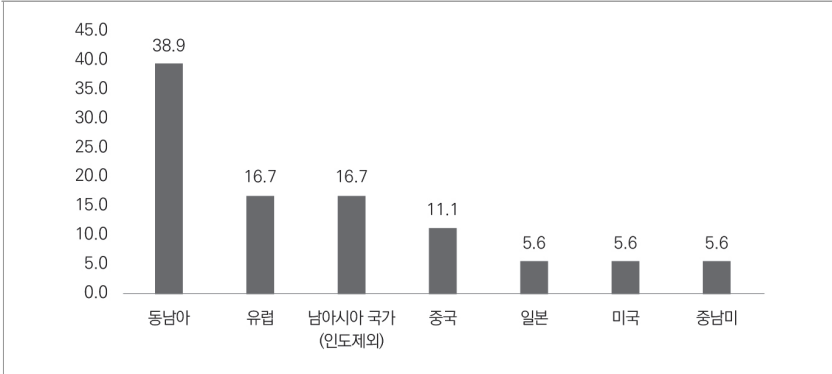
그림 4-54. 철강, 철강제품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주: 총 18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대인도 수출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시장으로 동남아를 지정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유럽 16.7%, 남아시아 16.7%, 중국 11.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 미국, 중남미는 각각 5.6%로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림 4-55. 철강, 철강제품류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대체 지역(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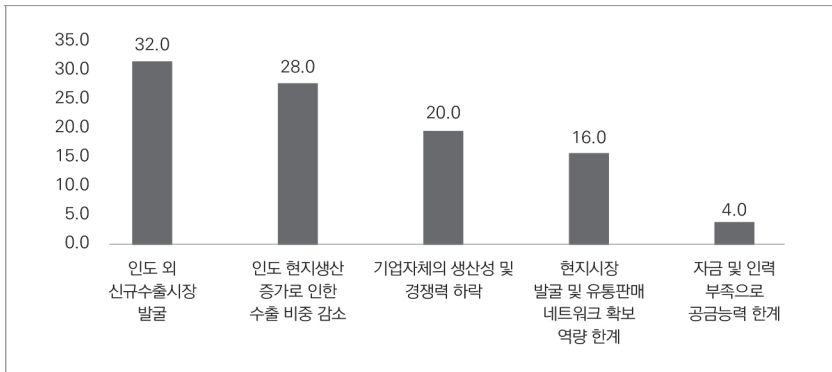


주: 18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자동차부품(HS 87), 정밀기계(HS 90)

대인도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이 감소,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2%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도 외 수출시장 발굴을 지적했다. 이밖에 현지화 28%,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20%, 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가 16%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부품 수출 응답

그림 4-56. 대인도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주: 총 2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현지화 요인을 지적한 반면 정밀기계류 수출기업은 1개 기업만 현지화라고 응답했다. 반면, 인도 외 신규수출시장 발굴 응답의 대부분은 정밀기계 수출기업에서 나왔다.

글상자 4-5. 인도 진출 국내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현지화 사례

- 인도에 동반진출한 자동차부품 공급 2,3차 멘더의 현지화
 - (황)동, 철강 제품이나 자동차부품 수입관세가 여전히 존재해 인도에 기 진출해 있는 대기업 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현지화를 통해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음.
 - 현지화를 할 경우 원자재 가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인도의 낮은 인건비를 고려할 때 현지화 전략이 현실적 대안임.
 - 과거 한국으로부터 100~120만 달러 규모의 원자재를 조달했으나 최근 현지화 이후 점차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 제품과 비교할 때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 이점이 있어, 현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경우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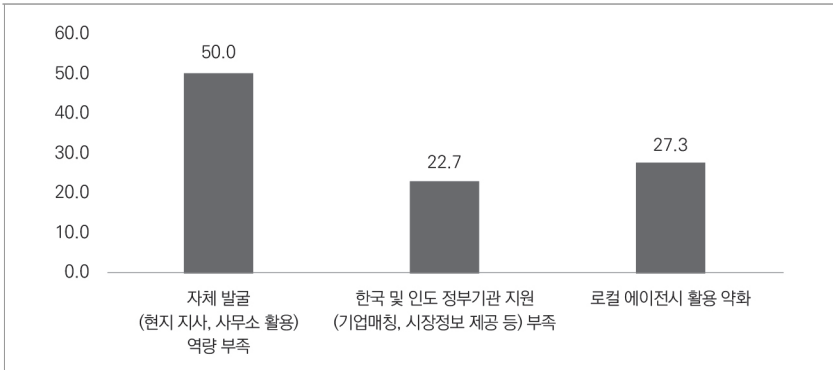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참석).

응답기업의 50%는 인도 현지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지 지사 및 사무소 등의 부재 등 기업 자체 역량 부족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로컬 에이전시 활용과 한국 및 인도정부기관 지원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7.3%, 22.7%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에서 자체 발굴 역량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로컬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기업의 48%는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밀기계 수출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비교적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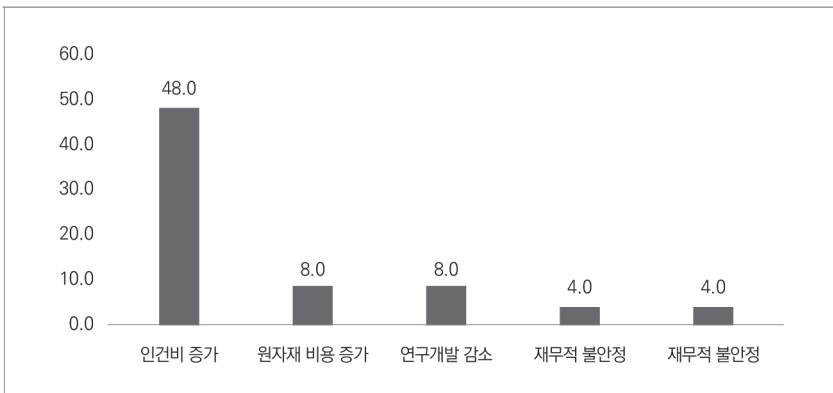
타났다.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인도의 비교적 낮은 노동력을 활용해 현지 진출 동반기업이나 로컬기업에 공급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57.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기업의 시장 발굴,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



주: 총 22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그림 4-58.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수출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주: 총 25개 기업 응답.
자료: KIEP, 무역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 인도 진출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업체의 CEPA 활용 사례
- 본 기업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에 현지지사를 설립, 한국으로부터 의료기기(온열기)를 수입해 인도에 판매하고 있음.
 - 해당 품목은 CEPA 양허 대상으로 18%의 관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관련하여 통관절차상에서 별 문제없이 CEPA를 활용하고 있음.
 - 관세혜택은 품목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해 가격을 인하했음. 하지만 아직 매출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0, 인도 델리,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참석).

3.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을 품목별로 추정, 분석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7.6%(203개)가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기계(정밀기계 포함),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감소, 정체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는 외부적으로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계, 전기기기, 화학/플라스틱, 철강, 자동차부품/정밀기계 등 대부분 주요 수출 품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서 중국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시장에서 자사가 현재 경쟁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대부분이 가격 요인을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최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인도시장 내 중국과 인도 로컬기업의 저가공세에 의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그리고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위 세 요인이 주를 이루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기업들은 시장 발굴 한계 요인으로 인도 로컬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 확대할 수 있는 자사의 역량과 여건이 부족하고, 로컬에이전시 활용이나 한국 및 인도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는 국내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증가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역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양국 CEPA 체결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사 수출 품목이 CEPA 양허 대상인지 모르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알고 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품목은 여전히 CEPA 미양허 대상이거나 부분적으로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다른 수출 대상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CEPA 효과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품목에 대한 분석은 제5장 1절에서 제2~4장에 걸쳐 추정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종합해 평가, 분석하기로 한다.

제5장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결론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4. 결론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본 절에서는 앞서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통해 추정된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외부 요인을 [표 5-1]과 같이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했다. 제2장과 제3장 결과는 외부적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주 기준으로 활용했으며, 이 중 분류가 다소 모호하거나 근거가 없는 품목, 또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등은 제4장 설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했다. 한편 데이터 분석만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내부적 요인은 제4장의 설문 및 간담회 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했다.

서론에 언급했듯이 각 장별 분석방법에 따라 추정된 품목별 요인이 대략적으로 일치할 경우 분석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복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요인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품목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품목별 관측치가 부족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은 과거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HS 4단위 세부 품목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및 정체 현상을 분석하고, 특히 그 요인을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통해 구조적으로 식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절의 매트릭스 분석은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품목별, 또는 요인별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1.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매트릭스

	내부적 요인					
	경쟁력 저하/ 역량부족	CEPA활용도 저조	현지화 (수입대체)	신규시장 발굴(인도 외)	기타(불분명)	
외 부 적 요 인	관세 장벽 (미양허 등)	HS 2905 HS 3904 HS 3910~20대 HS 8501	HS 3903 HS 8501 HS 8544 HS 8536	HS 7204~23 HS 7318 HS 8501 HS 8544 HS 8536 HS 8708	HS 2905 HS 3904 HS 3910~20대	HS 3901 HS 3902 HS 3903 HS 3906
	비관세 장벽	HS 2905 HS 7220*	HS 8479	HS 7204~23 HS 8501 HS 8544	HS 2905	HS 2903 HS 2917 HS 2929 HS 7204~26
	과당경쟁/ 경쟁열위	HS 7304~23 HS 8517 HS 8529 HS 8536 HS 8544	HS 3910 HS 8479 HS 8480	HS 7304~23	HS 3910~20대 HS 9031~9032	HS 8414 HS 8415 HS 8462 HS 8504/28/29
	산업/수요 구조 변화	HS 7209 HS 8407 HS 8544		HS 8708	HS 3904	HS 1701 HS 2704 HS 2809 HS 2921/41 HS 3002 HS 4001/4011 HS 4707 HS 7103 HS 8411/26/45/71 HS 8473/77 HS 8523 HS 8714
	현지생산/ 조달 확대	HS 7209 HS 7219 HS 7220 HS 8501	HS 3903 HS 8479 HS 8480		HS 7209 HS 7219	

주: 1) 철강 중 HS 7208, HS 7210, HS 7225, HS 7207, HS 7221는 제외(수출경쟁 우위 품목임).
 2) HS 3920, HS 8536, HS 9031, HS 9032는 제2장, 제3장에서 수출경쟁우위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수출 감소, 정체를 체감하는 품목으로 조사되어 본 분석에 포함시킴.
 3) 내부적 요인은 수출 주체인 기업 측 요인, 외부적 요인은 수출 대상국인 인도 측 요인임.
 자료: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 기계류(HS 84)

기계류의 경우 주력 품목(HS 8414, HS 8415, HS 8462, HS 8479, HS 8480)과 잠재품목(HS 8407, HS 8411 HS 8415, HS 8426, HS 8445, HS 8471, HS 8473, HS 8477)으로 구분해 요인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주력 기계류 품목인 HS 8414, HS 8415, HS 8462, HS 8479의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은 대체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내 시장 경쟁 심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HS 8479는 CEPA 관세 철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CEPA 활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경쟁에 더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HS 8480 역시 해당 품목의 인도 내 생산 및 조달 확대로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CEPA 활용이 저조해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잠재품목인 HS 8407은 CEP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인도 내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잠재품목인 HS 8411 HS 8415, HS 8426, HS 8445, HS 8471, HS 8473, HS 8477 품목들 역시 인도의 수입증가율에 비해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낮아 다양한 요인으로 인도의 산업/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표 5-2. 기계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구분	요인
외부적 요인	비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구조 변화, 현지생산/조달 확대
내부적 요인	CEPA 활용도 저조, 기업경쟁력저하

자료: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다. 76)

76)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 중 인도의 해당 품목 수입증가율보다 우리의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낮은 경우는 다양한 요인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인도의 경제 및 소득 수준(수요),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볼 때 가격, 품질 측면에서 인도시장 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요인일 수도 있다. 반대로, 대인도 수출잠재력이 높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여러 이유로 인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거나, 인도가 주력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인도의 수요 증가만큼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크게 확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 연

2) 전기기기류(HS 85)

전기기기 품목의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내·외부 요인이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력품목인 HS 8501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쟁력 저하와 시장 진출 역량 부족, 저조한 CEPA 활용도, 현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CEPA 양허 제외로 인한 관세 부담, 현지생산 및 조달 확대에 의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해당 품목 수출기업들은 타개책으로 현지화를 적극 추진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요인과 현상은 부분적으로 HS 8536, HS 8544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HS 8544의 경우 비관세장벽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S 8517은 기업의 시장 진출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시장 내 과당경쟁과 인도의 해당품목 생산 및 조달 확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HS 8529 역시 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인도 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 정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잠재품목인 HS 8523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인도의 수입증가율보다 낮아 인도의 산업/수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거나 경쟁 심화로 시장 내 영향력 확대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3. 전기기기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구분	요인
외부적 요인	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구조 변화, 현지생산/조달 확대
내부적 요인	CEPA 활용도 저조, 기업경쟁력 저하, 현지화

자료: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구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대인도 수출 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해 '잠재품목'으로 정의했음을 밝힌다.

3) 화학(HS 29), 플라스틱(HS 39)

화학류의 경우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영향으로 경쟁력 저하 및 역량 부족, 인도를 보완 및 대체할 신규시장 발굴 요인이 크고, 외부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플라스틱류의 경우 내부적으로 경쟁력 저하 및 역량 부족, CEPA 활용도 저조, 신규시장 발굴 등의 영향을 받는 반면, 일부 품목의 경우 내부적 요인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관세장벽과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 요인이 대체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HS 2905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영향이 크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저하와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 부족이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품목 수출 기업들이 인도를 보완, 대체할 신규 시장을 발굴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지속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주력품목은 아니지만 HS 2903, HS 2917, HS 2929 등도 최근 5년 내 인도정부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받은 바 있어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플라스틱의 경우 HS 3901, HS 3902 HS 3903, HS 3904, HS 3906 등을 중심으로 양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CEPA를 활용하지 않거나 미양허 대상인 경우가 많아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HS 3910~20대 품목 중 상당수가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으로 인해 대인도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면서 대인도 수출이 지속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 화학/플라스틱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구분	요인
외부적 요인	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구조 변화
내부적 요인	CEPA 활용도 저조, 기업경쟁력 저하, 인도 외 신규시장 발굴

자료: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 철강(HS 72)/철강제품(HS 73)

철강 및 철강제품은 비교적 우리나라가 대인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며 대부분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력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도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부 품목은 실제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HS 7209, HS 7220은 내부적으로 경쟁력 저하 및 시장 확대 역량의 한계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도 인도의 높은 비관세장벽과 과당경쟁, 그리고 인도 내 현지생산 및 조달 확대에 의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HS 7209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를 대체할 신규시장을 발굴,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에 따라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HS 7219 역시 내부적으로 수출경쟁력 저하 및 시장 확대 역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인도의 현지생산 및 조달 확대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해당품목 수출기업들이 인도를 보완, 대체할 신규시장을 발굴해감에 따라 대인도 수출이 점차 감소, 정체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품목 외 HS 7201~23대 품목 중 상당수가 인도의 비관세장벽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표 5-5. 철강 및 철강제품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구분	요인
외부적 요인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구조 변화, 현지생산 및 조달 확대
내부적 요인	CEPA 활용도 저조, 현지화, 인도 외 신규시장 발굴

자료: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5) 자동차부품(HS 87), 정밀기계(HS 90)

HS 8708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인도의 높은 관세율, 내부적으로는 현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관세율의 경우 인도정부의 로컬생산 확대 활성화를 위한 관세인상 조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CEPA 양허 제외 품목, 기타 반덤핑관세 부과 등이 우리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현지화를 추진해 해당 품목의 대인도 수출이 지속 감소,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교적 수출경쟁력이 양호한 HS 9031, HS 9032 등의 정밀기계 품목은 인도 내 과당경쟁으로 기업들이 수출 감소, 정체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표 5-6. 자동차부품/정밀기계류 품목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구분	요인
외부적 요인	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구조 변화
내부적 요인	현지화, 인도 외 신규시장 발굴

자료: 제2장, 제3장, 제4장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가.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다양한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최근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현상은 상당 부분 내부적 역량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설문 및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 및 경영효율성 저하로 인도시장 내 경쟁열위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인도 로컬시장을 개척하거나 현지 다국적, 인도 로컬기업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국내 원부자재 조달 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에서 기인했거나 또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및 수출 형태가 독자적이 아닌,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로컬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경험과 전략, 또는 그 필요성이 적어 수출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⁷⁷⁾

국제원자재 가격 및 수급 변동, 기타 비용 상승요인으로 인한 리스크는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내부 역량 제고는 상당 부분 기업의 몫이라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 기업이 대인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인도 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대응 △ 로컬기업과의 적극적 파트너십 구축 △ CEPA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도의 산업 및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산업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정책('메이크 인 인디아')은 물론, 디지털 경제화의 진전을 위해 관련 정책('디지털 인디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77)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기업들은 이를 통해 유발되는 다양한 개발 사업 및 산업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인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류 중심의 자본재, 또는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가격 측면에서 중국의 공세에 경쟁우위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고도성장과 함께 인도인들의 소득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요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최종재(소비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미 인도 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접하기 힘든 만큼, 비교적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요하는 제품 중심으로 인도의 높아진 구매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밀기계류(HS 90) 중 의료기기, 정밀계측기기 등이 인도시장 내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판단된다. 위 품목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출 애로 요인으로 과당경쟁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해당 분야에 저가 전략을 펼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기술력을 요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경우 중국이나 로컬 기업보다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인도시장 내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⁷⁸⁾

한편 중산층 및 청년층 증가, 서구화된 생활 패턴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식품류, 건강 및 미용 제품, 퍼스널 케어 제품 등도 품질,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재품의 경우 과거 전통적인 무역 방식이 아닌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 간 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⁹⁾ 또한 인도 내 최종 소비재 수요변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중간재 수요 역시 확대될 가

78) 무역협회(2018), 「인도 의료기기 시장 현황」, KITA market report.

79) 2016년 인도정부는 식료품 제조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 FDI를 100% 허용함.

능성이 높아 이는 기술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기회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⁸⁰⁾ 이밖에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에 따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통신기기, 사물인터넷, 5G, 모바일 관련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전기기기(HS 85) 제품 수요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관련 품목 수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⁸¹⁾

본 연구의 설문과 현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중국 등 후발주자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미 가격 경쟁열위로 전환되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고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유발되는 새로운 수요에 대해 기업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수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우리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로컬기업이나 다국적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기업들은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형태가 대부분이고, 사업 초창기 이들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해 대인도 수출을 하거나 현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진출 경로는 대부분 협력사 형태인 중소기업들에게 인도시장 진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로컬바어나 협력업체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⁸²⁾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종료나 조건 변화, 또는 협력사의 시장철수 등으로

80) KOTRA는 인도 내 가공식품 수요 증대로 이를 제조, 가공 및 포장하기 위한 기계류 수출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KOTRA 해외시장 뉴스(2017. 12.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8)].

81) 삼성은 인도의 5G 통신수요 증가로 인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지오에 5G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함.

82) KOTRA에 따르면 대인도 수출을 문의하는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인한 갑작스런 사업 환경변화는 독자적으로 수출, 판매선을 구축하기 위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이들 기업에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⁸³⁾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도 내 협력기업(바이어, 유통/판매처)의 시장철수 및 관계악화(계약변경 및 종료)’로 인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책 응답률이 자동차(HS 87), 플라스틱/고무(HS 39/40), 철강(HS 72/73) 등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동반진출 의존도가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볼 때 우선 동반진출을 통해 인도 수출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범위를 확대하면서 시장과 품목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과도한 동반진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인도 내 로컬, 또는 다국적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신규 로컬시장 확대는 물론, 자연스럽게 GVC 편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수출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중소기업들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로컬기업과의 연계를 적극 주선해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 현지 동반진출 기업들은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현지 자회사를 설립해, 로컬생산을 하거나 필요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때 현지에 있는 한국 자회사(또는 계열사, 협력사 등)와 로컬기업과의 매칭이 활발해지고, 거래관계가 구축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CEPA 활용도 제고

우리 기업들은 CE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CEPA 발효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수출 CEPA 활용률은 60%

83) 실제 2, 3차 벤더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도시장 철수와 진입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수준으로 다른 FTA의 평균 활용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기업들의 CEPA 활용률이 낮은 요인은 주로 자사 수출품목의 CEPA 양허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개 응답기업 중 CEPA 양허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7.7%(113건)에 달한 반면, CEPA 양허 대상임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대부분 적극 활용(95%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CEPA 혜택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중 비교적 양허율이 높은 전기기기(HS 85), 자동차부품(HS 87), 기계류(HS 84) 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CEPA 미인지 비율이 각각 72%, 42.6%, 33.9%로 높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예상대로 CEPA미인지 비율은 고용인 100인 미만(또는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으며, 활용률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CEPA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외부요인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수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EP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날로 심화되는 인도 내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CEP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 뉴델리에 CEPA활용지원센터가 개소했으며,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하고 있다.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플러스’도 현지에서 운영 중이다.⁸⁴⁾ 반면, 우리 기업들은 CEPA 미인식, 미활용 이유로 주로 정보부족과 활용방법 미숙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CEP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거나 기업 내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84) ‘코리아플러스’는 2016년 인도 투자청 (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한국기업 전담 투자상담창구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나. 장기적·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1) 비관세장벽 완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와 양국간 경제협력 채널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도 수출을 저해하는 통상장벽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은 설문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도의 복잡한 통상환경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 정체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체로 그 이유들은 로컬 통관당국 수준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와 관련한 어려움이 대부분이다. 특히 BIS 등 인증이 필요한 철강, 기계류, 전기기기, 통신기기, 의료기기, 식품 품목 등은 수반되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까다로운 세관 심사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통관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⁸⁵⁾ 이밖에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은 반덤핑 규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통관절차 및 요구 서류의 비밀관성, 담당자마다 상이한 심사 기준, 금전 요구, HS 코드 임의변경 및 적용 등의 사례가 로컬 세관당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⁸⁶⁾

비관세 장벽은 비단 우리수출기업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정부차원

85) 인도의 인증제도는 BIS(일반품목, 철강), CRS(전기기기), CDSCO(의료기기), CDSCO(화장품), CPCB(WEEE/RoHS), CPRI, DGMS(기계), ISI, STQC(전기안전), TEC(유무선통신) 등이 있음.

86) 뭄바이에서는 이 같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탐정수사,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첸나이는 관련 노력이 미진한 수준임. 첸나이에서는 품목, 기업에 대해 세관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뒷돈을 이전보다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과거에는 품목별로 세관원이 배정되어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움[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 중앙정부와는 제도적 기술적 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한편으로 통관절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주 당국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주정부와의 협력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⁸⁷⁾ 현재 양국간 비관세장벽에 대해 지난 2018년 9월 1차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대인도 수출제품에 대해 조치된 인도 측의 반덤핑 부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 조치 자체를 요청했다.⁸⁸⁾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지만, 양국간 첫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정례화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립하고 상호 비관세장벽 완화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화채널로 적극 발전시킬

글상자 5-1. HS 코드 임의변경 및 적용 사례

□ 자동차부품(고무류) 수출 품목 HS 코드 임의변경 및 적용 사례

- 인도 첸나이에 진출한 한국기업 D사는 CEPA 양허 대상인 자동차부품(고무류)을 지난 수년간 관세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으로부터 조달해왔음.
- 하지만 최근 동일 품목에 대해 첸나이 세관에서 HS 코드를 임의로 변경(others → car bodies), 적용하면서 CEPA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세 10%가 부과됨.
- HS 코드의 경우 품목에 따라 분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세관에서 담당자의 판단하에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며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음.
-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세관 관련 실무자 미팅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합의되는 듯했으나, 최종승인 단계에서 뒷돈을 요구함.
- 이를 거절하자 법정에서 항소하라고 요구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자료: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11명 참석).
필요가 있다.⁸⁹⁾

87) 주 통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중앙정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타밀나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세관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통관심사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밀나두 주정부와 KOTRA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 대표들 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타밀나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례도 있음.

88) 2018년 9월 기준 장기 반덤핑 부과 품목 약 20여 개(①NBR('95~), ②아크릴 섬유(Acrylic Fiber)('96~), ③가성소다(Caustic Soda)('02~), ④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02~), ⑤아세톤(Acetone)('07~), ⑥고무노화방지제(6PPD)('07~) 등)가 존재함. 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fta_news/fta_news_view_kita.jsp?idx=35338(검색일: 2018. 12. 5).

2) CEPA 개선 협의 지속

정부는 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인도정부와 CEPA 개선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CEPA 발효 9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기준, 당시 합의했던 양국간 양허수준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스케줄에 따라 관세의 완전 철폐, 또는 부분적 철폐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HS 29), 자동차 부품(HS 87), 플라스틱(HS 39)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양허 대상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가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CEPA 미양허 주요 수출품목의 상당수가 관세장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⁹⁰⁾ 이에 CEPA 협상 당시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⁹¹⁾

이 밖에 CEPA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CEPA 협정문에 CEPA 특혜관세 사후환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사후 제출 시 양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항공화물과 같이 사후 서류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화물의 경우는 거의 CEP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⁹²⁾ 이밖에 원산지증명서 중복 요구(매 선적시), 까다로운 원산지 심사 등도 기업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89)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201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의 후속조치임.

90) 2018년 2월 인도정부는 일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7.5% 또는 10%에서 각각 15%로 인상함.

91) 자동차부품 산업계는 정부에 CEPA 미양허 49개 품목에 대한 추가 자유화를 요청함.

92) 인도 현지 간담회 내용 인용(2018. 10. 31, 인도 첸나이).

- 자동차부품: 392690, 401110, 401693, 700711, 700910, 731875 등 49개
- 석유화학: 290532, 290711, 291612, 291732, 390410, 390720, 391793, 391990, 932190, 392329, 400921 등
- 전기기기: 853710, 854449, 854430, 854411, 854420 등
-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0421, 721933, 731815 등

자료: 설문조사 및 양허안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현지화, GVC를 통한 교역선순환 환경 구축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가격 또는 일부 품질 측면에서 점차 경쟁열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어 수출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⁹³⁾ 이는 수출선순환 효과로 우리의 대인도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은 인도를 GVC 거점으로 삼아 양국 교역확대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역시 우리나라를 GVC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무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를 GVC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아세안 간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생산거점인 아세안과 이어지는 GVC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역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화와 교역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단순히 양적 교역 확대에 집착하

93)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인도 수입시장점유율이 더 낮고, 최근 수출증가율도 낮은 상황임. 이는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 요인보다는 꾸준한 현지화를 통해 수출을 대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의 대인도 신규 투자 진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언제든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선순환 여건이 마련될 여지가 있음.

기보다는 수출선순환을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GVC를 통한 전후방 글로벌아웃소싱 활성화로 교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의 현지화 진출을 유도하고, 나아가 GVC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가.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본 연구는 인도의 고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산업고도화,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입수요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IEP와 같은 싱크탱크, 산업통상부, KOTRA, 민간협회 및 단체, 학계 등과 인도 측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을 제안한다. 과거 비정기적이고 성과가 미진했던 공동연구그룹과 달리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연구 사업으로 시스템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⁹⁴⁾

공동연구를 통해 인도에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품목 정보를 우리 수출기업들과 공유하고 밀착 지원한다면,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 증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에서 살펴봤듯이 최근 인도에서 빠르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중 우리 기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이 상당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

94) 국내 대학 중 대인도 수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기 중 학생들이 직접 현지에서 수출유망 품목을 연구조사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인도 로컬기업과 계약까지 추진해 수익 일부를 보상받는 산학연계 연구조사, 마케팅 프로그램이 있음.

거나 인도를 주력이 아닌 보완시장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잠재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공동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파악한 정보를 적극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품목별 현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업들과 공유해 실제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 역시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한국의 수요변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인도의 산업고도화와 디지털 경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기회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도의 과도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완화하고, 양국 교역의 균형을 통해 CEPA 등 인도와의 추가 무역협상 여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양국 경제협력기금, 또는 별도의 CEPA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연구 결과는 양국 비즈니스포럼, 경제협력 포럼, 한·인도 다이얼로그 등 기존 민간 협력채널을 활용, 양국 기업들과 공유해 공동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동 프로그램을 항시화하면 지속적으로 협력기회를 관찰하고 안정적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 수요변화 이슈를 넘어, 공동연구의 범위를 양국간 통상 이슈, 현지화, 협력사업 발굴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본 연구는 대인도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인도 로컬기업과 인도 기진출 한국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도 일부 지역에서 KOTRA 무역관에 의해 일회성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기화되거나 인도 내 전 지역에 걸쳐 추진되진 못하고 있다.⁹⁵⁾ 매칭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그동안 인도 내 로컬기업과의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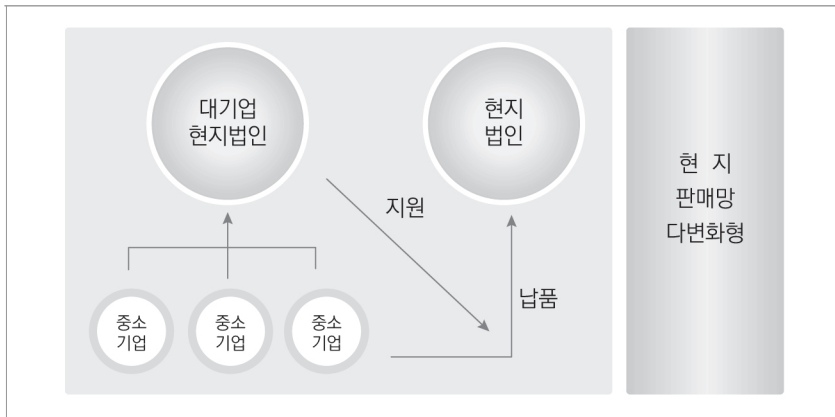
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동반진출 형태가 많아 발주처인 대기업의 발주량 변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으며, 판매망을 다변화하지 못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프로그램은 KOTRA,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동반진출 벤더), 동반진출 대기업(기존 구매기업), 인도 로컬기업(잠재적 구매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주력인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전기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분포된 산업집적 특성에 맞춰 구매자-공급자 간 매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차, 3차 벤더 등 현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다 집중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동반진출 기업의 납품에만 의존했던 우리 중소기업의 로컬 판매망이 다변화되는 것은 물론, 인도 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 시장정보접근성 향상, 노하우 축적 등이 기대된다. 우선적으로는 최근 인도 내 중국의 영향으로 대인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류, 전기기기 분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기업 현지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초 자사의 원부자재 조달을 목적으로 동반진출 기업들과 협력했지만, 이들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컬시장 발굴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벤더업체들의 안정적인 현지화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공존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대기업 자신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인 수직연계 기회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협력 매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해 KOTRA와 인도 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율도 중요할 것이다.

95) 2018년 12월 7일 인도 첸나이에서 자동차산업 부문 매칭 프로그램이 개최됨.

이처럼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체들의 로컬시장 확대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 로컬기업은 물론,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과의 수직연계 기회 확대는 인도 내 생산 확대를 유발해 한국 모기업이나 협력사 등으로부터의 자본재, 원부자재 조달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도를 GVC 거점으로 활용해 글로벌 아웃소싱시장 진출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한·인도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안)



자료: KOTRA 내부자료 인용.

다.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본 연구는 양국간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우리 정부는 인도정부와 상호 출연을 통해 아세안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⁹⁶⁾ 인도 측의 출연이 어렵다면 1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96)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연간 700만 달러→1,4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연간 100만 달러→300만 달러), 2022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펀드’ 1억 달러 추가 조성 등 각종 협력기금 확대 계획을 발표함.

누리고 있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 다양한 경제현안이 산재해 있고, 무엇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협력기금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인도 협력기금은 본 장에서 제시한 △양국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CEPA 활용도 제고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CEPA의 경우 '한·인도 CEPA 협력기금'을 별도로 분리해 조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CEPA 개정 시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인도 CEPA 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는 물론, CEPA 활용도를 높여 양국 교역 활성화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인도 측이 CEPA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⁹⁷⁾

한편 우리 정부는 본 협력기금을 최근 양국간 교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제도적 기술적 장벽, 무역구제, 로컬통관 이슈, 인증문제 등) 해소나 추가 양허 품목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측의 기금부담 비중을 확대하거나, 인도의 산업고도화와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국 협력사업('한국 제조업 전용공단' 등)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은 물론, 제한된 자금 규모를 고려해 EDCF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전략적 준비 역시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

97) 2006년 시작된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의 경우 통관·무역투자 진흥·중소기업 지원 등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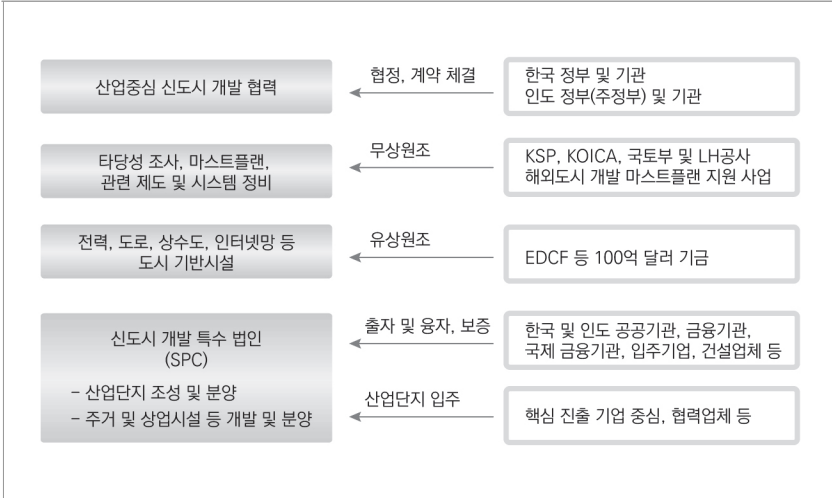
라.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현지화, 나아가 인도를 GVC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 협력개발사업인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추진을 제안한다. 본 사업은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선순환과 질적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도 역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된다면 산업고도화는 물론, 디지털화,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점은 인도와의 각종 통상현안 문제 조율 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우리의 역량과 인도 측의 관심분야를 고려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자기기, 식품가공, 제약 분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인도 로컬기업이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기술이전, 확산에 의한 집적효과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스마트화된 인프라와 혁신 생태계하에 이러한 효과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진출기업들의 성과 개선은 물론 공단 내 기업 간 수직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도-세계로 이어지는 GVC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다양한 신도시를 단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리의 경험과 양국 정상 간 약속한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기진출 혹은 진출 예정기업, 공공기관, 정부의 역량을 패키지화한 Team Korea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조기에 개발·성공시켜 Team Korea 역량과 이미지를 브랜드화해, 추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림 5-2. Team Korea 형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 구조(안)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보다 인도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낮지만 이는 지난 기간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현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인도 라자스탄에 님라나 일본전용공단 개발을 적극 추진했으며, 2018년 현재 약 60여 개 일본기업이 입주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⁹⁸⁾ 이밖에도 마하라슈트라, 마드야프라데시,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와 일본전용공단 설립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주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면서 일본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화가 안정화되면서 로컬소싱이 증가하고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조달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일본 전용공단 내 일본기업의 안정적 진출은 로컬기업과의 거래 확대는 물론, GVC 편입 기회를 높임으로써 일본의 제3국 수출 확대와 질적 교역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이 지속적으로 현지화와 양국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 확대에 의해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언제든

98) <http://neemranaindustries.com/allmembers.aspx>(검색일: 2018. 4. 11).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은 물론, 투자진출 역시 감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유망한 협력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인도 내 적정 사업지역과 인도 측 협력 파트너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또는 품목별로 현지화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 요인으로 대인도 수출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는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분야에 현지화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을 수 있어, 해당 분야를 우선대상으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인도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본 사업을 통해 인도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 전기기기,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수출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한 일부 비주력 품목까지 해당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인도 수입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품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이마저도 최근 인도 수입시장 내 중국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언제까지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특히 내부적으

로 기업 생산성/효율성 저하 및 시장 진출 역량 한계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면, 인도 로컬시장을 포함, 인도를 거점으로 제3국 수출기회까지 확대되어 GVC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지화와 GVC 거점화가 대인도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부가가치 기회에 의미를 두고 인도를 거점으로 삼아 주변 아세안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거나 또는 아세안을 대인도 수출 우회경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현지화와 GVC 거점화는 인도 내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등과 같은 보다 전략적인 사업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표적 성공사례인 ‘네팔이나 일본전용공단’ 개발사업을 참고하고, 과거 우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철저한 준비하에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인도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⁹⁹⁾

최근 미·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제의존도 완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인도를 핵심협력대상 국가로 선정했으며, 2018년 7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역 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및 투자가 감소, 정체되어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고착

99) 2013년 우리나라는 라자스탄주 기로트 지역에 한국전용공단 개발을 추진했으나 인도정부와의 협력 미흡,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었음(<https://korindia.com/indianewscroll/15464>, 검색일: 2018. 12. 5).

화될 경우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의 성과와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인도 경제협력 방향과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체적인 협력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수준을 높이고, 수출경쟁력 제고와 교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권철우, 전봉걸. 2008.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 『금융경제연구』, 제328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201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최근 한국의 對인도 수출확대의 배경과 향후 과제」. KIEP 세계경제 제7권 제4호 통권 67호, p. 90.
- 모수원, 정홍영, 이광배. 2015.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부산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1, No.3, 2015, pp.141~153.
- 무역협회. 2018. 「인도 의료기기 시장 현황」. KITA market report.
- 박광순, 이진면, 전혜진. 2012. 12.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전략적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신현수, 이원복. 2003.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p.16.
- 오동윤. 2012.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결정요인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2호, pp. 135~159.
- 이 용, 송영철, 이정미. 2013.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부문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용, 이정미, 김신주, 장용준. 2016.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용,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2014.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훈. 1993. 「한국의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기술개발이 비교우위변화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제학연구』, 제41집 제1호, pp. 265~286.
- 전봉걸, 권철우. 2007.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금융경제논총』 2007-1, pp. 251~290.
- 천용찬 외. 2016.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6-19(통권 692호), p. 14. 현대경제연구원.
- 최낙균, 강준구, 이홍식, 한치록. 2017.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p. 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2007. 「최근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요인 분석」. KDI 현안분석.
- 한국무역협회. 2018. 「2017년 우리 수출의 호조 요인 분석- 4 빅 시장을 중심으로」. 『Trade Focus』, 15호.
- KOTRA. 2006. 『한-인도 CEPA 체결과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유망품목』. 기획조사 06-004. p. 2.

[영문자료]

- Amable, Bruno and Bart Verspagen. 1995. "The Role of Technology in Market Shares Dynamics." *Applied Economics*, 27(2): 197-204.
- Carlin, W, A. Glyn, and J. Reene. 2001. "Export Market Performance of OECD Countri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Cost Competitiveness." *The Economic Journal*, 111(Jan), pp. 128-162.
- Fargerberg, J. 1998.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difference in growth rat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2, Sep.
- Goldar, Bishwanath. 2013. "Determinants of Import Intensity of India's Manufactured Exports Under the New Policy Regime." *Indian Economic Review*, 2013, Vol. 48, issue 1, 221-237.
- Landesman, M. and M. Pfaffermayr. 1997.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rade Performance." *Applied Economics*, Vol. 29, pp. 96-179.
- Madden, G., Scott, J., and Su Yin Thong. 1999. "Technology, Investment and Trade: Empirical Evidence for Five Asia-Pacific Countries." *Applied*

Economic Letters, Vol. 6, pp. 361-363.

Nakajima, Jouchi, Kosuke Takatomi, Tomoko Mori, and Shinsuke Ohyama. 2016. "Slow Trade: Structural and Cyclical Factors in Global Trade Slowdown." *Reports & Research Papers*. International Department, Bank of Japan. (December)

Ioannidis, E. and Schreyer P. 1997. "Technology and non-Technology Determinants of Export Share Growth." *OECD Economic Studies*, Vol. 28, pp. 169-205.

Kumar, Nagesh. 2001. "Determinants of location of overseas R&D activity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case of US and Japanese corporations." *Research Policy*. Elsevier, Vol. 30(1), pp. 159-174. (January)

Ul Haq Wani, Nassir, Jasdeep Kaur Dhani, and Afzal Ur Rehman. 2016. "The Determinants of India's Imports: A Gravity Model Approach." *MPRA Paper 74700*. Germany: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온라인 자료]

뉴스1. 2016. 「철강협회 "인도 철강 반덤핑 판정, 한국산은 제한적"」. (8월 10일)
<http://news1.kr/articles/?2743899>(검색일: 2018. 10. 5).

매일경제. 2018. 「한국, 인도 수출 '흔들'...작년 증가율 30%→올해 4%」. (6월 29일)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sCode=21&t_uid=21&c_uid=2981905(검색일: 2018. 8. 1).

미 상무부. 2018. "Office of Transportation and Machinery Automotive Parts Product Listings Revised." (July 26) <https://www.trade.gov/tdotm/assets/auto/APcodes.pdf>(검색일: 2018. 10. 5).

삼성뉴스룸. 2017. 「삼성전자, 인도 이동통신 시장 지형 바꾼다」. (2월 28일)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EC%9D%B8%EB%8F%84-%EC%9D%B4%EB%8F%99%ED%86%B5%EC%8B%A0-%EC%8B%9C%EC%9E%A5-%EC%A7%80%ED%98%95-%EB%B0%94%EA%BE%BC%EB%8B%A4>(검색일:

2018. 10. 5).
- 세계은행 WDI(검색일: 2018. 11. 15).
- 신아일보. 2018. [2018신년특집] 「'진퇴양난' 韓 자동차산업...“인도시장 잡아라”」.
(1월 2일)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564>(검색일: 2018. 10. 5).
- 연합뉴스. 2017. 「한국 金수입 반짝 10배 폭증...세공해서 인도로 수출」. (10월 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139700002.HTML?input=1195m>(검색일: 2018. 8. 7).
- 유로저널. 2016. 「인도도 수입 감소로 올 4월 무역적자 최저치 기록」. (5월 17일)
http://eknews.net/xe/?mid=kr_politics&category=26886&document_srl=365449&page=17&document_srl=479415&listStyle=viewer(검색일: 2018. 8. 13).
- 인도 재무부. 2018. Notification No. 6/2018-Customs(발표일: 2018. 2. 2).
<http://www.cbic.gov.in/Customs-Notifications>(검색일: 2018. 8. 9).
- 한경 비즈니스. 2018. 「위태로운 수출 버팀목...D램·낸드플래시 가격 '흔들」. (10월 10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48703>(검색일: 2018. 11. 8).
- 한국무역신문. 2018. 「인도, 수입관세 인상...韓 자동차 등 수출 타격」. (2월 6일)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37327>(검색일: 2018. 8. 9).
-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8. 9. 17, 11. 16, 11. 1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1. 15).
- Bloomberg. 2018. “Union Budget 2018: The List Of Items With Changes In Custom Duty.” (2월 2일). <https://www.bloomberqint.com/union-budget-2018/2018/02/01/union-budget-2018-the-list-of-items-with-changes-in-custom-duty#gs.f5sdZgI>(검색일: 2018. 8. 9).
- Economic Times. 2017. “India’s anti-dumping duty impose on steel products to benefit domestic mills.” (May 1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indl-goods/svs/steel/indias-anti-d>

- umping-duty-impose-on-steel-products-to-benefit-domestic-mills/articleshow/58658791.cms(검색일: 2018. 10. 5).
- Global Trade Alert. <https://www.globaltradealert.org/country/95>(검색일: 2018. 11. 19, 11. 26).
- Hindustantimes. 2018. “Samsung to conduct large-scale 5G trials in Delhi in Q1 2019.” (Oct 27) <https://www.hindustantimes.com/tech/samsung-to-conduct-large-scale-5g-trials-in-delhi-in-q1-2019/story-1MLPuCwdVQdCRA43cGyEjI.html>(검색일: 2018. 10. 5).
- IMF WEO(검색일: 2018.11.12.).
- Korindia. <https://korindia.com/indianewsscroll/15464>(검색일: 2018. 12. 5).
-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 「[유망] 인도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12월 7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3038>(검색일: 2018. 8. 8).
- KOTRA. 2011. “자동차 CKD 규정 변경으로 요동치는 인도시장”. (3월 17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05172>(검색일: 2018. 10. 5).
- Singh, Jitender. 2012. “Impact of the Surge in Chinese Import on Indian Manufacturing Sector,” Research Studies Office of the Economic Adviser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 http://eaindustry.nic.in/discussion_papers/Impact_Chinese_Import.pdf(검색일: 2018. 9. 10).
- UN Comtrade(검색일: 2018. 8.1, 9.13, 10. 4).
- WITS(검색일: 2018. 9. 13~11. 15).
- WTO i-tip(검색일: 2018. 10. 5).

[간담회 자료]

- 인도 현지 간담회(2018. 10. 30, 인도 델리).
- 인도 현지 간담회(2018. 10. 31, 인도 첸나이).



부록



부표 1. 가공단계별 BEC 코드 분류

구분		BEC 코드	제품명
원자재		111	산업용 식·음료품
		21	산업용 원자재
		31	연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분·부분품	42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부품
		53	운송장비의 부품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	7	미분류	

자료: 천용찬 외(2016),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6-19(통권 692호), p. 14, 현대경제연구원.

부표 2. 한-인도와 일-인도 CEPA 상품부문 양허유형 비교

구분	유형	내용
한-인도 CEPA	E-0	발효일 기준으로 관세 즉시 철폐
	E-5	발효일 기준 이행 4년차인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E-8	발효일 기준 이행 7년차인 2017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RED	발효일 기준 이행 7년차인 2017년 1월 1일 관세율이 1~5%가 되는 상품
	SEN	한국은 8단계, 인도는 10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인하, 최종관세율이 기준관세율의 50%로 인하
	EXC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서 면제
일-인도 CEPA	A	발효일 기준으로 관세 즉시 철폐
	B5	발효일 기준 5년 간 철폐
	B7	발효일 기준 7년 간 철폐
	B10	발효일 기준 10년 간 철폐
	Pa	발효일 이후 2017년 1월까지 5%로 점진적 관세 인하
	Pb	발효일 이후 2019년 1월까지 6.25%로 점진적 관세 인하
X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무 면제	

자료: 이 웅 외(2014), p. 59.

<p>◆ [공통설문]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 대상 (설문지A) ※복수응답 가능</p> <p>1. 귀사의 대인도 수출품목 생산 지역(해외생산시설 보유 유무) ①한국 ②동남아 ③유럽/미주 ④중국 ⑤기타 남아시아 국가(인도 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⑥기타()</p> <p>2. 귀사의 대인도 수출대상 기업 형태 ①인도에 진출한 귀사의 자회사 ②인도에 동반진출한 귀사의 한국 협력사(바이어, 공급사) ③인도에 진출한 기타한국기업(수입사, 제조사, 유통/판매사 등) ④인도로컬기업(수입사, 제조사, 유통/판매사, 합작사 등) ⑤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p> <p>3. 귀사 제품의 대인도 수출목적 및 수출품목 형태 ①최종재의 인도 내수시장 진출(유통/판매) ②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공 및 조립, 생산 후 내수시장 판매 ③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공 및 조립, 생산 후 재수출(한국, 또는 3국 수출)</p> <p>4. 귀사의 인도 외 수출대상 국가 ①중국 ②동남아 ③일본 ④미주 ⑤유럽 ⑥남아시아 ⑦기타()</p> <p>5. 귀사 대인도 수출품목의 CEPA 양허대상 여부 ①양허대상 ②양허대상 아님 ③모르겠음</p> <p>6. 귀사 대인도 수출품목의 CEPA 활용 여부 ①활용 ②일부활용 ③미활용</p> <p>7. 귀사의 인도 외 수출대상 국가 중 FTA 활용 여부 ▶한-ASEAN FTA - ①활용 ②일부활용 ③미활용 ▶한-EU FTA - ①활용 ②일부활용 ③미활용 ▶한-미국 FTA - ①활용 ②일부활용 ③미활용 ▶한-중국 FTA - ①활용 ②일부활용 ③미활용 ▶한-베트남 FTA - ①활용 ②일부활용 ③미활용</p> <p>8. 귀사의 대인도 수출 변화 시점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①증가 ②감소 ③변화 없음 ▶2010년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①증가 ②감소 ③변화 없음</p> <p>9. 귀사의 최근 연도별 대인도 수출규모(US달러) 한-인도 FTA 이전-▶2009년:(예: 100만 달러) ▶2010년: 한-인도 FTA 이후-▶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p>10. 최근 3년간 귀사의 대인도 수출 변화 평가 ①기대치에 비해 감소 및 변화 없음 (설문지 B-1로 이동) ②기대치에 비해 증가 (설문지 B-2로 이동)</p> <p>11. 귀사의 대인도 수출 및 인도 현지생산 전환 여부 ①처음부터 수출만 실시 ②수출만 하다가 이후 현지생산 병행 ③수출만 하다가 이후 현지생산으로 완전 전환 ④처음부터 수출과 현지생산을 병행 ⑤기타()</p> <p>12. 귀사의 대인도 투자진출 형태(*인도현지에서 직접생산 및 유통, 판매를 할 경우) ①인도 내 직접 생산시설 및 경영 인프라 구축(그린필드 투자) ②인도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③인도현지기업 및 인도에 기진출한 다국적기업/한국기업 인수합병(브라운필드 투자) ④기타()</p> <p>13. 귀사의 생산시설이 인도에 있는 경우 진출 지역 ①델리 ②구르가온 ③첸나이(타밀나두) ④뭄바이(마하라슈트라) ⑤노이다 ⑥구자라트 ⑦라자스탄 ⑧방갈로르 ⑨하이데라바드 ⑩웨스트벵골 ⑪기타()</p> <p>14. 귀사의 투자진출지역 선정 이유 ①양호한 인프라(교통, 전력, 수자원 등) ②다양한 인센티브(세금감면, 보조금지원, 토지공급 등) ③협력기업과의 근접성(집적성) ④높은 시장근접성 ⑤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⑥원활한 원부자재 공급 ⑦기타()</p> <p>15. 귀사 현지생산시설의 지역 산업단지(클러스터) 내 집적 여부 ①산업단지 내에 위치 ②산업단지 외곽에 위치 ③기타()</p>

◆ [세부설문] 대인도 수출이 '감소 및 변화 없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 (설문지B-1) ※복수응답 가능

1. 귀사의 대인도 수출 '감소 및 변화 없음'의 외부적 요인

- ① 환율변동
- ② 인도의 높은 관세율
- ③ 인도의 기술적, 제도적 비관세장벽
- ④ 인도 내 해당품목 수요 감소
- ⑤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 경쟁우위 하락(가격, 품질, 브랜드 등 다른 기업과 비교 시)
- ⑥ 인도정부의 원부자재 로컬조달 의무화
- ⑦ 인도 내 협력기업(바이어, 유통/판매처)의 시장철수 및 관계악화(계약변경 및 종료)
- ⑧ 기타()

1-1. 귀사가 생각하는 인도시장 내 주요경쟁 국가(기업) 변화

- ▶ 과거: ①한국기업 ②인도기업 ③중국기업 ④일본기업 ⑤미국/유럽기업 ⑥동남아기업 ⑦기타()
- ▶ 현재: ①한국기업 ②인도기업 ③중국기업 ④일본기업 ⑤미국/유럽기업 ⑥동남아기업 ⑦기타()

1-2. 귀사의 인도시장 내 주요경쟁 국가(기업)와의 경쟁관계 변화

- ① 경쟁우위 지속 ② 경쟁열위 지속 ③ 경쟁우위->열위전환 ④ 경쟁열위->우위전환 ⑤ 경쟁우위 및 열위 없음

1-3. 귀사의 경쟁자 대비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 전환 요인

- ① 가격 ② 품질 ③ 판매 및 유통인프라/마케팅
- ④ 로컬협력사와의 관계 강화/약화 ⑤ 우리 정부의 지원우위/열위(경쟁국 대비)

1-4. 귀사의 수출대상국 간 수출변화 비교

(*인도 외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기업만 답변, *다른 국가는 대표 수출국)

- ① 인도만 감소, 다른 국가는 변화 없음 ② 인도와 다른 국가 모두 비슷하게 감소
- ③ 모두 감소했지만 인도가 더 많이 감소 ④ 모두 감소했지만 인도보다 다른 국가가 더 감소 ⑤ 기타()

1-5. 귀사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의 인도 관세율과 동일제품의 다른 국가 관세율과의 비교

(*인도 외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기업만 답변, *다른 국가는 대표 수출국)

- ① 인도의 관세율이 더 높음
- ② 다른 국가의 관세율이 더 높음(*해당국가 선택: 중국/베트남/미국/일본/유럽/기타)
- ③ 비슷함

1-6. 귀사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과 다른 국가 비관세장벽과의 비교

(*인도 외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기업중 비관세장벽을 경험한 기업만 답변)

- ①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더 높음
- ② 다른 국가의 비관세장벽이 더 높음(*해당국가 선택: 중국/베트남/미국/일본/유럽/기타) ③ 비슷함

1-7. 귀사가 경험한 인도의 비관세장벽의 종류

- ① 세이프가드 ② 반덤핑규제 ③ 기술 및 인증규제 ④ 검역 ⑤ 일시적 수입규제/금지 ⑥ 복잡한 통관절차
- ⑦ 기타()

1-8. 귀사가 경험한 인도의 비관세장벽의 구체적 사례 (*해당경우에만 응답)

<p>2. 귀사의 대인도 수출 '감소 및 변화 없음'의 내부적 요인</p> <p>①기업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②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③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공급능력 한계 ④한-인도 CEPA양허혜택 활용의 어려움 ⑤인도 현지생산 증가로 인한 수출 비중 감소 ⑥인도 외 신규수출시장 발굴 ⑦한국 국내시장 수요확대</p>
<p>2-1. 귀사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p> <p>①인건비 증가 ②원자재 비용 증가 ③경영비효율성 증가 ④연구개발 감소 ⑤재무적 불안정 ⑦기타() ⑧해당 없음</p> <p>2-2. 귀사의 인도시장,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 한계 요인</p> <p>①자체 발굴(현지 지사, 사무소 활용) 역량 부족 ②한국 및 인도정부기관 지원(기업매칭, 시장정보제공 등) 부족 ③로컬에이전시 활용 약화 ④한국에이전시 활용 약화 ⑤기타()</p> <p>2-3. 귀사의 수출품목이 양허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또는 활용했지만 다시 활용하지 않는 이유(*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만 답변)</p> <p>①정보부족 ②비용부담 ③전담인력부족 ④수입사측 거부 ⑤활용방법 미숙지(복잡한 절차 및 원산지규정 등) ⑥CEPA혜택 가능여부 미인지 ⑦효과미미 ⑧기타()</p> <p>2-4. 귀사가 확보한 신규수출시장 지역(*대인도 수출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로 수출할 경우만 답변)</p> <p>①동남아 ②중국 ③일본 ④유럽 ⑤미국 ⑥중남미 ⑦남아시아 국가(인도제외) ⑧기타()</p>
<p>3. 귀사의 대인도 수출 전망(단기 1~3년, 중장기 4~10년)</p> <p>①지속증가 ②지속감소 ③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감소, 둔화할 것 ④단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 ⑤변화 없음</p>
<p>3-1. 귀사의 대인도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p> <p>▶외부요인: ①인도경제 발전(고성장) ② 인도의 산업구조변화(수입구조변화) ③인도의 개혁개발정책(제조업육성, 인프라개발 등) ④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⑤통관절차 간소화 ⑥우리 정부지원 확대</p> <p>▶내부요인: ①경쟁력 제고/생산성 개선(가격 및 품질, 효율성 등 개선) ②시장 발굴 확대 ③유통/판매 네트워크 강화 ④한-인도 CEPA 활용 확대 ⑤현지생산기지 구축</p> <p>3-2. 귀사의 대인도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p> <p>▶외부요인: ①협력사 철수(동반진출의 경우) ②시장경쟁심화 ③인도의 산업구조변화(수입구조변화) ④관세 및 비관세장벽 심화 ⑤인도측 파트너사 선정 어려움 심화 ⑥정부지원 미비</p> <p>▶내부요인: ①경쟁력 하락/생산성 악화 ②대체시장 발굴/수출선 다변화 ③현지생산 및 로컬소싱 확대</p> <p>3-3. 귀사의 대인도 투자진출 계획(신규, 또는 재투자)</p> <p>①투자진출 확대 계획(신규포함) ②투자진출 감소 계획 ③현 상태 유지 ④계획 없음</p> <p>3-4. 귀사의 대인도 수출, 또는 투자확대를 위한 필요 정부지원 사항</p> <p>①CEPA활용지원 확대 ②기업매칭 지원 ③현지진출 지원 확대(수출/통상정보, 컨설팅 지원 등) ④인도 주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강화 ⑤금융지원 확대 ⑥한국전용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 ⑦기타()</p>

◆ [세부설문] 대인도 수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 (설문지B-2) ※복수응답 가능

1. 귀사의 대인도 수출 증가의 외부적 요인

- ① 환율변동
- ② 인도의 관세율 인하 및 철폐
- ③ 인도의 기술적, 제도적 비관세장벽 완화
- ④ 인도 내 해당품목 수요증가
- ⑤ 인도시장 내 경쟁우위 증대(가격, 품질, 브랜드 등 다른 기업과 비교 시)
- ⑥ 다른 국가(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 ⑦ 인도 내 협력기업(바이어, 유통/판매처)과의 협력관계 강화(거래규모 확대 등)
- ⑧ 기타()

1-1. 귀사가 생각하는 인도시장 내 주요경쟁 국가(기업) 변화

- ▶ 과거: ①한국기업 ②인도기업 ③중국기업 ④일본기업 ⑤미국/유럽기업 ⑥동남아기업 ⑦기타()
- ▶ 현재: ①한국기업 ②인도기업 ③중국기업 ④일본기업 ⑤미국/유럽기업 ⑥동남아기업 ⑦기타()

1-2. 귀사의 인도시장 내 주요경쟁 국가(기업)와의 경쟁관계 변화

- ① 경쟁우위 지속 ② 경쟁열위 지속 ③ 경쟁우위->열위전환 ④ 경쟁열위->우위전환 ⑤ 모르겠음

1-3. 귀사의 경쟁자 대비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 전환 요인

- ① 가격 ② 품질 ③ 판매 및 유통인프라/마케팅
- ④ 로컬협력사와의 관계 강화/약화 ⑤ 우리 정부의 지원우위/열위(경쟁국 대비)

1-4. 귀사의 수출대상국 간 수출변화 비교

(*인도 외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기업만 답변, *다른 국가는 대표 수출국)

- ① 인도만 증가, 다른 국가는 변화 없음 ② 인도와 다른 국가 모두 비슷하게 증가
- ③ 모두 증가했지만 인도가 더 많이 증가 ④ 모두 증가했지만 인도 보다 다른 국가가 더 증가 ⑤ 기타()

1-5. 귀사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율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관세율과의 비교

(*인도 외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기업만 답변, *다른 국가는 대표 수출국)

- ① 인도의 관세율이 더 높음 ② 다른 국가의 관세율이 더 높음(*해당국가 선택: 중국/베트남/미국/일본/기타)
- ③ 비슷함

1-6. 귀사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과 다른 국가 비관세장벽과의 비교

(*인도 외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기업중 비관세장벽을 경험한 기업만 답변)

- ①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높음
- ② 다른 국가의 비관세장벽이 높음(*해당국가 선택: 중국/베트남/미국/일본/유럽/기타)
- ③ 비슷함

1-7. 귀사가 대인도 수출시 경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

- ① 셰이프가드 ② 반덤핑규제 ③ 기술 및 인증규제 ④ 검역 ⑤ 일시적 수입규제/금지 ⑥ 복잡한 통관절차
- ⑦ 기타()

1-8. 통관절차 등 귀사가 경험한 인도 비관세장벽의 구체적 사례

<p>2. 귀사의 대인도 수출 증가의 내부적 요인</p> <p>①기업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가격, 품질 등) ②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대 ③한-인도 CEPA양허혜택 적극 활용 ④정부지원서비스 적극 활용 ⑤각종 규제, 비관세장벽 적극 해결 ⑥한-인도 CEPA 전담인력활용(인도 수출, 마케팅 전담 등)</p>
<p>2-1. 귀사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 요인</p> <p>①인건비 감소 ②원자재 비용감소 ③경영효율성 증가 ④연구개발 확대 및 강화 ⑤재무적 안정 ⑥공정자동화 ⑦기타() ⑧해당 없음</p> <p>2-2. 귀사의 인도시장,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요인</p> <p>①자체 발굴(현지 생산시설, 지사, 사무소 활용) 역량 강화 ②한국 및 인도정부기관 지원(기업매칭, 시장정보제공 등) 활용 ③로컬에이전시 활용 확대 ④한국에이전시 활용 확대 ⑤현지 합작 및 협력사 활용 ⑥기타()</p> <p>2-3. 귀사의 CEPA 활용 확대 이유 (*CEPA를 활용한 기업만 답변)</p> <p>①수입사 요청 ②자발적 활용(수출증대 기대) ③기타()</p> <p>2-4. 귀사가 확보한 신규 해외수출시장 지역 (*인도 현지생산을 통해 새롭게 개척한 해외수출시장이 있을 경우만 답변)</p> <p>①동남아 ②중국 ③일본 ④유럽 ⑤미국 ⑥중남미 ⑦남아시아 ⑧기타()</p>
<p>3. 귀사의 대인도 수출 전망(단기 1~3년, 중장기 4~10년)</p> <p>①지속증가 ②지속감소 ③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감소, 둔화할 것 ④단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 ⑤변화 없음 ⑥예측불가</p>
<p>3-1. 귀사의 대인도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p> <p>▶외부요인: ①인도경제 발전(고성장) ② 인도의 산업구조변화(수입구조변화) ③인도의 개혁개방정책(제조업육성, 인프라개발 등) ④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⑤통관절차 간소화 ⑥우리 정부지원 확대</p> <p>▶내부요인: ①경쟁력 제고/생산성 개선(가격 및 품질, 효율성 등 개선) ②시장 발굴 확대 ③유통/판매 네트워크 강화 ④한-인도 FTA 활용 확대 ⑤현지생산기지 구축</p> <p>3-2. 귀사의 대인도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p> <p>▶외부요인: ①협력사 철수(동반진출의 경우) ②시장경쟁심화 ③인도의 산업구조변화(수입구조변화) ④관세 및 비관세장벽 심화 ⑤인도측 파트너사 선정 어려움 심화 ⑥정부지원 미비</p> <p>▶내부요인: ①경쟁력 하락/생산성 악화 ②대체시장 발굴/수출선 다변화 ③현지생산 및 로컬소싱 확대</p> <p>3-3. 귀사의 대인도 투자진출 계획(신규, 또는 재투자)</p> <p>①투자진출 확대 계획(신규포함) ②투자진출 감소 계획 ③현 상태 유지 ④계획 없음</p> <p>3-4. 귀사의 대인도 수출, 또는 투자확대를 위해 필요한 우리 정부지원</p> <p>①CEPA활용지원 확대 ②기업매칭 지원 ③현지진출 지원 확대(수출/통상정보, 컨설팅 지원 등) ④인도 주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강화 ⑤금융지원 확대 ⑥한국전용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 ⑦기타()</p>

설문결과

생산시설 인도 진출지역(현지진출 기업 대상)																						
	사태수	3) 체나이 (타밀나두)			6) 구자라트			8) 방갈루르		5) 노이다		4) 뭄바이 (마하라슈트라)		2) 구르가온		10) 웨스트 벵골	9) 하이데라바드	7) 라자스탄	11) 기타	99) 모름	계	
		(30)	43.3	10.0	10.0	10.0	6.7	6.7	6.7	6.7	6.7	6.7	6.7	3.3	0.0	0.0	0.0	0.0	0.0	3.3	10.0	100.0
■ 전체	50명 미만	(11)	18.2	18.2	9.1	9.1	9.1	9.1	9.1	9.1	18.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2	100.0
	50~99명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299명	(11)	54.5	9.1	18.2	9.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1	100.0
	300~499명	(3)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100.0
	500~999명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명 이상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농림수산물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산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공업제품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주요품목	섬유류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생활용품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철강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비철금속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계	(7)	42.9	0.0	0.0	0.0	2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3	14.3	100.0
	정밀기계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4)	71.4	7.1	0.0	0.0	7.1	0.0	0.0	0.0	0.0	0.0	7.1	0.0	0.0	0.0	0.0	0.0	0.0	0.0	7.1	100.0
	전자전기	(2)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매출 규모 (2017년)	10억원 미만	(5)	20.0	4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
50~100억원 미만		(5)	0.0	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20.0	100.0
100~500억원 미만		(6)	50.0	0.0	33.3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0~1,000억원 미만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5,000억원 미만		(8)	50.0	12.5	0.0	1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5	100.0
5,000억원~1조원 미만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조원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특산품지역 선정 이유(현산지출 기업 대상)													
		3) 협력기업과의 근접성 (집적성)		4) 높은 시장근접성		5)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1) 양호한 인프라(교통, 전력, 수자원 등)		6) 원활한 원부자재 수급		2) 다양한 인세티브(세금감면, 보조금지원, 토지공급 등)		99) 모들	계
	■ 전체	(30)	63.3	13.3	10.0	10.0	10.0	10.0	0.0	0.0	0.0	0.0	0.0	3.3	100.0
	농림수산물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광산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공업제품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	0.0	33.3	0.0	0.0	66.7	0.0	0.0	0.0	0.0	0.0	0.0	0.0	100.0
	섬유류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생활용품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철강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비철금속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계	(7)	71.4	14.3	0.0	0.0	14.3	0.0	0.0	0.0	0.0	0.0	0.0	0.0	100.0
	정밀기계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4)	71.4	7.1	2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자전기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억원 미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50억원 미만	(5)	6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	100.0
	50~100억원 미만	(5)	80.0	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500억원 미만	(6)	66.7	16.7	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100.0
	500~1,000억원 미만	(3)	33.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5,000억원 미만	(8)	62.5	0.0	25.0	0.0	12.5	0.0	0.0	0.0	0.0	0.0	0.0	0.0	100.0
	5,000억원~1조원 미만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조원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델리	(3)	33.3	33.3	0.0	0.0	33.3	0.0	0.0	0.0	0.0	0.0	0.0	0.0	100.0
	구르기온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첸나이(타밀나두)	(13)	76.9	7.7	15.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뭍바이(마하라슈트라)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노이다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구저라트	(3)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라자스탄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방갈로르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하이데라바드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웨스트벵골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4)	50.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100.0

인도 외 수출대상 국가

	사례수	2) 동남아	1) 중국	5) 유럽	4) 미주	3) 일본	6) 남아시아	7) 기타
■ 전체	(300)	75.7	66.0	62.3	61.0	48.0	34.7	13.3
50명 미만	(152)	69.1	51.3	46.1	42.1	31.6	26.3	19.1
50-99명	(45)	82.2	73.3	62.2	57.8	46.7	33.3	0.0
100-299명	(74)	82.4	85.1	89.2	90.5	75.7	47.3	10.8
300-499명	(19)	94.7	84.2	78.9	84.2	73.7	52.6	15.8
500-999명	(7)	42.9	85.7	85.7	100.0	57.1	28.6	0.0
1,000명 이상	(3)	100.0	66.7	66.7	100.0	33.3	66.7	0.0
농림수산물	(2)	100.0	0.0	50.0	50.0	0.0	0.0	0.0
광산물	(0)	0.0	0.0	0.0	0.0	0.0	0.0	0.0
화학공업제품	(46)	87.0	71.7	50.0	56.5	52.2	50.0	23.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3)	82.6	69.6	60.9	60.9	56.5	34.8	17.4
섬유류	(16)	87.5	75.0	56.3	31.3	37.5	43.8	25.0
생활용품	(5)	100.0	20.0	100.0	20.0	60.0	40.0	40.0
철강	(28)	78.6	50.0	60.7	53.6	42.9	28.6	21.4
비철금속	(15)	53.3	20.0	20.0	33.3	46.7	26.7	0.0
기계	(56)	87.5	73.2	69.6	67.9	48.2	37.5	14.3
정밀기계	(23)	69.6	82.6	73.9	73.9	39.1	47.8	4.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7)	34.0	68.1	66.0	66.0	42.6	10.6	6.4
전자전기	(25)	92.0	72.0	68.0	72.0	64.0	28.0	4.0
기타	(14)	92.9	64.3	78.6	85.7	50.0	57.1	0.0
10억원 미만	(20)	45.0	65.0	30.0	25.0	30.0	25.0	15.0
10-50억원 미만	(49)	67.3	53.1	34.7	24.5	22.4	16.3	16.3
50-100억원 미만	(41)	85.4	61.0	61.0	56.1	41.5	34.1	12.2
100-500억원 미만	(104)	76.0	65.4	69.2	69.2	51.9	32.7	9.6
500-1,000억원 미만	(32)	78.1	75.0	78.1	75.0	50.0	50.0	18.8
1,000-5,000억원 미만	(44)	84.1	77.3	81.8	88.6	75.0	45.5	13.6
5,000억원-1조원 미만	(7)	85.7	85.7	57.1	71.4	85.7	71.4	28.6
1조원 이상	(3)	100.0	66.7	66.7	100.0	33.3	66.7	0.0
한국	(248)	77.4	68.5	64.9	63.7	50.8	36.7	14.9
동남아	(14)	85.7	57.1	64.3	57.1	64.3	28.6	0.0
유럽/미주	(15)	60.0	40.0	66.7	73.3	33.3	20.0	6.7
중국	(7)	85.7	85.7	42.9	28.6	28.6	14.3	0.0
기타 남아시아 국가	(14)	50.0	50.0	21.4	28.6	14.3	35.7	7.1
기타	(2)	50.0	50.0	50.0	0.0	0.0	0.0	50.0

대인도 투자자출 계획(감소 정제응답 기업)							
주요품목	사례수	3) 현 상태 유지		4) 계획 없음		계	
		환 상태	유지	1) 투자자출 확대 계획(신규포함)	2) 투자자출 감소 계획		
중요품목	전체	(203)	42.9	40.9	12.8	3.4	100.0
	50명 미만	(104)	42.3	43.3	10.6	3.8	100.0
	50~99명	(30)	60.0	36.7	3.3	0.0	100.0
	100~299명	(50)	34.0	44.0	16.0	6.0	100.0
	300~499명	(13)	38.5	30.8	30.8	0.0	100.0
	500~999명	(4)	50.0	25.0	25.0	0.0	100.0
	1,000명 이상	(2)	50.0	0.0	50.0	0.0	100.0
	농림수산물	(1)	0.0	0.0	100.0	0.0	100.0
	광산품	(0)	0.0	0.0	0.0	0.0	0.0
	화학공업제품	(25)	40.0	32.0	24.0	4.0	100.0
주요품목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2)	41.7	41.7	8.3	8.3	100.0
	섬유류	(13)	38.5	53.8	7.7	0.0	100.0
	생활용품	(4)	75.0	25.0	0.0	0.0	100.0
	철강	(18)	38.9	44.4	11.1	5.6	100.0
	비철금속	(10)	60.0	30.0	10.0	0.0	100.0
	기계	(38)	50.0	31.6	15.8	2.6	100.0
	정밀기계	(17)	41.2	52.9	5.9	0.0	100.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4)	38.2	47.1	8.8	5.9	100.0
	전자기기	(19)	31.6	52.6	10.5	5.3	100.0
	기타	(12)	50.0	33.3	16.7	0.0	100.0
매출 규모 (2017년)	10억원 미만	(19)	42.1	52.6	0.0	5.3	100.0
	10~50억원 미만	(36)	41.7	41.7	11.1	5.6	100.0
	50~100억원 미만	(24)	29.2	58.3	12.5	0.0	100.0
	100~500억원 미만	(68)	51.5	38.2	8.8	1.5	100.0
	500~1,000억원 미만	(23)	43.5	30.4	17.4	8.7	100.0
	1,000~5,000억원 미만	(25)	40.0	36.0	20.0	4.0	100.0
	5,000억원~1조원 미만	(5)	20.0	40.0	40.0	0.0	100.0
	1조원 이상	(3)	33.3	0.0	66.7	0.0	100.0
	한국	(163)	46.6	39.9	11.0	2.5	100.0
	수출품목 생산지역	동남아	(10)	30.0	40.0	10.0	20.0
유럽/미주		(11)	9.1	54.5	27.3	9.1	100.0
중국		(7)	42.9	42.9	14.3	0.0	100.0
기타 남아시아, 국가(인도, 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10)	30.0	40.0	30.0	0.0	100.0
기타		(2)	50.0	50.0	0.0	0.0	100.0

대인도 수출 투자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사항(감소, 정채응답 기업)										
사례수	3) 현자진출 지원 확대(수출/통상정보, 컨설팅 지원 등)	2)		1)		6) 한국전용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	7) 기타 98)	계		
		기업매칭 지원	금융지원 확대	4)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강화	5) 인도 주정부와의 CEPA활용 지원 확대					
■ 전체 ■	(203)	24.1	20.2	19.2	15.8	14.3	2.5	2.0	100.0	
50명 미만	(104)	18.3	22.1	20.2	16.3	16.3	1.9	2.9	1.9	100.0
50~99명	(30)	20.0	16.7	30.0	13.3	16.7	0.0	0.0	3.3	100.0
100~299명	(50)	36.0	24.0	10.0	12.0	12.0	4.0	0.0	2.0	100.0
300~499명	(13)	30.8	0.0	15.4	30.8	7.7	7.7	7.7	0.0	100.0
500~999명	(4)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1,000명 이상	(2)	0.0	50.0	0.0	50.0	0.0	0.0	0.0	0.0	100.0
농림수산물	(1)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광산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공업제품	(25)	12.0	36.0	16.0	12.0	12.0	8.0	0.0	4.0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2)	25.0	33.3	16.7	8.3	16.7	0.0	0.0	0.0	100.0
섬유류	(13)	15.4	7.7	15.4	15.4	30.8	7.7	7.7	0.0	100.0
생활용품	(4)	25.0	25.0	25.0	0.0	25.0	0.0	0.0	0.0	100.0
철강	(18)	27.8	11.1	27.8	16.7	16.7	0.0	0.0	0.0	100.0
비철금속	(10)	20.0	30.0	20.0	10.0	0.0	0.0	0.0	20.0	100.0
기계	(38)	10.5	15.8	10.5	34.2	21.1	2.6	5.3	0.0	100.0
정밀기계	(17)	41.2	17.6	11.8	11.8	17.6	0.0	0.0	0.0	100.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4)	38.2	20.6	32.4	2.9	0.0	2.9	2.9	0.0	100.0
전자전기	(19)	26.3	21.1	21.1	10.5	15.8	0.0	0.0	5.3	100.0
기타	(12)	33.3	8.3	8.3	33.3	16.7	0.0	0.0	0.0	100.0
10억원 미만	(19)	21.1	21.1	26.3	21.1	5.3	0.0	5.3	0.0	100.0
10~50억원 미만	(36)	16.7	27.8	25.0	11.1	8.3	2.8	5.6	2.8	100.0
50~100억원 미만	(24)	20.8	16.7	12.5	29.2	20.8	0.0	0.0	0.0	100.0
100~500억원 미만	(68)	22.1	19.1	16.2	14.7	22.1	2.9	0.0	2.9	100.0
500~1,000억원 미만	(23)	21.7	30.4	17.4	8.7	17.4	0.0	0.0	4.3	100.0
1,000~5,000억원 미만	(25)	52.0	8.0	20.0	12.0	0.0	4.0	4.0	0.0	100.0
5,000억원~1조원 미만	(5)	20.0	0.0	40.0	0.0	20.0	20.0	0.0	0.0	100.0
1조원 이상	(3)	0.0	33.3	0.0	66.7	0.0	0.0	0.0	0.0	100.0

대인도 수출 투자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사항(증가응답 기업)										
사례수	3) 현지진출 지원 확대(수출/통상정보, 간선행 지원 등)	2) 기업매칭 지원	5) 금융지원 확대	4) 인도 추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강화	1) CEPA활용 지원 확대	6) 한국전용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	기타 98)	없다	계	
■ 전체	(97)	49.5	27.8	22.7	0.0	100.0	2.5	2.0	2.0	100.0
50명 미만	(48)	56.3	22.9	20.8	0.0	100.0	1.9	2.9	1.9	100.0
50~99명	(15)	53.3	26.7	20.0	0.0	100.0	0.0	0.0	3.3	100.0
100~299명	(24)	41.7	29.2	29.2	0.0	100.0	4.0	0.0	2.0	100.0
300~499명	(6)	16.7	50.0	33.3	0.0	100.0	7.7	7.7	0.0	100.0
500~999명	(3)	33.3	66.7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명 이상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농림수산물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광산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공업제품	(21)	61.9	33.3	4.8	0.0	100.0	8.0	0.0	4.0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1)	45.5	18.2	36.4	0.0	100.0	0.0	0.0	0.0	100.0
섬유류	(3)	33.3	33.3	33.3	0.0	100.0	7.7	7.7	0.0	100.0
생활용품	(1)	0.0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철강	(10)	60.0	20.0	20.0	0.0	100.0	0.0	0.0	0.0	100.0
비철금속	(5)	20.0	20.0	60.0	0.0	100.0	0.0	0.0	20.0	100.0
기계	(18)	66.7	22.2	11.1	0.0	100.0	2.6	5.3	0.0	100.0
정밀기계	(6)	16.7	50.0	33.3	0.0	100.0	0.0	0.0	0.0	100.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3)	38.5	23.1	38.5	0.0	100.0	2.9	2.9	0.0	100.0
전자전기	(6)	33.3	66.7	0.0	0.0	100.0	0.0	0.0	5.3	100.0
기타	(2)	50.0	0.0	50.0	0.0	100.0	0.0	0.0	0.0	100.0
10억원 미만	(1)	100.0	0.0	0.0	0.0	100.0	0.0	5.3	0.0	100.0
10~50억원 미만	(13)	69.2	23.1	7.7	0.0	100.0	2.8	5.6	2.8	100.0
50~100억원 미만	(17)	52.9	29.4	17.6	0.0	100.0	0.0	0.0	0.0	100.0
100~500억원 미만	(36)	44.4	25.0	30.6	0.0	100.0	2.9	0.0	2.9	100.0
500~1,000억원 미만	(9)	55.6	11.1	33.3	0.0	100.0	0.0	0.0	4.3	100.0
1,000~5,000억원 미만	(19)	36.8	42.1	21.1	0.0	100.0	4.0	4.0	0.0	100.0
5,000억원~1조원 미만	(2)	50.0	50.0	0.0	0.0	100.0	20.0	0.0	0.0	100.0
1조원 이상	(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An Analysis on the Competitiveness and Difficulties in Korea's Export to India

Choongjae Cho, Young Chul Song, Jung-Mi Lee, and ChiHyun Yun

In July 2018,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the new target of achieving \$50 billion in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by 2030 following a summit meeting with Narendra Modi, the Prime Minister of India.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 naming India as a key partner in line with its New Southern Policy,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emained stagnant since reaching the \$20 billion mark in 2011. As such, this is a timely opportunity for research that can contribute toward attaining the trade target.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Korea's export to India, identify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export stagnation, and going on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Indian market.

Chapter 1 introduc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stagnation of trade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former category refers to factors that determine intra-company competitiveness, while the latter factors are those beyond the control of individual companies and which can also be explained as cyclical or structural factors. Based o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pters analyze the main factors that are affecting the stagnation of Korea's export towards India from various perspectives.

Chapter 2 identifies three noticeable factors behind export downturns based on the changes in the structures of Indian imports and Korea's exports to India. The first factor is an expansion of local production and non-tariff barriers in India. The government of India is promoting local production by utilizing the "Make in India" campaign and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which have contributed to a slowdown in Indian imports. Another factor is the massive expansion of China's export to India. China's share in the Indian import marke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especially in major categories such as electronic devices, machinery, organic chemicals, steel, plastic and automobile parts. Lastly, Korea's lack of export capacity also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export stagnation. There are some items in which Korea's exports are unable to fully meet India's import demand, including various plastic polymers, synthetic rubber products, some kinds of machinery, electronic devices, and automobile parts. These products are being replaced by goods from other countries, mostly China, and considering that these represent some of Korea's main export items, the situation is highly critical.

Chapter 3 examines changes i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major items that Korea exports to India. Our results indicate that many of the items that show a deterioration in competitiveness within the Indian market bear relation to the decline in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Some other items showed a rise in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but declined in the Indian market, which largely

seems to be due to lower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Chinese products. Meanwhile, changes caused by localization, the India-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and non-tariff measures also seem to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goods. For example, the expansion of localization in India has led to a decline i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automobile parts, and the concession ratio of the Korea-India CEPA, set at a less favorable level to the India-Japan CEPA,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lastic goods. Moreover, India's non-tariff measures partially affected the declining competitiveness in Korean exports of organic chemicals, rubber, and steel.

Chapter 4 examin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tagnation in Korean exports to India based on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on 300 exporting companies. The external factors reported as the most influential were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Indian market and decline of Korean companies' competitive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the lack of competence in locating the local market and securing distribution and sales networks, the decline i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 decline in export due to localization were the major internal factors identified. In addition, the low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Korea-India CEPA is also likely to have contributed to Korea's sluggish export to India.

Based on the above analyses, Chapter 5 examines the factors of export stagnation for individual items by structuring them into a matrix, and presents policy directions and tasks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for the individual factors. In terms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against internal factors, the results suggest that implementing active response measures to changes in India's industry and demand structure, establishing active partnerships with local companies, and reinforcing intra-company export capabilitie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existing CEPA would be beneficial. Against the external factor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o build a long-term, stable trade network. Reducing non-tariff barriers, advancing negoti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EPA, and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trade through localization and the global value chain (GVC) are also recommende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tagnation of Korea's export to India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or limited to specific items, and could become prolonged or even permanent. In this regard,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need to find new breakthroughs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Indian market. To this end, it is imperative to build a virtuous cycle between export and investment that can enhance the scope and quality of trade by increasing investment or localization, and constructing b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In order to develop more specific coopera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joint research on Korea-India trade, expand business-matching programs, establish a cooperation fund to support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develop a Korean-style manufacturing city within India to promote localization and GVC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8년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윤중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곽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홍중 · 윤여준 · 김종혁 · 임유진 · 문성만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경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근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범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 2017년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산업혁명 · 전자상거래 ·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태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택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평비 · 김지수 · 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제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윤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규판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최보영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 · 방호경 · 이보람 · 백종훈
-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 · 이현태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오윤미

-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곽성일 · 김재완 · 김재국 · 신민이
-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 · 박순찬 · 강민지
- 17-0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 · 임수호 · 이석기 · 최유정 · 임소정
- 17-0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형근 · 김종혁 · 권혁주
- 17-08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강준구 · 이홍식 · 한치록
- 17-09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 · 김효상
- 17-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 ·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김효은
- 17-1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 · 김소영 · 강은정 · 양다영
- 17-12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김민성 ·곽소영 · 정민철
-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7-14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 · 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 · 김종혁 · 권혁주 · 김원기
- 17-15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 · 염동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윤상철 · 이종욱
-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 · 인도 협력방안 /
이 용 · 배찬권 · 이정미
-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 · 이수영 · 김혁황 · 강영호
- 17-1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 · 배찬권 · 이수영 · 박지현 · 유새별

-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하나·노수연
-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 17-28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이철원·오탈현·이현진·임유진
- 17-29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훈·방호경
- 17-30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하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 17-3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 17-32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 표학길

조충제(趙忠濟)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現, E-mail: cjcho@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공저, 2015)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공저, 2017) 외

송영철(宋泳澈)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ycs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공저, 2014)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2017) 외

이정미(李廷美)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leejm@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공저, 2016)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6)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공저, 2017) 외

윤지현(尹智賢)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chyun@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양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공저, 2016)

『중양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양아 신흥력 방향』 (공저, 2017)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A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